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728

2016년 8월

박사학위논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접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 혜 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접근

The Hermeneutic Grounded Theory Approach to Post-traumatic Growth of the Experienced Childcare Institution

201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 혜 숙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접근

지도교수 김 진 숙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 혜 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혜숙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朴喜緖 (인)

위 원 호남대학교 교수 吳世胤 (인)

위 원 전북대학교 교수 金卿娥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龍燮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眞淑 (인)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4

제2장 이론적 배경 ····· 6
제1절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개념과 특성 ····· 6
1.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의 개념 ····· 6
2.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의 특성 ····· 10
3. 선행연구의 동향 ····· 14
제2절 외상 후 성장 ····· 19
1. 외상 후 성장 개념의 특성 ····· 19
2. 외상 후 성장 관련 이론 ····· 23
제3절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 27
1.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경험 ····· 27
2.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 ····· 29
제4절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주요쟁점 ····· 32

제3장 연구방법 ····· 35
제1절 연구방법의 선택배경 ····· 35
1.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이해와 특징 ····· 37
2. 연구방법의 선택과 접근방법 ····· 40
제2절 자료수집 ····· 42
1. 연구 참여자 ····· 42
2. 연구도구 ····· 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자료 분석 방법 ····· 53
1. 자료 분석 절차 ····· 54
2. 분석단계 ····· 55
제4절 연구과정의 적합성 ····· 58
1. 이론적 민감성 향상 ····· 58
2. 연구자의 준비 ····· 59
3. 연구의 윤리적 기준 ····· 60
4. 연구의 엄격성 ····· 61

제4장 연구결과 ····· 63
제1절 인생진행의 과정분석 ····· 63
1. 참여자 1의 프로토콜 ····· 64
2. 참여자 2의 프로토콜 ····· 67
3. 참여자 3의 프로토콜 ····· 69
4. 참여자 4의 프로토콜 ····· 71
5. 참여자 5의 프로토콜 ····· 74
6. 참여자 6의 프로토콜 ····· 76
7. 참여자 7의 프로토콜 ····· 79
8. 참여자 8의 프로토콜 ····· 82
9. 참여자 9의 프로토콜 ····· 84
10. 참여자 10의 프로토콜 ····· 87
제2절 범주의 구성과 기술 ····· 91
1. 범주의 구성 ····· 91
2. 범주의 기술 ····· 93
제3절 핵심범주의 구성: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 ····· 131
제4절 과정분석 ····· 136
1. 고난단계 : 고통스런 경험의 연속 ····· 138
2. 자각단계 : 현실수용 ····· 140
3. 탐색단계 : 새로운 양육환경 ····· 14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생존단계 : 인내 ····· 143
5. 성장단계 : 이해, 성장 ····· 144
제5절 유형 분석 ····· 145
1. 개척형 ····· 146
2. 통합형 ····· 148
3. 현실형 ····· 149

제5장 결론 및 논의 ····· 15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52
1. 인생진행의 과정분석 결과 ····· 153
2. 범주 및 핵심범주 분석 결과 ····· 154
3. 과정분석 결과 ····· 156
4. 유형분석 결과 ····· 157
제2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 159
1.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 제시 ····· 159
2.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위한 실체이론 개발의 중요성 ····· 160
제3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 164
1. 연구의 함의 ····· 164
2. 연구의 한계 ····· 169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69

【참고문헌】 ····· 172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184
【부록 2】 외상 후 성장 척도 ····· 185
【부록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지 ····· 186
【부록 4】 반구조화 된 면담용 설문지 ····· 18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43
<표 2>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 ····· 45
<표 3>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 48
<표 4> 외상 후 성장 점수 ····· 50
<표 5>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와 빈도 ····· 52
<표 6> 범주의 구성 ····· 91
<표 7> 외상 후 성장 유형 분류 ····· 14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 ····· 47
<그림 2> 근거이론 연구 절차 ····· 54
<그림 3> 분석단계 ····· 58
<그림 4-1> 참여자 1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65
<그림 4-2> 참여자 2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68
<그림 4-3> 참여자 3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70
<그림 4-4> 참여자 4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73
<그림 4-5> 참여자 5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75
<그림 4-6> 참여자 6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78
<그림 4-7> 참여자 7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81
<그림 4-8> 참여자 8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83
<그림 4-9> 참여자 9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86
<그림 4-10> 참여자 10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 89
<그림 5>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핵심범주 ····· 132
<그림 6> 과정분석단계 ····· 13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Hermeneutic Grounded Theory Approach to Post-traumatic Growth of the Experienced Childcare Institution

Shin, Hye-sook
A dvisor : Prof. Kim, Jin-sook Ph. 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pth of the meaning of growth after trauma in nursery residents and to develop practical theories needed for a social welfare policy and services which are useful for children. Based on the aim above, this study asks a question: 'What is the growth process of nursery residents after trauma lik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 people who stayed in nurseries between the ages of 20 and 40 and reported that they had above the mean score in growth and they developed after trauma according to a questionnaire. They were interviewed in depth to collect the data. In terms of Rennie's Hermeneutic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data was analysed. Based on the oral data obtained from the subjects, this study conducted a life process analysis, a category classification and technique analysis, a process analysis and a typ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presented: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ife process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growth of nursery residents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ntext after they experienced trauma. The subjects experienced trauma from nursery life, but they overcame difficulties in that situation very well.

Second, the categories were classified as follows: 'stood at edges', 'scarlet letter engraved', 'caught by the past', 'faced with suffering', 'chained to the world', 'viewed life in a new way', 'went towards new life', and 'spirituality deepened.' The central category which covers the eight categories above was 'new life was achieved through hardship.'

Third, through the process of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the stages where growth experience changes according to the context after they experienced trauma. First, in the hardship stage, the subjects experienced abuse from their parents though they considered that abuse would not happen to them or they experienced strict nursery rules and violence from nursery friends. Second, in the perception stage, the subjects perceived the problem that they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and sent to a nursery and had deeper agony from multi-dimensional thoughts on their families. Third, in the exploration stage, the subjects explored the social environment of nurseries and their surroundings with real needs not to be away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ty that they belonged to. Fourth, in the survival stage, they decided to adapt to living in the nurseries and obey reality. Fifth, in the growth stage, they understood their families and nurseries and became leaders in their lives.

Fourth, through a type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the common pattern where they experienced growth after they experienced trauma. The pioneer type was a leader in the growth process after overcoming trauma. They tried to overcome their real problems and had strong intent to resolve them.

The integration type thought that their present life was create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rough past experiences. They thought of the experience of trauma as one of the events in their life, and tried to adapt to reality based on their past experiences. The reality type recognized what had happened to them and identified their reality to select what was useful for themselve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interpreted that the subjects grew up through experiences at nurseries after they experienced trauma.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here:

First, the social recognition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life at nurseries should be changed.

Second, programs through which we can facilitate growth on those who experienced life at nurseries should be developed.

Third, for those who experienced life at nurseries to achieve growth after they experienced trauma, successful cases as a model they can psychologically rely on should be presented.

Fourth,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directions on specific interventions should be presented.

Key words: those who experienced life at nurseries, Hermeneutic Grounded Theory Approach, growth after trauma.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엄마 아빠 안 계신다. 고아원이다. 더럽다. 옷이 안 예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어렸을 때는 제가 소심했던 사람이었는데 눈물도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다보니까 서로 성향이 다르잖아요. 아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일 열심히 하면서 나는 여기(시설) 살아도 잘 할 수 있어! 하고 다짐하고 사람을 더 만나보고 피하지 말고 더 관계들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참여자 8의 인터뷰 중에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속내를 고백하듯 털어놓은 이 내용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시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경험한 외상 경험으로부터 성장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나타내 주는 단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시설은 그 시기별로 특징이 있는데,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를 잃어버린 아동들을 모아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긴급 구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이때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을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경제성장을 통한 생활의 안정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부모의 학대, 경제적 무능력, 이혼, 질병, 유기 등의 이유로 요보호 아동들이 발생함에 따라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우에 아동양육시설이 보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요보호아동의 이후 상황들을 살펴보면 2015년 총 발생인원 중 시설입소가 2,682명(5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보건복지부, 2016),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6.5%에 불과하고, 퇴소 후 자신의 어려움을 의논하는 대상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설직원(34%)과 시설 선후배(30.3%)들이 가장 많은 것을 볼 때(신혜령 외, 2008) 아동양육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원가정을 대신해 낯선 시설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관심이 어떠한가?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원가족에게서 받은 외상경험과 가족관계의 단절, 그 양육을 대리한 시설생활에서의 상처경험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자아상을 갖기 쉬우며(이순형 외, 2002), 학령기 생활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등 부적응의 수준이 높고(문성호, 2001; 성미영 외, 2001), 사회기술능력이 떨어지며(권세은, 2002),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성미영, 2006; 이강이 외, 2002; 정선욱, 2002; 홍영미, 2010; Courtney et al., 2005), 이들은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불안과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홍수현 외 2005; 조정순 외 2009), 우울하거나 위축되기 쉬운 심리적·사회적 특성을 보이는(양점도 외, 2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원인과 과정을 밝히는데 집중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해 원가족과 시설생활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만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들을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자기 낙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단순히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을 유발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그들의 입소원인에 따른 문제점과 사후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실태의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과 시설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퇴소 이후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외적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가 경험한 외상 후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적 관점(emicperspective)에서 접근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계량화된 측정도구를 가지고 발생한 문제의 원인에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결과를 보여주는데 치중하고 있어서 이들의 실제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 가는지, 성장 과정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며,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삶의 과정에서 원가족과 시설이라는 두 가지 사회구조적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인 맥락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이들이 외상 후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은 더 이상 개인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의 동향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응과 성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시설입소는 무려 60%에 가깝다(보건복지부, 2016). 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경험하는 외상경험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우리사회가 그들을 좀 더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바른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련 정책과 실천서비스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경험세계와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하기 때문에 내부자적 관점에 근거한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중심된 의미는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주관적 인식을 통하여 그들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해 내고, 개념화하고, 범주화하여 범주 간 연결고리를 찾고, 설명 가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인식적 메카니즘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원가족 생활 시 상처를 경험하고 분리되어 집단시설생활이란 삶의 세계에 내던져진다. 본 연구는 이들이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문화적 압력, 심리내적 고뇌와 갈등 등이 주변 체계와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밝혀 시설운영의 방향성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문제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은 어떠한가?' 로 하였다.

제2절 연구범위

아동양육시설은 입소자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이들의 발달이나 기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며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20대부터 퇴소 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40대까지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 10년 이상인 자이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보고한 참여자 중 외상 후 성장 척도 점수가 평균이상인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원가족 생활과 집단시설생활을 통해 다양한 상처들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힘든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지 자신의 목소리로 충분히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심층면담 과정을 통해서도 아직 미해결 된 과제가 있다면 스스로 인지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외상경험과 시설로 보내져 버린 이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상처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외상 후 성장과 연결되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외상 후 성장 경험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원가족 생활과 시설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입게 된 외상 경험 이후 어떻게 외상 후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여 이들의 실제 경험이 충분히 반영된 실체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직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담은 질적 연구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며, 이들에 대한 이해와 시설환경의 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데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데 자녀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의 해체는 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부모의 학대나 이혼, 유기 등으로 인한 원가족 해체와 분리를 경험 할 뿐 아니라 집단시설생활에 따른 다양한 상처들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들을 저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원가정과 시설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어떤 영향들을 받았으며, 이들의 아동양육시설생활경험과정과 그 특성들은 무엇인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의 개념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연구는 아동, 청소년, 퇴소자로 구분하여 연구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나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재구성하기에는 제한이 뒤따른다. 현행 법률용어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시설아동 또는 시설청소년으로 사용하고, 자립한 퇴소자에 대해서는 시설퇴소자로 쓰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 시설청소년, 시설퇴소자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순화하기 위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중 성장 경험을 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고자하여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주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의 입소사유 중 부모이혼(23.8%)과 학대가(24%)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은 시설입소로 인해 원가족과 분리를 경험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서를 갖기 쉽고(김현자 외, 200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애착의 단절을 경험할 소지가 크며(김경희 외, 2009),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상처와(이미혜, 2002) 행동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이진숙 외, 2006),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일탈행동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Hoffman & Edwards, 2004), 원가정과 집단시설생활을 통해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능하거나 타인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정익중 외, 2006). 이러한 요소들은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우 외, 2012). 이처럼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게 있어 원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권지성 외, 2009).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원가족 생활경험 이후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집단생활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동양육시설생활은 개인적인 상처치유보다는 적응이 우선시 되거나(김경희 외, 2009) 자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들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낙인과 편견, 차별을 더 빈번히 경험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이들이 경험한 외상경험과 상당부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원가정과 이동양육시설의 생활을 통해 다양한 외상을 경험함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과 성인기로의 전환에 따른 과업수행의 부담감, 경제적 문제,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 부족한 지지 집단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겪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경험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입소 전부터 부모의 학대를 통한 상처경험으로 인해 분노의 감정을 갖기 쉬우며, 시설 입소로 인한 부모와의 분리와 시설환경과 많은 사람들로 인한 불안과 상실에 따른 슬픔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라는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홍봉선 외, 2007)과 잠재적인 공격성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며 폭력성을 유발하기도 한다(Stein, 2006). 또한 원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적 적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Leathers, 2000) 이러한 요소들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홀로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권지성 외, 2009).

둘째, 성인기로의 전환에 따른 과업수행의 부담을 안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경험자들은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7.4%로 많고(신혜령 외, 2008), 부모가 생존해 계신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퇴소 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고 적응해야함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고조되며, 과거 경험 때문에 독립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에 실패한다고 하였다(Courtney, 2007). 자립으로의 삶의 전환은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 중 상당수는 자립준비가 충분하게 못해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은 외, 2008). 그러나 이들이 퇴소이후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역량이 충분한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Courtney and Barth, 1996), 퇴소 후 자립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며(신혜령 외, 2008), 법적 퇴소 나이인 만 18세는 자립에 필요한 기본기술들을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Charles, 2011).

셋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이다. 이들은 시설생활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용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립 후 취업 시에도 41.7%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2) 전문직에 종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2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신혜령 외, 2008;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 이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문제(55.6%)가 가장 부담을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고시원이나 친구 집, 쪽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신혜령 외, 2008), 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이다.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퇴소를 해야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들이 진학을 희망할 경우 퇴소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 진학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휴학을 하거나 중퇴를 하는 경우가 45.6%로 나타났다(신혜령 외, 2008).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퇴소를 늦출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자립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퇴소현황을 살펴보면(보건복지부, 20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0년에 216명(20.1%), 2011년에 274명(25.2%)로 점점 퇴소를 늦추고 자립을 더 내실 있게 준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진학 등의 전환 준비기간을 거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연구에서도 대학 재학의 기회가 이들의 심리사회적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강현아 외, 2009).

다섯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지지 집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설생활자들은 부모의 부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인관계가 필요하다. 이들은 퇴소 후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 주로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들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34.0%), 시설의 선후배(30.3%), 형제자매(16.0%), 혼자서 해결하는(14.8%)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이혜연 외, 2007).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에게 지지집단이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원가족과의 오랜 분리경험으로 인한 관계의 문제와 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가족이 지지집단이 되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설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도 적극성을 띄기 어려워 주변 환경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시설에 오니 친구도 있고, 동생도, 언니도, 형도 많아서 이들을 함께 사는 서로를 가족이라 칭하였다. 친부모와 분리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이후의 대리적 관계, 대리적 양육의 적절성에 의해 완화 될 수 있으며(정선욱, 2004), 아동양육시설 생활 중 수용 받는 경험이 많아지면 사회적 기술도 발달하게 된다(김기영 외, 2003)고 보았다.

여섯째, 시설환경의 문제이다. 시설의 물리적환경은 원가정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집단생활에 따른 개인 사생활보장의 어려움은 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동안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이런 부정적인 특성들을 시설병(hospitalism)이라고 명명하며, 아동양육시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은 이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소 후에도 입소 전에 경험한 외상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집단생활인 시설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자로써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유기나 학대 등의 부적합한 행동을 할 때 어떤 아이들에게는 가정보다 시설보호가 이들을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적합할 수 있으며(이혜연 외, 2007). 시설의 다양한 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그들의 욕구에 맞게 활용한다면 시설보호가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의 발달과 보호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의 특성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한 삶의 의미 탐색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입소경로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권지성, 2007),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누적된 문제이므로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정 시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입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생활의 특성과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양육시설생활은 집단생활로 인해 개방적인 감정의 교환과 안정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규칙적인 일상생활로 인해 자주성, 창의성이 부족하며(이명홍, 1970), 우울이나 불안 정도가 높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박현정, 2001), 상당수가 인지 능력이 평균 이하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으며(신혜령 외, 2013),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발달과정에서 원가정으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보살핌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지적·정서적·사회적 측면의 성격발달의 지연 및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고영란, 2009), 입소원인에 대한 자각에 있어서 입소자와 시설직원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으며, 입소원인에 따라 문제행동 유형은 차이가 있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지각하는 경우는 비행과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가출로 지각한 경우는 우울과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한근희 외, 2007) 등 적응 및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 외, 2012). 이들은 부모가 있다고는 하나 입소 사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우며, 퇴소 이후에도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비슷한 경험을 한 시설친구들이나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돌보는 시설직원들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원가족과는 전혀 다른 낯선 환경과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시설 또한 이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시기가 만 18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 생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험자들의 경우 그 전환기적 과업과 더불어 환경적 변화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신혜령 외, 2008). 이에 따라 국가는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별로 100만원~500만원의 자립정착금 및 주거, 학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퇴소 전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하여 퇴소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시도(서울, 부산, 강원, 충남)에서는 전세자금지원(이혜연 외, 2007)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퇴소 이후 안전하게 거주할 집이나 안정적인 직업,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 확보 등 자립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며(Collins, 2001), 이들은 불안정한 현실 앞에 당황하게 되는데(Atkinson, 2008), 최근 퇴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주거 및 취업신분의 불안정성과 진학을 위한 재정지원 미흡, 전문직이 아닌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으로 인한 취업의 취약성과 낮은 소득과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 소원한 가족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욱 외, 2011). 이처럼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시설생활경험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의 공급부족은 이들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은 더욱 아동양육시설생활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은 이들이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자립을 위한 경제적 능력, 시설 출신이기 때문에 얻게 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생활의 적응 등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얻기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중요한 과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한 경험세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발판삼아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들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생활경험이 생활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시설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집단시설생활을 통해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집단생활에 따른 개인 사생활 보장이 어려우며, 엄격한 규칙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되고, 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양육자인 생활지도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어렵고, 시설출신으로 겪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시설생활경험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생활을 통해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시설생활자들의 체험가운데 '매 맞는 것에 대한 쓰라림'이 있는데 날마다 선배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런 삶(김미영, 2002)과 시설선배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시설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최나야, 2002). 시설생활자들 간의 연령과 경험의 차이로 인한 위계적 특성으로 인해 선배들의 사소한 괴롭힘도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자들은 집단생활에 따른 연대책임이라는 무언의 생활자들 간의 암묵적 규칙으로 인해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선배들로부터 요구받기 때문에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입소자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되면서 시설내의 물리적 폭력 근절에 따른 교육으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의 환경은 많은 개선을 이루게 되었다.

둘째, 집단생활에 따른 개인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과 엄격한 규칙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된다. 집단형태를 띄고 있는 시설의 특성 상 단체생활에 따른 엄격한 규칙과 많은 규정들을 강요당하는 한계와(정원철 외 2013) 우리사회가 '고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설과 생활자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정익중 외, 2012), 집단생활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자유가 침해당하기 쉬우며, 선배들의 명령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움직이거나 강요된 행동을 취하게 된다(김미영, 2002). 너무나 많은 규칙과 엄격한 규정들로 인해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모든 시설물들도 개인의 물건이 아닌 생활자 공동소유 개념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애착이나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기 어렵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탈 시설화 정책과 함께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그룹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전국의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현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동생활가정이 476개소인 것에 비해 아동양육시설은 242개소로 공동생활가정의 개소수가 2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셋째, 생활지도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안정적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다.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은 생활자들의 주 양육자로서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활지도원들은 1명이 다수의 생활자를 동시에 돌봐야 하고, 실제로는 1일 2교대 근무시스템으로 인해 업무 시 10명 이상을 돌봐야하는 상황으로 인해 생활자에 대한 개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 양육자인 생활지도원과 생활자들과의 관계형성과 생활자들의 욕구 파악 및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생활지도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거나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데(정익중 외, 2011), 이들은 단순히 시설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부모를 대신하는 대리 양육자로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함에 따라(권지성 외, 2006)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수준이 향상되어 이전에 비해 물리적인 자극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생활지도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교체와 이로 인한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의 결여는 시설의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Lee & Seol 등, 2010).

넷째, 시설출신으로 겪는 사회적 낙인과 스스로 부여한 자기낙인을 경험한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시설에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을 지각하는 경향이 더 높으며(이성식, 2007), 직장을 구할 때 입사서류에 시설출신임을 기록하면 채용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거나(권지성, 2007), 시설출신인 것이 알려지면 자신을 다르게 볼까봐서 스스로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권지성 외, 2009). 이러한 관점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정익중 외, 2006).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들을 무언가 결여된 불안전한 인격체로 생각하며 그들의 문제양상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그들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선이 편견으로 작용하여 아동에게 내재화되면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나 행동을 취하게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1]처럼 사회의 부정적

1)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기대는 그 기대한 행동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은 의미이다. 즉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에 있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확인하려는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정관념에 대한 확인편파라고도 한다. (류경남 외, 200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식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Matsueda, 1992). 편견에 맞닥뜨린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에게 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Roe et al., 2009), 실제로 대다수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는 외상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오히려 이들이 전반적으로 열등하거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이들이 가진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여 키워주는 기회를 차단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시설생활경험은 이들에게 시설생활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해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실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었으며,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떤 전략을 활용하여 극복해 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으며, 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며, 원가족과 집단시설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외상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퇴소 후 성인기에 있는 30대 이후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성장경험과 과정은 연구되지 못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과정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원가족 및 시설에서의 생활, 퇴소이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현재와 미래에 상호 교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과정을 이루어내는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관점에서 외상 후 성장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Rennie)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을 밝히자 한다.

3. 선행연구의 동향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시설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이혜연 외, 2007), 시설 출신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밝고 명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게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성 외, 2009). 이들은 시설보호를 통해 획일적 규칙, 시설 직원간의 알력, 엄격한 규칙을 강요받는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Bowlby, 1965), 입소 이전의 가족문제로 인해 외상(trauma)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정선욱, 2002), 대부분 부모로부터 기인한 부부간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대, 유기, 부모의 질병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석주영 외 2004; 이강이 외, 2002; 이한우 외, 2012; Courtney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적응문제와, 퇴소 후 자립문제, 자기성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의 비행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이들의 문제를 부적응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많았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으며(최은경 외, 2006), 많은 수의 시설생활자들이 경계선상의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을 가지고 있으며(신혜령 외, 2013), 낮은 정서지능과 학업부진, 학교생활부적응 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김수정 외, 2013), 시설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낸 생활자들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능력이나 다양한 사회 적응력 등이 결여되기 쉬우며(석주영 외, 2004),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사회적응력이 더 우세하였고(남영옥 외, 2008), 남녀 간에 우울성향(유안진 외, 2001)과 자아개념(이미혜, 2002), 학교적응(성미영 외, 2001)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의 가출은 연령과는 무관하며(정원철 외 2013), 시설입소 후 첫 몇 달 동안 부적응 문제가 가장 크며(Barber & Delfabbro, 2002),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 거주한 생활자가 시설적응을 더 잘하고(정원철 외, 2014), 시설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사회적 적응수준이 증가하고(남영옥 외 2008), 학교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지지적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다(문성호, 2001). 질적 연구로는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형성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양승현 외, 2012)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해 내고, 적응을 위해 어떤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시설생활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시설에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출에 영향을 미치며(정원철 외, 2013), 공격적 행동표출을 감소시키며(이순형 외, 2001),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수록 사회적응이 높아지며(남영옥 외, 2008), 원가족이 없는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는 시설을 내 집이라고 여기는데 반해, 원가족이 있는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는 시설을 기숙사 정도로 여기는 태도로 인해 시설적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구차순 외, 2011).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자신이 겪은 심리적 외상을 극복했기 때문에 적응에 이르렀는지, 상처의 아픔은 덮어둔 채 살아가기 위한 삶의 한 선택으로 적응에 내몰린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는 그들의 적응 문제만이 아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통해 어떻게 성장에 이르렀는지도 연구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었는지, 성장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떤 전략을 활용하여 극복해 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불행한 사건과 위험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 역동적인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관한 연구이다.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자립을 위한 준비는 퇴소 전에 모두 이루어지거나 시작 되어야 하는데,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하게 될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9). 그러나 현실에서는 퇴소가 가까워지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 준비나 자립에 역점을 두게 되는데, 이들은 퇴소 후 겪게 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문제,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주거문제, 건강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을 위한 자립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들은 퇴소하는 순간에 대해 한 번은 시설로, 한 번은 사회로, '세상에 던져지는 것'으로 경험하며 이로 인해 다시 버려지는 경험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게 된다(권지성은, 2007). 또한 이들은 퇴소에 대한 두려움과 홀로 맞닥뜨린 힘겨운 세상살이와 결혼문제, 사회적 편견,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자립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로 보고하고 있다(KBS, 2007). 지금까지 연구 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강철희, 2001; 신혜령 외, 2006; 정경미, 2009; 조규필, 2011), 자립과 관련된 영향요인연구(강현아 외 2009; 정경미, 2009; 조기곤 외, 2009; 정선욱, 2010), 자립준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강철희, 2001; 신혜령 외, 2011),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신혜령, 2001; 신혜령 외 2003; 박은선, 2005)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에서는 시설출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퇴소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권지성 외, 2009),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해 내고, 자립을 위해 어떤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권지성, 2007; 조순실, 2011).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자립의 의미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떠한 삶의 맥락에서 발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자기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관한 연구이다. '성장(growth)'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과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으로 본 연구에서의 성장은 바로 인간의 '심리적 성장(Psychological)'을 뜻한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자기성장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배려와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 자아실현을 위해 적극성을 가지고 시설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기성장을 이루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양승연 외, 2012). 이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낯선 시설환경에 적응하고, 주어진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시설지원을 잘 활용할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동료와 상황을 공유하고, 내적인 성숙도가 높아져 진취적인 미래를 계획하며,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기보다 이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닌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쌓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겪게 된 다양한 외상경험 후 그들의 심리적 변화나 이로 인한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준 주요대상을 특정 사람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사회적 낙인, 편견과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 빈곤과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에 주목할 때 이들의 성장이 어떠하며,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이러한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지를 좀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은 모든 인간은 역경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capacities), 재능(talents), 유능함(competencies), 가능성(possibilities), 비전(visions), 가치(values) 그리고 희망(hopes)을 갖고 있다고 바라본다. 강점관점에서는 가능성(possibility)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과거의 외상경험을 현재의 문제 원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우리는 외상사건 이후에도 일부는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강점관점은 사회복지실천에 초점을 둔 문제 중심 접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발전되었다. 병리적 패러다임에서 미래와 강점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자원에 초점을 두며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자는 오랫동안 시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시설직원에게 의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활자들은 외면하기도 하는 상황 등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자기노출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과정은 이처럼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원가족 환경 및 시설의 환경, 퇴소 후 경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어떻게 지난 과거의 상처경험을 밑거름삼아 현재를 건강하고 살고 있는지 이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외상 후 성장

1. 외상 후 성장 개념의 특성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어떤 경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넘어 매우 충격적이고 위협적이어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외상 경험은 개인에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하거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외상 경험이 반드시 이후 부적응이나 정신 병리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Brewin, et al., 2000), 오히려 이러한 증상이나 스트레스가 성장에 이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Calhoun & Tedeschi, 1999).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외상 사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기능을 하도록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외상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외상 경험이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의미를 재구성 하게 하여 오히려 외상 이전의 삶을 뛰어넘는 성장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Tedeschi와 Calhoun (1996)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며 외상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Tedeschi 등(1998)은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런 현상에 대해 초기 연구에서는 긍정성 발견하기(perceived benefits), 긍정적인 관점들(positive aspects), 외상의 변형(tranaformation of trauma)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이후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였다. 결국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이다(하진의, 2013).

오랜 시간 동안 철학적 연구나 인문학적 작품들은 인간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탐구하였는데 심리적인 고통과 함께 성장도 공존한다고 보았으며 종교적 차원에서도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고통이 인생의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의 가르침가운에도 고난의 잠재적 변형의 힘에 대해 나와 있는데(Tedeschi & Calhoun, 1995) 예를 들면 기독교 전통에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의 십자가[2]의 죽으심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 예수를 믿는 신자들뿐 아니라 의심하던 자들과 배척하던 자들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변형된 효과에 대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표현된다. 이처럼 성장은 심리적인 고통과 함께 공존하기도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외상은 일어난 객관적 사건보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 경험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며(송승훈 외, 2006), 현실감을 흐트러뜨리고,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사건이다(윤명숙 외, 2012). Tedeschi & Calhoun(2004)는 외상경험을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성장은 외상사건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변화를 강조하는데(Zoellner and Maercker, 2006; 장한아, 2011), 이는 외상 이전의 적응 수준을 뛰어 넘는 질적인 변화이며(Tedeschi and Calhoun, 2004),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하여 지각한 결과로(유희정, 2012; Christopher, 2004),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의 밑거름이 된다(이현수, 2009). 이러한 개념들은 개인의 성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

2)고대에 사형수들을 매달았던 십자가형의 틀로, 로마의 극형의 수단이었다. 이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로 처형된 사람을 전시함으로써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 특히 비천한 노예들, 강도들, 반란의 주동자와 선동자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형벌이었다. 로마의 황제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십자가의 처형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형 이후 그리스도의 속죄사의 의미 깊은 상징이 되었다(라형택,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며, 외상사건은 개인의 적응 수준이나 심리적인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상 후 성장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은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단지 외상경험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한다(Tedeschi & Calhoun, 1996; 2004).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외상경험 이후의 긍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레질리언스(resilience), 회복(recovery), 적응(adaptation), 임파워먼트(empowerment)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각각 그 정의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외상 후 성장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것으로 모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특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개인에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은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니게 되는 안정적인 특성이나 외상 후 성장은 개인 내면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로 기존 개념들과 유사한 면을 지니나 이들보다 진일보한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위기와 도전으로부터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복원력, 회복력을 의미하는데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Walsh, 2002). 회복(recovery)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뜻한다(네이버 백과사전).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외상사건을 통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퇴소 후 다시 원가족으로 복귀한 경우가 6.5%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신혜령·박은미·강현아, 2008) 회복이 외상 후 성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외상을 경험하기 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적응(adaptation)은 한 개인이 변화된 삶의 환경에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이양자 외, 2008) 이는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로 나아감에 대한 성장의 개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사전적인 의미는 '권한부여' 혹은 '권리강화'라는 뜻으로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김미옥, 2005). 이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growth)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점점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전보다 더욱 발전적이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이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외상 후 성장이 발생하는 시기와 관련한 이슈 역시 논의가 필요한데 외상사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직접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는 재해석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상경험 그 자체는 틀림없이 삶의 위기이며, 이러한 위기는 인간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은 반드시 필요하며,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이러한 위기에 의해 부적응을 경험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설적응 및 자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시설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을 이해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을 '외상경험과 같은 극단적인 삶의 위기를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원가족과 시설생활에 따른 외상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원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거나 방임에 처해지거나 친부모로부터 유기를 당하는 등의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입소 후에도 여전히 집단 시설생활에 따른 폭력에의 노출과 시설 출신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긍정적인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원가족과 시설관계자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며 성장해가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성장은 자신과 주변세계를 지각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기를 개방하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이혜진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추출된다면 충분히 외상 후 성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외상 후 성장 관련 이론(posttraumatic growth theory)

외상 후 성장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되는데, 외상 후 성장을 외상 경험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인 스트레스의 완화, 인내심의 증가, 자기주도적인 삶, 감사의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물(outcome)로 볼 것인지와 자신이 경험한 외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처전략(coping)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최승미, 2008)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1995)의 외상 후 성장 이론과 Schacfer와 Moos(1992)의 삶의 위기와 개인적 성장 이론, Joseph과 Linley(2006)의 역경을 통한 성장 이론, Maercker와 Zollner(2004)의 외상 후 성장의 야누스 모델 등 대표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외상 후 성장을 외상 후 실제적 변화, 즉 결과물로 해석하고 있는 Tedeschi와 Calhoun의 외상 후 성장 이론을 모델로 삼고자 한다.

가. Tedeschi와 Calhoun의 외상 후 성장 이론

외상 후 성장 과정은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외상 사건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신념과 가치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외상사건을 통해 개인은 의도적이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떠오르는 '반추(rumination)'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초기의 반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외상 이전을 재건하려는 시도이며 이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전략이다. Tedeschi와 Calhoun(2006)은 반추를 외상 후 성장 이론 모형을 통해 반추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였다. 사건에 대한 자동적이고 원하지 않는 사고와 관련된 침습적 반추와 사건과 투쟁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복적이고 목적 있는 의도적 반추이다(Tedeschi와 Calhoun, 2006). 반추과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을 하고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과 평온을 제공함에 따라 고통스러운 감정과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함으로써 점차 의도적 반추를 하게 된다.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새로운 신념과 목표를 찾고, 인생 이야기가 발달하고 마침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러 인생 이야기와 지혜가 확장되는 경험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러한 발전이 외상 후 성장의 결과물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된다. 의도적 반추로 정서적 고통이 조절되고 감소하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인지처리는 더 가속화 되는데, 단순히 사건 자체를 떠올리면서 고통스런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사건의 원인과 의미, 사건이 주는 유익한 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도적 반추를 하면서 외상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의 목표와 자신을 분리시킴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더욱 정교해진 반추과정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더 원활히 주고받게 된다. 외상 후 성장은 이 과정을 통해 지혜, 통찰력, 인생이야기가 통합·확장된다.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이 과정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남은 고통은 외상 후 성장을 통해 완충된다(Tedeschi & Calhoun, 2004). 이상에서 살펴본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으로, 외상 사건과 만나는 개인은 침습적인 반추를 경험하고, 외상과 관련된 고통, 기존의 신념과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의도적인 반추를 하게 된다. 의도적 반추는 사건을 이해하고, 사건을 통해 의미와 도움이 되는 점을 찾는 인지적 과정으로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Tedeschi와 Calhoun(1996)는 외상 후 성장을 3가지 측면으로 자기 인식의 변화(changes in self-perception)와 대인관계의 변화(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삶의 철학의 변화(a changed philosophy of life)를 이야기 하였다.

자기 인식의 변화(changes in self-perception)는 외상을 이겨내는 자신을 보고 자신이 가진 새로운 강점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이 비록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학대를 경험했지만 시설생활을 통해 자신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해쳐나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들은 외상 경험을 한 이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향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자신의 취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대인관계의 변화(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는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전 보다 자신을 더 드러낸 후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외상 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지지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인식이 증가한다. 자신을 둘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싼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시설직원이거나 자원봉사자, 학교관계자, 친구들로 이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등의 변화가 존재하며,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동질감과 정서적인 유대감도 경험한다.

삶의 철학의 변화(a changed philosophy of life)는 외상경험을 통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작은 일들에 감사하게 되고, 영적·종교적 신념이 더욱 견고해지는 인생관이 변한다. 삶에 대한 깊은 감사(a deeper appreciation for life)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삶에서 우선순위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게 되는데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한 대상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찾아 온 고마운 존재들에게 감사하게 된다. 이들은 실존적 지혜(existential wisdom)를 발견하거나 영적 혹은 종교적 질문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게 되는 등의 변화하게 되는데 전능자에게 의지하거나 앞일을 신에게 맡기는 등 종교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을 포함한다.(Calhoun & Tedeschi, 1998). 이는 보다 긍정적으로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짐에 따라 삶의 목표와 태도가 이전의 삶과는 달라질 것이다. 삶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만족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숙고하게 된다.

나. Schacfer와 Moos(1992)의 삶의 위기와 개인적 성장 이론

Schacfer와 Moos(1992)의 삶의 위기와 개인적 성장 이론은 개인적 성장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한다. 성장의 결정요인은 개인적 특성요인(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환경체계요인(environmental system factor), 사건관련요인(event-related factor)으로 이들의 상호작용은 외상 후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준다. 개인적 특성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상 이전의 경험, 개인의 기질 중 낙관성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에는 외상경험 이후의 환경,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 비공식적인 지원과 가족 및 친구간의 유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적 특성요인과 환경체계요인은 위기의 정도와 종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비공식적인 자원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관련 요인에는 사건의 심각성, 사건의 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측여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건관련 요인과 긍정적 결과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사건 관련 요인은 인지 평가와 대처 반응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hacfer와 Moos(1992)의 삶의 위기와 개인적 성장 이론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외상관련 요인 등과 결합하여 외상경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처반응을 통해 성장을 이루게 한다.

다. Joseph과 Linley(2006)의 역경을 통한 성장 이론

Joseph과 Linley(2006)의 역경을 통한 성장 이론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초기 견해들과 긍정심리학 사이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접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이며, 사건의 경험자는 성장을 향한 발달적 성향이 이미 잠재되어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지지적인 사회적 환경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는 유기체적 평가과정이 일어난다. 고난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대와 가정에 의문을 품게 하는데 고난으로 인해 경험과 신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은 기억의 동화(assimilation)나 기존의 도식을 수정하는 조절(accommodation)중 하나로 성장은 동화보다는 조절을 필요로 한다. 즉, 본질적으로 지지적인 사회적 환경에 의해 자율성, 유능감, 연결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고난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와 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 Maercker와 Zollner(2004)의 야누스 이론

외상 후 성장의 야누스 이론(Maercker와 Zollner, 2004)은 외상 후 성장이 외상을 경험한 이후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보인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Taylor와 그의 동료들(Taylor & Armor, 1996)은 외상 후 성장을 인식하는 것은, '왜곡된 긍정적 착각'으로 외상에 대한 성공적 대처 안에서 착각적인 요소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것을 상정하는 동안, 외상 후 성장의 건설적이고 자기 변형적인 요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이 없고, 외상 후 성장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할을 명쾌하게 다룬 문헌이 부족하다(이양자 외, 2008). 여러 모델들 간에 일부 중복되는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외상 후 성장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을 밝히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준다.

제3절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1.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경험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받은 상처경험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랑을 거부하게 된다(Enright, 2004).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의 경우 대부분 학대나 방임, 유기 등과 같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아상을 성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 중 외상경험을 하였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경험한 소수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주목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은 다양한 사유로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렵게 되었을 때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생활공간이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의 입소사유를 살펴보더라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이 오히려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등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모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가는 가정을 대신하여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이들을 보호·양육하게 된다. 이처럼 아동양육시설은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한 국민기초수급권자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통해 양육·보호하는 곳이다.

원가족으로부터 학대나 유기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과 집단시설생활에 따른 생활자들 간의 폭력에 노출 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일반인들에 비해 긍정적인 사고와 성장을 경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은 빈약한 지지체계를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생활자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이화명 외, 2015), 이들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분리되어 시설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분리는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형성의 기회를 차단당함으로써 불안정한 사회화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자원의 부족과 불안감으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이 결여될 수 있다. 이처럼 원가족에서의 외상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입소로 인한 부모와의 분리경험을 통해 분노와 불안, 상실로 인한 슬픔 등 더욱 심화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은 시설입소로 인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가질 수 있다(홍봉선 외, 2007). 이는 원가족 생활에서 장기간 동안 지속된 부모에 의한 학대와 무관심, 부모의 갈등과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의 경험 등으로 인해 입소 전부터 정신적인 외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원이 된다(정선욱 2002). 이처럼 가족의 해체에 따른 외상경험들은 어린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낮은 자존감과 잠재적인 공격성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며 폭력성을 유발하기도 한다(Stein, 2006). 아동기의 학대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보면 대인간의 외상경험이 정서조절, 대인관계 문제, 우울, 섭식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낮은 자존감 등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학대, 가정폭력피해, 성폭력 등 반복적이거나 만성적으로 사람에 의해 행해진 폭력의 경우 성격적 변화를 수반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안현의 외, 2011).

또한 이들은 집단시설생활을 통해 엄격한 규칙과 개인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시설 선배들로부터 받는 폭력 등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 할 수 있다. 시설의 주 양육자인 보육사가 돌봐야 하는 생활자의 수에 있어서도 2교대 시스템으로 인해 많게는 10명 이상의 아동을 장시간 돌보아야 하는 시설의 특성상 개개인에게 구체화되고 깊이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또한 가정의 환경과는 다른 대집단형태의 기숙사식 구조로 인해 비슷한 연령대의 생활자들끼리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냄에 따라 웃어른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같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의 물건은 공동생활공간으로 인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사용으로 인해 절약하지 않고 낭비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생활환경은 아동양육시설 생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제공하는데 제약이 되며 이에 따라 시설생활은 이들에게 상처위에 상처를 덧입히는 아픈 경험이 된다. 또한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원가족의 양육환경 속에서 자란 생활자들과 직원들의 다양성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자원과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획일적이며 엄격한 생활규칙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성 및 자주성, 창의성 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입소원인과 집단시설생활에 따른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이들은 크고 작은 외상들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은 사회적 성공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과거의 상처에 억매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보호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 역할을 회피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는 이들을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게 된다. 원가정의 해체로 인해 시설에 입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설은 당장 의식주 충족은 시켜 줄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가정의 붕괴로 인한 심리, 정서적 역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외상경험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한 위험상황에만 집중하여 일부생활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이나 차이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강은진, 2007).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원가족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외상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원가족과의 분리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입소 후에는 집단생활에 따른 엄격한 규칙, 아동양육시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생활자들 간의 물리적 폭력과 같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시설 출신으로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로 인한 낙인, 경제적 어려움, 앞날에 대한 불안, 불편한 가족관계 등의 현실적 문제를 오롯이 감내하면서 이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란 참으로 버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잘 적응하는 유연한 아이들(resillient children)이 있고, 이들의 성장은 누군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 발전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유연성 있게 회복해 성공적인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강문희, 2005; 김혜영, 2007).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잘 적응해 가는 생활자가 있고(강창실, 2008), 동일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정서적·행동적 대응양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유성경, 2000),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은 힘든 경험을 공유함에 따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치유적 효과를 거두게 될 뿐 아니라(Malchiodi, 2000), 그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대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배려할 때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그들은 자기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 할 수 있다(김영애, 2009). 또 어떤 경우는 집단시설 생활을 통해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어 매우 협조적이거나 또래나 선·후배 사이의 우정이 발달하고,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으로 결핍된 부분을 시설 내의 생활자들이나 직원들과의 접촉이나 교육을 통해 보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충동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시설청소년들이 버림받았다는 부정적 정서와 같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LeCroy, 1987). 또한 집단공동생활을 통해 타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을 조직적인 생활계획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규칙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동료 청소년 간에 건전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기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시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시설생활을 통해서 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적인 것만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요구되고, 이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하인즈 코헛(Heinz Kohut, 1984)은 자기심리학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공감을 통하여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생애 초기의 유아는 무력한 존재로,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코헛, 1977), 안정된 자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타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타자를 코헛은 '자기대상'이라 불렀다. '자기대상'이란 '자기(self)'와 '대상(object)'이 하나로 묶여진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대상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주관적 실체로서의 경험"을 의미한다(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1983). 하인즈 코헛(Heinz Kohut, 1971)은 자기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중요시 하였는데 자기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사랑과 관심을 제공해주는 자기대상인 부모를 통해서 삶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이고 개방적 태도를 갖게 되며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못할 때는 병리적인 자기애로 탈선되기도 하는 등 자기대상은 건강한 자기애의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국내 상담관련 연구에서도 내담자가 자기대상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상담자로부터 인정받고 성장하려는 소망과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독립하려는 소망도 커짐을 알 수 있다(김미자, 2009).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경우 자기대상이 되어주어야 할 부모가 오히려 학대를 하거나 유기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입소한 아동양육시설환경 또한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어려운 집단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처경험들로 인해 이들이 건강한 자기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은 부모의 대리양육자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자기대상들을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고 참여자들이 만난 자기대상들이 이들의 외상 후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 과정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원가족 생활 및 시설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 교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관점에서 외상 후 성장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성장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근거이론방법(Rennie, 2007)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소수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생활경험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은 외상 후 성장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들과 구별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생활 속에서 외상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주요쟁점

외상 후 성장 관련논문은 2005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21편이 발표되었으며(김지경 외, 2014), 점점 외상 후 성장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사건에 대한 재해석의 결과로 도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데 이러한 초기대처 전략 역시 외상 후 성장의 일환이며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외상 후 성장의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토대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주요쟁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론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외상 후 성장 연구는 외상 후 성장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송승훈, 2007).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 사건을 경험하면서 얻어낸 투쟁의 결과물로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Tedeschi& Calhoun, 2004).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지각된 유익(perceived benefits)', '긍정적 측면(positive aspects)', '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변화(transformation of trauma)' 라는 용어로 불렸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이 아직 없고, 외상 후 성장의 역할을 명쾌하게 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룬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양자 외, 2008). 또한 외상 후 성장 이론들마다 그 양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합된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최승미, 2008). 따라서 앞으로 외상 후 성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적립이 필요하다.

둘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양성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성격의 특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을 경험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장과 관련 있는 주요 변인들의 탐색과 규명이 필요하다(최승미,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사회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심리내적 기제, 원가족에서의 외상경험과 집단시설생활로 인한 상처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탈피하여 시각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고, 아동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통합적, 예방적 접근의 유용성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심리사회적적응에 대한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외상 후 성장의 측정에 관한 쟁점이다. 외상경험이 때로는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외상 후 성장 현상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익숙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체계적인 개념정의나 객관적 평가도구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외상 후 성장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에 의해 보고되는 긍정적인 결과(positive outcomes)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개발되었으나(Tedeschi & Calhoun, 1996) 충분한 타당화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최승미, 2008). 이러한 양적 평가방법은 성장의 주요양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도출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Park & Helgeson, 2006; 최승미, 2008). 질적 평가방법 또한 개방형질문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담고 있긴 하나, 변화의 섬세한 모습을 보고하기에는 불완전하다(이양자 외, 2008). 개방형 질문을 통한 질적 평가 방법은 그 폭이 너무 넓어 변화에 대한 초점화 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외상 후 성장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넷째, 유사 개념인 발달, 성숙, 성장에 대한 관점이다. 발달, 성장, 성숙은 유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용어로 이들 개념은 초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호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발달'은 모든 생명체의 삶의 과정, 즉 수정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인간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발달 혹은 발달적 변화라고 한다. '성숙'은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되다'의 뜻으로 신경계의 구조나 기능의 변화에 의해 사고나 행동의 능력의 질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성숙이라고 하며(현정환 외, 2006), '성장(growth)'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으로 생물체의 크기, 무게, 부피가 증가 하는 것을 일컫는다(네이버사전).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뛰어난 지각력, 통찰력을 통해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좀 더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을 때 우리는 성장했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을 물리적인 성장이 아닌 인간의 '심리적 성장(Psychological)'으로 보며, 이는 '인격적 성숙(personality maturity)'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Tedeschi와 Calhoun(2004)가 말한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나 삶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아주 높은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방법의 선택배경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원가족 생활과 시설생활 중에 입게 된 외상경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 본 삶의 여정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외상 후 성장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생활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두 가지 중심적 생활공간인 원가족과 시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이며 이러한 의미들은 어떠한 현실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그간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지만 외상 후 성장을 한 자들의 관점에서 원가족 및 시설 내 생활경험을 이해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외상을 경험하였지만 성장을 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는 수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분석에서의 이상치(outlier)에 비유할 수 있다. 즉, 기존에도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생활경험자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본 연구는 시설생활경험자이면서 외상 후 성장을 한 소수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일상생활 속 경험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도 차별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연구 질문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생활경험은 어떠한가?”로 수립하였다. 본 연구목적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복지 향상 및 시설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생활자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외부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경험과 목소리(voice)를 담아내고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거나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데는 질적 연구가 유용한 방법(Padgett, 1998)이며,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깊은 내면을 살피려면 언어와 의미 있는 상징들을 관찰하면서(홍현미라 외, 2008), 의도된 반응이나 은밀히 작용하는 의미를 함께 주목해야함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3]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는 근거이론을 선택하였다. 근거이론은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는 것(Glaser et al, 1967)으로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시설입소 전 원가족 안에서의 외상경험과 시설입소 후 집단생활로 인한 외상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장 할 수 있었는지 그 성장경험을 밝히고자 질적 연구 방법인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이 갖는 철학적인 배경과 근거이론 방법에 대한 설명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 참여자의 선정,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 방법 등을 기술 할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의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연구자의 준비와 선 이해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연구평가와 연구의 엄격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책임의 소재는 개인보다는 국가에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외상경험에서 갖게 된 문제를 심리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행위 속에서 내재 된 상징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가정과 시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가해자나 지지체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표현한 의미 속에 담긴 본질은 무엇인지,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외상 후 성장 경험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기 전과 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그 의미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노력하였다.

---

3) 미드(G. H. Mead)는 인간은 상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특별히 언어와 의미 있는 상징(significant symbols)을 강조했는데 인간행동은 자극에 의해서 얻어지고, 의미를 부여하며 의미에 기초해서 행동할 뿐 아니라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고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한다(홍현미라 외, 200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이해와 특징

해석학은 진정한 이해를 위한 학문으로, 진정한 이해(Understanding)는 부분에서 전체로, 그리고 전체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근거이론에서의 지속적 비교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을 탐색하여 각 개념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어떤 형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진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연구방법으로써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해서 심리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행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으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심리세계인 갈등, 원망, 불신, 좌절, 포기 등 개인의 복잡한 심리 사회적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틀로서 적합하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과정에 따른 일련의 경험세계를 연속적 과정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Grbich, 2009). 이는 양적 연구로는 파악하기 힘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세계와 복잡한 심리내적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근거이론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기 곤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해석학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인간을 자기 삶의 능동적 주체로 보고 연구 참여자들이 바라본 주관적 인식 안에서 사회현상 및 형태의 원인을 찾으려는 방법론이다. 근거이론은 1968년 창시된 이후 최초 근거이론을 함께 개발했던 Glaser와 Strauss가 서로 갈라서며 분화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질적 자료 분석의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Strauss & Cobin(1990; 1998)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인숙, 2011; 이동성 외, 2012) 그러나 Strauss & Corbin(1990; 1998)의 근거이론은 텍스트의 풍부함을 지나치게 형식화했으며(Melia, 1996; Thomas & James, 2006), 절차에 치중하였기에(Benoliel, 1996) 사회현상에 대한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으로 현상에 대한 묘사나 서술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Rennie(2006)는 도구적 해석학을 접목한 근거이론방법론을 발전시켰는데 그 특징들을 간략히 비교해 보면 Strauss & Cobin(1998)의 근거이론의 특징은 실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이며, 줄 단위 분석(line-by-line)을 통해 진술 그대로의 기호화(invivocode)를 강조하며, 지속적 비교를 통한 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로 추상화하여 범주를 생성하는데 비해 Rennie(2006)의 해석학적 근거이론은 해석학적 성격을 띠며, 의미단위분석(meaning units)을 하고, 코딩의 방법은 체화된 범주화(embodied categorizing)를 강조하며, 범주의 생성은 부분적 의미와 전체의 의미의 순환과정을 통해 해석학적 생성을 한다.

Rennie는 분석의 첫 단계부터 연구자가 자신의 해석적 관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료와 연구자의 지평 융합을 통해 실체 이론을 도출하는 해석학적 근거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해석은 해석하는 주체의 가치관, 신념,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석 주체가 해석 대상의 언어와 표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해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해석적 주체로서 인간은 선 이해를 기반으로 이해하는 주관적, 반영적 의미지평 내에 들어서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Rennie가 발전시킨 해석학에 입각한 근거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Rennie, 1996, 2000, 2006).

첫째, Rennie(2006)는 분석의 첫 단계부터 연구자 자신의 관점(horizon of understanding)을 연구 자원으로 활용하여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추상화하여 범주를 도출할 것을 강조한다. 근거이론 연구자는 현상 이해를 위한 적극적 자원으로서 자신의 관점을 인정하고, 자료와 상호작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자 자신의 경험세계를 이해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 Rennie(2006)는 이러한 방식을 체화된 범주화(embodied categorization)과정이라고 불렀다.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거나 추상화하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창조해내는 예술가의 자세를 갖는데(한영주, 2009), 이러한 자세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과정으로 범주를 도출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근거이론의 핵심 절차인 지속적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Rennie, 1998).

둘째, 분석 초기에 자료를 가능하면 그대로 요약하기 위해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자료들을 분류하여 각 의미단위 안에 담겨진 의미인 범주들을 도출한다. Rennie(2000)는 근거이론에서 범주와 이론을 생성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연구 경험의 생생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였다.

셋째, Rennie(2000)는 좋은 해석의 조건으로 연구자의 내적 경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연구자의 시작(詩作) 활동, 문학적 상상력 등과 같은 은유적이고 수사학적인 언어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범주를 표현해 내는 것을 강조한다. Rennie(2006)는 비유가 그 자체로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해석이란 참여자의 텍스트를 통한 외적경험과 연구자 내적 경험 간의 상호작용 안에 있는 예술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의미단위 안에 담긴 의미는 범주를 표현하고 결과를 제시할 때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기억이나 연상과정을 통해 적합한 표현을 만들어낸다.

넷째, 근거이론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본 요소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근거이론 연구가 포함하는 기본 요소들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 코드와 범주를 구성하며, 분석의 모든 단계 중에 이론 개발이 진행되며(Rennie. D. L., 2006), 독립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문헌을 고찰하는 것이다(한영주, 2009). 이처럼 근거이론은 인간의 경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연구자의 해석적 요소를 통해 참여자의 삶의 생생한 해석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는 장점을 가진다.

다섯째, 현상학적 괄호 치기(phenomenological procedure of bracketing)를 강조한다. 개별 사례 속에서 새로운 가설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태도에서 습득된 지식이나 선입견을 괄호 치기 하는 판단 중지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텍스트에 몰두하여 개념이 출현할 때까지 인위적이고 성급한 개념화를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경험 과정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의 지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라는 동질성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외상 후 성장과정으로 나가게 되는지를 조망함에 있어 연구자의 해석적 이해의 지평을 열어놓는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 경험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넘어서 그들의 경험의 중층적 의미를 밀도 있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방법의 선택과 접근방법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들은 그들이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설명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이들이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전체적 상황과 과정을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한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과 이러한 탐색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직접 경험한 세계의 의미를 당사자의 언어를 통해 드러내 주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주목하는 내부자적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객관적이고 외부자적 시각을 중시하던 양적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측정에서 이해로, 원인규명에서 의미추구로, 통계적 분석에서 의미 해석으로, 연구 대상자에 관한 것과 함께 연구 참여자를 위한 것으로 관심의 초점을 달리하기 때문에(장연집, 2004)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을 조명하기에 유용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도 자립에만 집중하다보니 원가족 생활에서의 외상경험과 집단시설생활에 따른 어려움이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겪게 하는지, 이런 경험과정 속에서 이들은 어떤 사회적 지지를 희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지 심도 있게 탐색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한 사회복지학계의 관심 부족은 핵심주체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기반을 둔 국가의 정책 수립과 실천서비스 제공의 신뢰성을 감소시키며,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한 원가족의 외상경험과 시설생활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떤 갈등적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 경험과정을 주목하면서 그들의 실존언어 속에 숨겨진 심층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 점으로 인해 본 연구자는 Rennie(1994; 1998; 2000; 2006; 2007)가 제안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본 연구의 해석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Rennie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변화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연구 틀로서 적합하며 지극히 예민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경험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삶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 하도록 하는 슛제(Schütze, 1984)의 이야기식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슛제(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일반 표준화된 인터뷰와는 달리 연구자의 간섭 없이 참여자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과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사 도구로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화자의 주관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또한 참여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설명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요청받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Fuchs, 1984; 이효선, 2007). 슛제(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인생진행 과정구조' 중 진행곡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자신의 삶의 세계와 경험적 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의 외상 후 성장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퇴소자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주제를 도출하고자한다. 또한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속에 담겨 있는 의미도 분석하려 노력했다. 녹음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필사하였고, 그 후 각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생애의 전체적 구성을 각각 요약해봄으로써 개별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전 생애사적 관점을 확보했다. 더불어 지도화(Mapping)를 통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나누어 분할하였다. 슛제(Schütze)의 '인생진행 과정구조'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원가족 생활과 시설생활 중 어떤 상황에 의해 위기를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경험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성장으로의 계기가 되는 일련의 과정은 그들 혼자만의 힘으로 되기보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는 과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지평이 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석적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는 질적 연구의 해석적 풍성함을 살리면서 해석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접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제2절 자료 수집

1.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첫 면담 시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J도와 K시에 소재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은 제5장 연구결과에 참여자의 인생진행 과정구조를 통해 더 자세히 정리하고, 본 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5명으로 평균연령은 21세이며, 퇴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20대 후반 2명, 40대가 3명으로 평균 연령은 44세이다. 남자가 7명, 여자가 3명이고, 주된 입소사유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는 5명, 영아 시 유기된 경우가 1명, 부모의 정신질환 1명,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시설입소가 2명, 부모의 경제적 문제 1명으로 나타났으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참여자의 경우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모든 참여자들의 원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중복된 사유가 많았다. 형제순위는 장남/장녀가 3명, 차남/차녀가 4명, 막내가 1명이고, 형제가 몇인지 알 수 없는 참여자가 2명 이었다. 입소기간은 10년에서~20년으로 평균 15년이며 영아 때 유기되어 퇴소 시까지 가장 오랫동안 아동양육시설생활은 한 참여자는 20년이 넘게 아동양육시설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시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대의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을 진학하여 연장중이거나 연장종료 후 퇴소하였고, 40대의 참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만기퇴소를 하였다. 이들의 직업은 학생이 5명, 자영업 2명, 전문직 종사자 2명, 기술직 1명으로 나타났다. 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의 학력은 고졸 2명, 전문대졸 1명, 대재 4명, 대졸 2명이었으며, 기혼자가 2명, 미혼은 8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성별	입소사유	형제순위	시설생활기간	퇴소시점	직업	학력	결혼유무
참여자 1	20대 초반	여	모의 가출 및 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장녀	10년 이상	연장 중	학생	대재	미혼
참여자 2	20대 초반	여		차녀	10년 이상	연장 중	학생	대재	미혼
참여자 3	20대 초반	남	모의 정신질환 및 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장남	10년 이상	연장 중	학생	대재	미혼
참여자 4	20대 초반	남		차남	10년 이상	연장 중	학생	대재	미혼
참여자 5	20대 초반	남	부의 사망과 모의 재혼으로 인한 양육포기	차남	15년 이상	연장 중	학생	대재	미혼
참여자 6	40대 초반	남	모의 가출과 부의 경제적 문제	막내	10년 이상	만기퇴소	자영업	고졸	기혼
참여자 7	40대 초반	남	부의 사망과 모의 재혼으로 인한 양육포기	장남	10년 이상	만기퇴소	자영업	고졸	미혼
참여자 8	20대 후반	여	모의 정신질환과 부는 누구인지 모름	모름	15년 이상	연장종료	전문직	전문대졸	미혼
참여자 9	20대 후반	남	부의 학대와 모의 정신질환	차남	15년 이상	연장종료	전문직	대졸	미혼
참여자 10	40대 후반	남	유기	모름	20년 이상	만기퇴소	기술직	전문대졸	기혼

나.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로는 입소당시 연령은 만 2세~10세이며 평균연령은 6.8세로 나타났다. 어린나이에 입소한 참여자의 경우 원가족 외상 경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낮으며, 시설생활 적응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을 집으로 인식 할 수 있고, 어린나이부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규칙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을 당연 시 여김으로 인해 집단 시설생활에서도 상처를 덜 경험할 수 있다. 입소 시 혼자 오지 않고 형제와 함께 입소했거나, 형제순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시설입소 시 원가족의 형제가 함께 입소하게 되면 낯선 환경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서로 의지하고 돌봄으로 인해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 중에서는 형제/자매가 함께 입소해서 생활한 참여자는 총 6명이었고, 이종사촌과 함께 입소해서 생활한 참여자도 1명 있었다. 3명은 혼자 입소해서 생활하는 등 대부분이 형제자매와 함께 입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소 사유와 외상경험 사유는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참여자 1과 참여자 2는 모의 가출과 부의 학대로 인해 시설에 입소했으며 이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참여자 3과 참여자 4는 모의 정신질환과 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입소하게 되지만 부의 학대와 집단시설생활로 인해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다. 참여자 5는 부의 사망으로 인해 모가 재혼하게 되면서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모의 재혼이력과 아버지가 다른 7형제 중 자신만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실로 외상을 경험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을 외면하는 모의 태도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 6은 모의 가출과 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시설생활 중 경험하게 된 시설선배들로부터 받은 폭력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 7은 부의 사망과 모의 재혼으로 인한 양육포기로 인해 양육포기로 인해 외상을 경험한 채 입소하였으며 이후 집단시설생활 중 경험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8은 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모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시설생활에 입소했으며 이러한 입소사유가 외상사유가 되었다. 참여자 9는 부의 학대와 모의 정신질환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지만 형제들의 외면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 10은 유기로 인해 입소하였지만 시설장의 의심과 체벌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의 종교는 시설생활 중에는 모두 교회를 다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현재는 기독교 5명,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참여자는 5명이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5명의 참여자 중 4명은 외부적으로 종교 활동은 하지 않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였고, 1명은 무교였으며, 기독교 5명 중에서도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참여자는 2명이었고,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참여자는 3명이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2명이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는 3명, 아직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는 5명이었으며, 장애를 가진 참여자도 1명 있었다. 또한 외상 후 성장 척도 점수가 평균 63.5점으로 모두 평균 점수를 능가하였으며, 면접 과정에서도 스스로 자신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특성을 다양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였는데 형제와 함께 입소한 경우와 혼자 입소한 경우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형제순위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 가족과 함께 사는지 유무와 입소 사유 및 외상경험사유, 원가족 구성요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가장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2>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

사례	입소 시 연령	특이 사항	원가족 입소인원	외상 경험 사유	종교 활동 유무	현재 동거 가족
참여자 1	10세	자매	1남 3녀	모의 가출과 부의 학대	기독교 (적극적)	시설거주
참여자 2	8세				기독교 (소극적)	시설거주
참여자 3	11세	형제	2남 1녀	부의 학대와 시설생활	없음	시설거주
참여자 4	10세				없음	시설거주
참여자 5	3세		혼자 입소	모의 무관심	기독교 (소극적)	시설거주
참여자 6	5세		3남	시설선배들의 폭력	기독교 (활동하지 않음)	처, 1남 1녀
참여자 7	8세		1남 2녀	모의 양육포기	없음	독거
참여자 8	6세		혼자 입소	모의 정신질환과 부가 누구인지 모름	기독교 (소극적)	독거
참여자 9	5세		외사촌 3명	형제들의 외면	기독교 (소극적)	독거
참여자 10	2세	손가락 기형	혼자 입소	시설장의 의심과 체벌	기독교 (소극적)	처, 3녀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

질적 연구를 함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어떤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야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구를 위한 도구로써 참여자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 예상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사전에 검토한 뒤 결정 할 수는 없는데 이는 질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근본적인 의의나 연구 참여자의 주관심사를 연구의 특성 때문에 자칫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연구가 진행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어떤 편견이나 사전에 결정된 이론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이나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로 2014년 9월~2015년 8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선정기준에 맞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상 후 성장 점수가 평균이상자 중 인터뷰를 실시하여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스스로 보고한 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다. 개인별로 2~3회에 걸쳐서 심층면담을 통해 새로운 개념이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J도와 K시의 아동양육시설에서 만기퇴소시점이 지났으나 연장신청 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5명과 퇴소 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퇴소자 5명이다.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실무자로 근무했던 기관들로 지역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인프라(infrastructure)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연구대상을 선정(purposive sampling)하게 되었으며 연구를 위한 면담이나 면담 후 즉시 필사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잇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자 선정 과정 중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인터뷰를 수락하였으나 가정주부인 경우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거나 시설퇴소 후 후원자 가정에 입양 된 경우는 자녀들이 엄마가 아동양육시설 출신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본인이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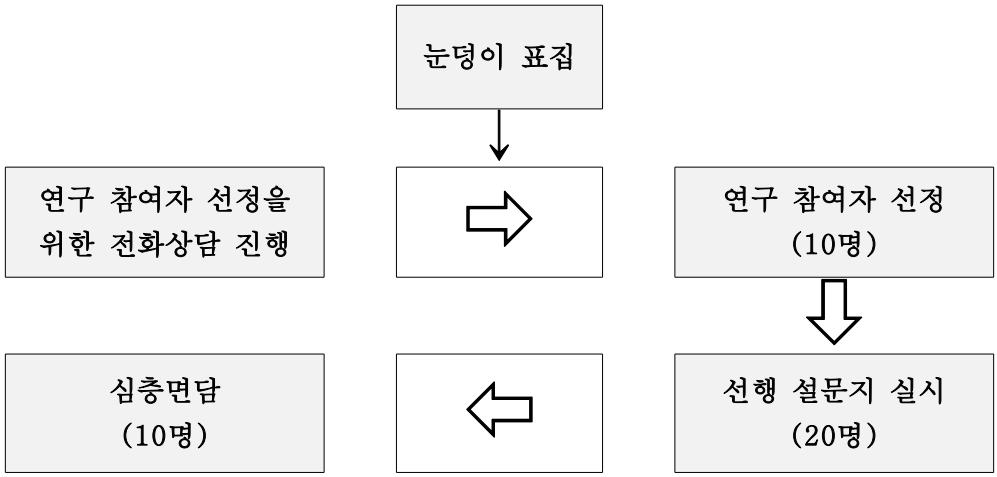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과 절차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사례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이 있는 개인이다. 참여자 선정은 아동양육시설 생활에 잘 적응한 청소년이거나 퇴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퇴소자 중 최소 10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였으며, 시설직원들의 추천을 받거나, 면접 참여자들이 함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을 한 동료 중에 추천받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였다. 이후 선정기준에 맞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개념이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총 1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나 면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의 진행방법이나 예상소요시간과 참여자의 역할 등을 설명 한 뒤 인터뷰 일정을 논의 하였다. 면담내용의 녹음에 대한 사실도 알리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참여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등은 답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도 설명하였다. 특히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코드명으로 사용함을 알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터뷰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와 합의하여 선정하였는데 연구자가 운영하는 기관의 사무실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로 녹음하고 컴퓨터로 필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필사는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면담 횟수는 연구 참여자들에 따라 다르며 참여자 1인당 2회~3회 면담이 이루어졌다.

첫 면담 시에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생애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만 했으며 연구자 간섭 없이 면접을 시행하였다. 다만 연구 참여자가 어디서부터 생애를 이야기해야하는지 고민하거나 물어오면 삶의 어느 시기든 시작 할 수 있고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과 경청을 통한 신뢰를 주기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묻거나 중요 설명에 대한 더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비언어적 메시지 목소리의 강약과 고저, 침묵, 표정 등 다양한 비언어적 변화 등을 살피면서 메모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표 3>와 같은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1. 부모의 양육포기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자
2.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 중 외상경험을 한 자
3. 아동양육시설생활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 중 외상 후 성장 척도 점수가 평균 이상인 자
5. 본 연구의 목적을 알고 참여를 동의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

2. 연구도구

지금까지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질적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외상 후 성장에 선행연구들 중 연구방법을 분류한 것을 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펴보면 양적연구 중 실험연구가 3편, 조사연구가 53편, 척도계발연구가 2편으로 양적연구가 총58편이고, 질적 연구는 모두 현상학적방법으로 4편이 전부이며, 개관연구가 2편, 양적·질적 병행연구가 1편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는 총65편이 연구되었다(김지경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 경험과정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도구를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객관적 기준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도 해석학적 근거이론으로 진행하였다.

가. 외상 후 성장 척도

인간은 예상치 않았던 외상경험으로 인해 더욱 강해지고 이를 통해 성장을 하게 된다는 외상 후 성장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익숙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개념정의와 객관적 평가도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양적·질적 평가방법은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Park & Lechner, 2006). 양적 평가방법은 성장의 주요양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독특성이 반영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한계와, 질문지의 구성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도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Park & Helgeson, 2006). 이런 관점에서 외상 후 성장의 평가는 이론에 기반을 둔 양적질문과 개방형질문을 함께 구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더불어 질문지나 면담법을 넘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장의 증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평가하는데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승미, 2008).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이하 PTGI)를 송승훈 등(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이하 K-PTGI)단축형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구 설문의 문항 수가 21개로 간략하며 그 내용 또한 본 연구 참여자와 맞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상 후 성장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며, 외상경험 이후에 개인에 의해 보고되는 긍정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 사용한 K-PTGI는 척도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K-PTGI에서는 외상경험 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정도를 6점 Likert식 척도(0=그일 이후 나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5= 그일 이후 나는 이러한 변화를 많이 경험하였다)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경험 후 긍정적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본다. 설문을 실시할 때에는 K-PTGI가 측정하는 것이 외상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임을 이야기한 후 척도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 참여자 중 가장 높은 점수는 73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55점으로 모든 참여자의 평균점수는 64점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에서의 응답경향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자기언어로 성장을 보고한 경우에만 중복적인 측면의 확인을 거쳐 외상 후 성장을 판별하였다. 참여자들의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외상 후 성장 점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외상 후 성장 점수

사례	외상 점수	사례	외상 점수
참여자 1	73	참여자 6	65
참여자 2	57	참여자 7	50
참여자 3	68	참여자 8	64
참여자 4	60	참여자 9	67
참여자 5	67	참여자 10	64

나. 주관적 평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 면담을 위해 많은 질문을 준비하게 되면 제한된 시간에 준비해 간 질문의 답을 모두 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 너무 세세한 질문, 너무 많은 질문은 심층적인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대화의 주도권을 연구자가 쥐고 있느냐 연구 참여자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대화의 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반구조화 된 질문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외상 후 성장경험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면 질문형태를 구별하여 구조화된 질문을 하거나 또는 비구조화 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한 질문지에 두 가지 질문형태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화 된 질문이 주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는 응답자의 건의 사항이나 기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개방형태(open-ended)의 비구조화 된 질문을 삽입하여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질문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 또는 외상사건으로부터 생겨난 유익을 포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외상 경험에 대한 당시의 심리적 상황에 대해 연구자가 상담적 기법을 사용하여 해석[4]해 줌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당시의 외상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의미를 새로운 발식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관련 문헌을 개관한 후에 심층 면담 진행을 위한 질문을 구성했는데 두 가지 질문형태를 병행한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참여자를 대상으로 2-3회의 심층면담을 위해 외상경험에 기초한 시간적 맥락을 따라 질문을 구성하였다. 첫 면담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의 맥락을 정립하는 의미에서 원가정 생활에서와 시설생활에서의 외상경험에 대해 질문했고, 다음 면담에서는 참여자로 하여금 외상경험이 일어났던 맥락 속에서 외상경험을 극복함으로 인한 변화나 성장과정에 대해서 참여자에게 외상경험 후 성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깊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분석결과 원자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나 주제를 분석하여 이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해서 유사한 개념과 상이한 개념들을 비교해봄으로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외상 후 성장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어휘와 빈도는 <표 5>와 같다.

---

4)면담(상담)과정에서의 '해석'이란 내담자가 말한 경험 내용에 새로운 의미와 관련성을 부여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표면적으로 표현하거나 인식한 내용을 뛰어넘어 상담자가 그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그의 행동, 사고, 감정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롭게 설명하는 것이다. 해석의 사용목적은 통찰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내담자의 감정을 확인하고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유경남 외, 200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와 빈도

어휘	빈도	코드	어휘	빈도	코드
폭력(폭행, 때리다, 싸움, 구타)	32	1	사회	9	17
학교(학업, 공부, 성적)	30	2	규칙(규율, 규범)	8	18
추억(기억)	27	3	상처	8	19
집(시설, 고향)	25	4	형제(누나, 동생)	8	20
변화(적응)	23	5	행복	7	21
자립(퇴소, 홀로서기)	22	6	술	7	22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22	7	버려짐	7	23
죽겠다(힘들다, 괴롭다)	21	8	성공(자수성가)	6	24
경제(돈, 요금, 등록금)	21	9	관계(대인관계)	6	25
무서움(두려움)	20	10	좋다	6	26
감사(고맙다)	17	11	챙겨주다	6	27
꿈(비전, 목표, 희망)	15	12	책임(책임감)	5	28
취업(일)	13	13	극복	5	29
종교(교회, 기도, 신앙생활)	13	14	참다	5	30
감옥(쇠창살, 철대문, 지옥)	9	15	성숙(성장)	5	31
열중(성실)	9	16	화	5	32

* 괄호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휘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어휘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내적 기제를 나타내는 어휘로 힘들다, 괴롭다, 무서움의 감정들이 행복, 감사, 성장과 같은 긍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원가족에서의 외상경험과 집단시설생활로 인한 상처경험을 나타내주는 어휘는 폭력과 관련 된 단어들, 버려짐, 술, 상처 시설의 엄격한 규칙과 관련된 단어들로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나타내는 어휘는 집, 책임, 사회, 집, 종교 등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족중심의 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시설을 집으로 인식하며, 가족이 함께 입소한 경우 형제순위가 높은 참여자는 동생들에 대해 부모를 대신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에서 받는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들이 종교적인 이념아래 설립이 되어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대한 접촉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어휘들과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핵심키워드들과 비교해 보면 상실감, 막막함, 그리움, 불신감, 부모이혼, 가족, 삐뚤어지기, 현실수용(주소희, 2015), 건강, 경제, 학대, 관계, 소통, 폭력, 적응(이숙영, 2014), 충격적, 상실사건, 고통, 부적응, 사회적지지, 변화, 성장(임선영, 2013)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과 죄책감, 불일치감, 전쟁, 부모이혼, 회피하기/묻어두기, 집착, 재조명(주소희, 2015), 쫓김, 신분위협, 인신매매, 적응, 쓴 뿌리(이숙영, 2014) 등과 같은 상이한 개념들도 있으나 이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대상자가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휘들을 비교를 해 보더라도 슬픔, 고통, 학대, 불신, 부적응, 성장이라는 유사한 개념들이 있는가 하면 책임, 감사와 같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나는 상이한 개념들도 있다.

제3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식에 따라 분석하였다. 근거이론방법은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인 방법으로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닌 범주와 범주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론을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연구자는 끊임없이 자료로부터 이론의 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원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고,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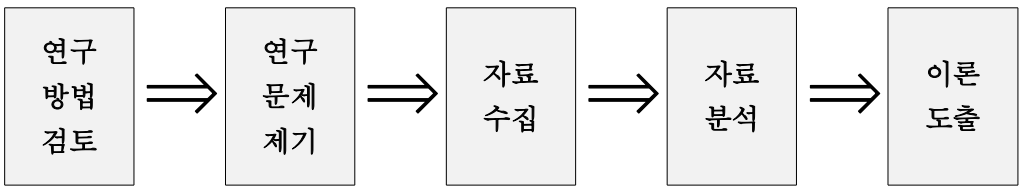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떤 인지적 경로와 판단을 겪게 되었는지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과 심리 내적 기재 가운데서 외상 후 성장 경험이 이루어지는지를 탐색하였다.

1.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Rennie가 제시한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지만 기본적인 근거이론 분석 방법에 따른 기본요소들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자료 자체에 근거를 두고 분석코드와 범주들을 구성하였고, 분석의 각 단계에서 지속적인 비교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의 각 단계 중 이론개발이 진행되었고, 원자료화 과정은 참여자와의 면담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적·비언어적 정보까지 축어록으로 기술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해석학적 분석과정은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를 통해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활용함으로써 범주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각기 다른 경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통해 다각도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명명한 개념과 범주들을 찾아내어 자료들을 분류하고, 각 의미단위 안에 담겨진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료 분석 내내 연구자는 지속적인 비교방법의 활용을 통해 자료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고 자료의 앞과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발전시켰으며, 전체적인 이론 구조가 정확한 구조인지 확인하였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면담을 통해서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 근거이론의 연구 절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분석단계

가. 인생진행의 과정분석

인생진행의 과정구조는 참여자의 특정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축적된 사건들의 경험을 연결하는 포괄적 형태이며(Schütze, 1984), 그 사건에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인생진행의 과정구조는 한 개인의 인생의 경험을 순차적으로 조직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참여자들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요사건에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조명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효선, 2007). 이는 자기 삶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구성 한 것을 연구자가 감정이입을 통해 이해하고 다시 구성한 후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at)을 가지고 고찰하여 해석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의 정도는 인터뷰 속에서 이야기 된 것의 숨겨진 구조를 해석함으로써 판단된다. 긍정적인(positive)경험은 자율적,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부정적(negative)경험은 타율적이고,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효선, 2007)

나. 범주화 작업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하면서 연구자의 편견이나 가정, 믿음이 분석에 끼어들고 있지 않도록 하였고, 분석과정 중 지속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료에서 개인이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과 추상화된 범주들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연구 참여자의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료를 분석해 나갔다. 결국 분석과정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이해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연구자원으로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활용함으로써 범주들을 도출 하였다. 이러한 의미단위(meaning unit)분석은[5]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경험을 핵심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진술을 찾아서, 그것을

5) 의미단위분석은 Strauss & Corbin(1990;1998)의 줄 단위(line by line)분석과는 다른 접근으로 Glaser(1992)는 줄 단위 분석에서 기록된 자료의 줄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분석 없이 너무 많은 범주와 속성을 양산하는 혼란(Helter skelter)과 과잉개념화(over conceptualization)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자의 시각에서 이름을 명명해주는 작업이다. 각 의미단위 안에 담겨진 범주들을 도출하고자 연구 참여자마다 다양한 시각과 이해에서 오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명명한 개념과 범주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의미단위 안에 담긴 의미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이해와 기대, 가치와 신념을 접목하여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러한 부분적 의미의 해석은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을 부러 일으킬 수 있다(Rennie, 2000)

본 연구에서 처음 인터뷰 시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시설생활 중 받는 상처경험을 말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집단시설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자신에게 아동양육시설의 존재의미에 대해 질문하였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풍부한 면담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게 아동양육시설의 의미는 집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진행되면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처음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반복되어 나타나는 비슷하거나 연관된 개념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은 후 해석학적 주제를 찾아내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범주의 출현은 이론적 표집을 더욱 가속화시켜 주었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인터뷰 외에도 의미 해석에 필요한 참여자들의 입소당시 상담자인 사무국장의 진술 등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다. 핵심범주

핵심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기록과 문서기록을 통해 공통으로 나타나는 핵심적 발견을 추상화된 개념이나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심현상을 관통하고 아우르는 것이다.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와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의미 범주들을 통합하는 중심 주제로써 범주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과 범주 간의 의미를 연결시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 분석을 명료하게 기술하도록 도와준다(Strauss & Corbin, 1990). 따라서 연구 참여자를 통해 확보한 구술 자료와 문서 기록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범주를 구성하고자 한다. 결국 핵심범주는 자료의 분석 결과에 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중심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핵심 범주로 연결될 수 있는 범주 간 의미 연결 작업은 범주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단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지를 탐색하게 해준다.

라.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이란 축코딩의 일부로서 범주 간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상에 반응하고 대처, 조절하는 작용과 상호작용의 연속적 연결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Strauss & Corbin, 1998), 범주라는 분석된 경험의 구조를 시간차원에서 재배치하고 정렬하거나, 또는 여러 범주들 간 상호작용을 표현해주는 것이다.(홍현미라, 2010). 즉 과정의 분석은 보통의 근거이론에서 속성과 차원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초점을 달리하여 작용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고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축코딩과 같은 조직화된 도식(organizing scheme)을 통해 범주의 인위적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범주 간 관계를 그 축에 무리하게 꿰맞추려고 하는 인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김인숙, 2011) 본 연구에서 '과정 분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는 기술, 핵심 범주의 구성 후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로 다시 돌아가 이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심사숙고 할 것이다. 이는 이것이 '이 단계로 배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학적 물음을 통해 부분적 의미와 전체적 의미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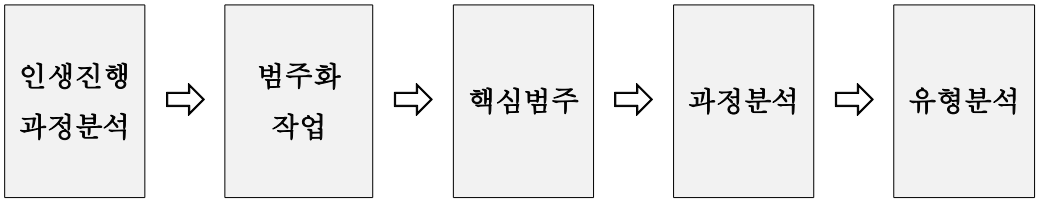
마. 유형분석

근거이론에서 유형 분석은 코딩과정을 거치면서 범주 간 속성과 차원의 변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1998).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근거이론처럼 범주 간 속성과 차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가설적 정형화, 관계진술문 구성에서 벗어나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 그것에 민감하게 질문을 제기하고 연구자가 이것에 반성적 해답을 구하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구술 자료에서 발견되는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후 성장 유형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의 분석단계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 분석단계

제4절 연구과정의 적합성

1. 이론적 민감성 향상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란 기존연구 자료의 고찰이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으로, 연구 현상의 의미를 읽어내고 그 차이와 단서를 끄집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자질로서 자료의 의미나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나 통찰력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1998). 이론적 민감성 향상을 위해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단계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자료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유지하고, 연구의 방법적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이러한 이론적 민감성 향상은 문헌자료 및 연구자의 전문적이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선입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각하고, 이것에 대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Strauss & Corbin, 1990).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6], 문서기록 열람(archival records), 관찰(observation) 등이 주로 사용된다(Padgett, 1998).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중요한 분석도구이다. 연구자가 특정한 개념의 이론적 연관성에 더 민감할수록 자료에서 개념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데 본 연

6) 근거이론은 경험적 자료에 토대를 두고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Strauss et al., 1998) 현상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관한 학술적 문헌을 통해 배경정보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전문적 경험으로 시설직원으로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입소부터 퇴소, 그 이후 자립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을 지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과 월 1회 문화 활동을 통해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의 경험세계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퇴소 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과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퇴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 관련해서는 개설 된 모든 질적 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여 이론적 민감성을 길렀다. 또한 40대 참여자의 경우 당시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퇴직자의 면담을 통해 입소 당시 상황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으며, 참여자의 입소 후 적응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직원으로서 입소연령에 따른 입소자의 적응과정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자료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가 진행되고 자료가 분석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하기도 하였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연구자의 고정된 생각과 의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료를 바라보게 되면서 가능하였다.

2.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이며 이론적 민감성을 가져야 하고, 연구자의 자질 및 역량 등이 질적 연구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입견, 가치, 신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연구자의 경력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자의 면담기술은 자료수집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주제에 관한 지식과 실천적 경험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자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새롭게 형성 된 자신의 가정을 성장시키는 것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경험해 왔다. 또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들의 변화와 성장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현재는 시설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전문심리상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동안 개설된 모든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이러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로서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3. 연구의 윤리적 기준

모든 연구에서는 연구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는데 특별히 질적 연구는 그 특성상 윤리적 문제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 먼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기준으로 질적 연구가 연구 참여자의 생활경험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참여자 내면의 세계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하기 전에 연구의 윤리를 위해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와 권리를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의 허락 하에 인터뷰를 녹음하되 연구가 끝나면 자료를 폐기한다는 설명을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가 말하기 싫은 부분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가 외상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사건을 진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담의 기술을 최대한 습득하고, 연구주제가 외상경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사건을 경험한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재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존중과 공감 등 면담기법을 이용하여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연구의 엄격성

Lincoln and Guba(1985)는 양적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구하는 것처럼 질적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의 특성에 맞게 연구가 신뢰할만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엄격성(Rigor)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의 엄격성(rigor)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논란과 비판이 되고 있다(Padgett, 1998).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Lincoln and Guba, 1985)를 말하는데 이는 질적 연구자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로 해석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어떻게 연구과정이 일반과학연구의 원리로 증명 될 수 있도록 산출할 수 있는지 기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 현상과 연구자 해석 사이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판가름 하느냐에 대한 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질적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편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김애령, 2009). 이것은 양적연구의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의 신뢰도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요구하는데(조재석 외, 2006), 즉 연구자의 신념과 가치, 경험적 배경이 연구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 유지와 윤리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Padgett가 제안한 지침에 따라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신뢰 관계 형성은 연구 참여자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려는 의도를 줄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을 줄여 줄 수 있다. 연구자는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충분한 라포 형성을 해나가면서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면접을 전개해 나갔으며 점진적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초점화 시켜 나갔고, 면담이 종결된 후에도 보완해야 할 질문이나 내용이 있을 시, 전화, 문자, 전자메일을 통해 면담을 지속하였다.

두 번째, 자료의 다원화(triangu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원화로서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 기관실무자들과의 면담, 영상물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연구목적과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세 번째,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교수의 자문, 사회복지 전공박사 등을 통해 연구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고정관념, 연구 결과에 대한 과도한 해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것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네 번째,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과정이다. Rennie(2000)는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연구 참여자의 검증은 연구현상과 연구자 해석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하였고, 이를 모두 필사하여 그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념을 도출하고 다시 비슷한 내용을 압축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범주의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코딩(coding)을 통해 주제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사례의 제시는 한개 또는 범주에 따라 여러 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단일 사례의 제시가 갖는 주장의 허약함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김영천, 2008).

제1절 인생진행의 과정분석

연구 참여자들이 구술한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그 경험 내용을 기술할 때 홑따옴표로 표기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의 생애이야기를 기술하면서 연구자에게 개별 사례를 관통하면서 출현한 해석학적 주제를 구성한 것이고, 양 따옴표로 표기한 부분은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생애를 구술함을 통해 그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 과정 전반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원자료와 입소 당시 상담을 하였던 시설직원의 인터뷰를 참고하면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소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그들이 삶을 이해 할 수 있는 예비 분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입소사유와 시기는 시설직원이 기억하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 이들의 경험 내용은 개인적이고 특별하며, 경험과정에서도 각기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대처양상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생애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시설입소 경위와 상처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보다 쉽게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사건 중심의 내용들을 기록하기에 노력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면담 자료에 드러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수한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이 삶의 실존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들이 경험과정 속에서 어떤 기분과 감정에 휩싸였는지, 심리내적으로는 어떤 성찰적 과정을 경험하는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현상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그렇게 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반성적 시선이야말로 면담 자료에서 의미단위, 하위 범주, 해석학적 범주, 핵심범주와 같은 주요의미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터전이 될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드러나는 개인적 경험의 성찰과정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범주 내, 범주 간, 핵심범주 등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1. 참여자 1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1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1(여, 22세, 대학생, 시설생활 13년차, 1남 3녀 중 장녀, 형제들과 함께 입소)은 매일 술만 드시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다. 참여자가 8세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가출하셨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서 동생들과 생활하였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자주하였다. 아버지는 수급비로 매일 술을 먹었으며 참여자에게 직접 술심부름을 시켰다. 겨울인데도 난방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이웃이 보고 신고하여 관할소속공무원이 상담 후 입소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아버지의 잦은 음주 후 폭력으로 인해 집에 있는 것 보다는 시설에 있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시설입소에 동의하였다. 참여자가 시설입소를 하면서 아버지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어머니는 참여자가 시설입소 후 한번 다녀가시고 그 후 지금까지 소식을 알지 못한다. 참여자는 시설에 입소하여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모범생으로 성장하였고, 시설직원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며, 중학교 때는 모범아동으로 선정되어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는 시설은 낯선 공간이긴 하지만 동생들이 같이 있어서 적응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으며, 입소 전에는 공부도 안하고, 학교도 많이 빠지고, 부모님으로부터 관심도 못 받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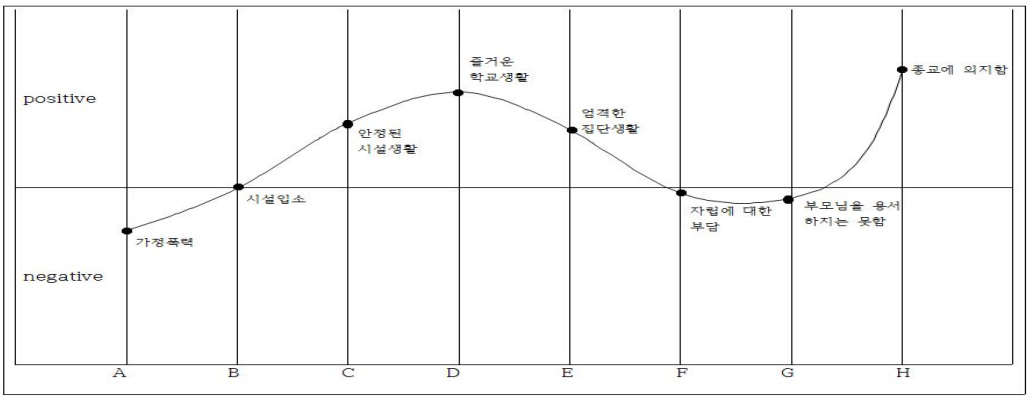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도 몰랐는데 시설에 와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적응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참여자는 현재는 퇴소를 연장하고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공부가 힘들기는 하지만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은 만족스럽다. 참여자는 종교 활동에 적극적이며,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는 것이 꿈이다.

나. 참여자 1의 객관적 자료

(1) 참여자 1의 연도별 주요사건

- 1993년(1세) : J도 B군 출생(1남 3녀 중 장녀)
- 2000년(8세) :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니 가출
- 2002년(10세) : 아버지의 가정폭력 및 알코올 중독으로 시설입소
- 2009년(17세) : 실업계 고등학교입학
- 2012년(20세) : 대학입학

(2) 참여자 1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7](이효선, 2007)



<그림 4-1> 참여자 1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7)인생진행 과정구조는 참여자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구성한 것을 연구자가 감정이입을 통해 이해하고 다시 구성한 상호주관을 가지고 고찰하여 해석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참여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의 정도는 인터뷰 속에서 이야기 된 것의 숨겨진 의미구조를 해석함으로써 판단된다.(이효선, 200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가정폭력

참여자 1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가출하신 후 1남 3녀 중 장녀로써 어린나이에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은 어린나이의 참여자와 동생들에게는 공포였으며, 참여자는 동생들까지 보호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었다.

B 시설입소

참여자는 이웃의 신고로 시설입소를 제안 받자 아버지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시설입소를 선택하였다. 참여자는 시설입소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빨리 알코올 중독자이며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만을 바랐으며 스스로 시설입소를 결정하였다.

D 즐거운 학교생활

참여자는 시설직원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갔으며 이로 인해 밝고 명랑한 원래의 성격을 회복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에서도 성실히 생활하였다. 학습능력을 뛰어나지 않았으나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였으며 교우관계도 좋을 뿐 아니라 담임선생님의 칭찬도 받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다.

E 엄격한 집단생활

참여자는 시설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으나 단체생활로 인한 엄격한 규칙과 많은 규정들은 참여자를 답답하게 하였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어렵고, 구속 받는다는 느낌이 강할 뿐 아니라 가정집 친구들과는 다른 생활로 인해 힘들었으며, 대학을 들어간 이후 시설에서 선배로써 요구되는 행동의 규제 등은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누리고 싶은 참여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H 종교에 의지함

참여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막막했던 어린 시절 시설에 입소한 이후 시설의 친구들과 직원들과 함께 다닌 교회생활을 참여자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설생활이 힘들어질 때도 종교에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참여자 2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2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2(여, 20세, 대학생, 시설생활 13년차, 1남 3녀 중 둘째, 형제들과 함께 입소)는 <참여자 1>과 자매간으로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자주 집을 나가곤 했다. 집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아버지에게 맞고 살았던 기억이며, 성격이 소심해서 폭력적인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참여자의 시설생활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것은 좋았지만 입소 전 이웃집 언니로부터 들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집에서 누릴 수 없었던 좋은 환경과 따뜻한 보살핌 때문에 시설적응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시설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직원들의 이중적 태도인데 자신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일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만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서 어른들 눈에 올바른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하지 않고 대학을 선택하였다.

참여자는 시설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게 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친구가 많지 않으나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편이다. 참여자는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주변의 사회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자신을 도와주는 어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참여자에게 가장 힘든 일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만기퇴소를 할 나이가 지났으나 대학생활 유지를 위해 연장신청을 한 후 아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하는 등 항상 금전적인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격으로 현재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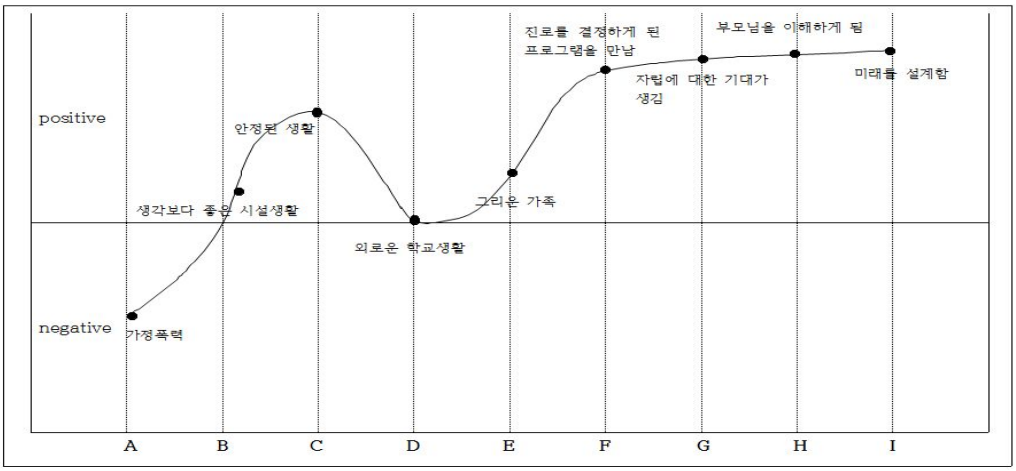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참여자 2의 객관적 자료

(1) 참여자 2의 연도별 주요사건

- 1995년(1세) : J도 B군 출생(1남 3녀 중 차녀)
- 2000년(6세) :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니 가출
- 2002년(8세) : 아버지의 가정폭력 및 알코올 중독으로 시설입소
- 2005년(11세) : 진로를 결정할 프로그램을 만남
- 2011년(17세) : 실업계 고등학교입학
- 2014년(20세) : 대학입학

(2) 참여자 2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2> 참여자 2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A 가정폭력

참여자는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으나 언니라는 울타리가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가출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C 외로운 학교생활

내성적인 성격의 참여자는 시설생활과 학교생활에 별 어려움은 없었으나 자신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가정사가 알려지기를 두려워하였으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시설에서 산다는 사회적 낙인을 염려하여 시설에 산다는 것을 감추려고 자신의 상황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친한 친구가 많지 않다. 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 하지 않았다.

E 진로를 결정하게 된 프로그램을 만남

참여자는 시설에서 지역의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특별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의 진로도 결정하고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관계들이 원활해졌으며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기대한 대학생활은 자신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생활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3. 참여자 3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3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3(남, 22세, 대학생, 시설생활 11년차, 2남 1녀 중 장남, 8개월짜리 여동생과 함께 입소)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남동생과 여동생 5인 가족이 생활하였으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시설입소를 원하여 입소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아버지가 안계시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오시면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집에서는 아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거나 침묵하였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참여자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 참여자의 시설생활은 스스로 원해서 입소하였지만 첫 느낌은 무서웠다. 시설아동이라는 낙인과 집단생활이다 보니 선배들의 폭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시설은 항상 밥 맛있게 잘 나오고, 밖에 나갔다오면 편하게 쉬기도 하고, 두렵거나 뭐 이런 것 없이 편하게 쉴 집이 있는 것이 좋았다. 참여자의 학교생활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사춘기에는 사고도 많이 쳐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뻔했지만 자신을 믿어 준 시설선생님의 지지와 격려로 위기를 잘 극복하였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다. 대학의 교수님들의 도움도 받게 되면서 세상에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고 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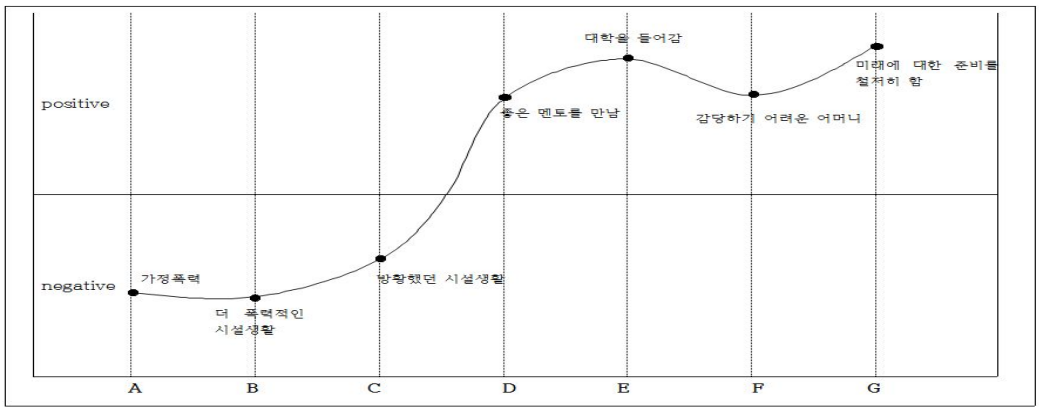
각한다. 참여자는 만기퇴소를 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시설생활을 연장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퇴소에 대한 불안이 있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 가족의 원조가 전혀 없는 자신이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힘들 수 있지만 장남으로써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는 현재 경제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더 많이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참여자 3의 객관적 자료

(1) 참여자 3의 연도별 주요사건

- 1993년(1세) : J도 B군 출생(2남 1녀 중 장남)
- 2003년(11세) :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가출로 시설입소
- 2006년(14세) : 아버지 사망
- 2008년(15세) :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 2009년(17세) : 실업계 고등학교입학
- 2012년(20세) : 4년제 대학에 입학 함

(2) 참여자 3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3> 참여자 3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가정폭력

참여자 3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가장 큰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늘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녔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매일 불안과 폭력에 시달렸다.

B 더 폭력적인 시설생활

참여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시설에 입소함에 따라 시설의 선후배사이의 암묵적인 집단 폭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도 선배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따라 동생들을 괴롭히게 된다.

D 좋은 멘토를 만남

참여자는 자신을 돌보던 생활지도원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경험하였으며, 퇴사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방황할 때마다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또한 학교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참여자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다.

E 대학을 들어감

참여자는 만기퇴소를 선택하지 않고 연장한 후 대학을 진학한다. 이로 인해 퇴소에 대한 불안을 조금을 덜게 되었으며 참여자는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대학생활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되었다.

4. 참여자 4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4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4(남, 22세, 대학생, 시설생활 10년차, 2남 1녀 중 차남, 형과 여동생 입소 후 나중에 따로 입소)는 <참여자 3>의 동생으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그로인한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자주 가출하셨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정신 병력이 있으며 현재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시 어린 여동생(생후 8개월)과 가정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형이 먼저 입소하였으나 참여자는 시설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함께 입소하지 못하고 형과 동생이 시설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는 것을 본 후 입소하게 된다. 참여자의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버지는 형하고 동생이 시설로 간 다음 참여자마저 가버릴까 봐 조금 달라지셨으나 다정한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참여자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 참여자는 입소초기에는 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입소로 인해 전학을 한 학교에 가지 않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는 등 부적응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설입소 전 원가정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가정형편(아버지의 가정폭력, 어머니의 정신질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서 왕따도 당했는데 오히려 시설입소 후에는 시설에 함께 사는 선후배들로 인해 힘이 생겼다. 참여자의 시설생활은 처음 참여자가 생각했던 것 보다 함께 사는 사람도 많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놀며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준비물도 모두 챙겨주었다.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쯤에 시설의 특화 프로그램을 계기로 운동을 시작했으며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나 체력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스스로 포기했다. 이후 참여자는 친형의 추천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고등학교 와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교무 보조 선생님과 친하게 되어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참여자는 현재 대학생으로 친구들도 많고 교유관계도 좋다. 학교에서는 과대표를 맡고 있으며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열심히 공부해서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여 형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동생에게 좋은 오빠가 되는 것이다.

나. 참여자 4의 객관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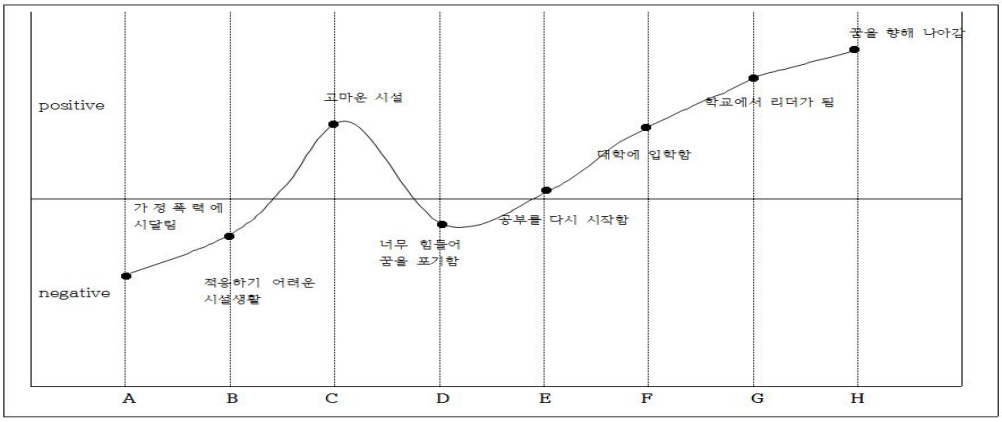
(1) 참여자 4의 연도별 주요사건

- 1995년(1세) : J도 B군 출생(2남 1녀 중 차남)
- 2003년(9세) :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가출로 시설입소
- 2006년(12세) : 아버지 사망
- 2008년(14세) : 운동을 위해 타 지역 특성화 중학교입학
- 2010년(16세) : 운동을 포기함
- 2014년(20세) : 4년제 대학에 입학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참여자 4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4> 참여자 4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A 가정폭력에 시달림

참여자는 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폭력을 덜 당하였다. 아버지는 형과 동생이 시설에 입소 한 후 자신마저 아버지 곁을 떠날까 두려워서 잠시 잘해 주었으나 결국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참여자를 돌보지 않아서 참여자도 결국 시설입소를 결정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된다.

C 고마운 시설

참여자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 온 기회에 취미활동으로 했던 운동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진로선택이 됨에 따라 시설을 떠나 합숙생활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참여자는 시설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자신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설의 직원들로 인해 시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D 너무 힘들어 꿈을 포기함

참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동은 힘들었으며 시설이 아무리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처럼 음식을 해오거나 시합에 함께 동행하여 응원하는 등의 지원은 어려웠다. 운동은 할수록 강도가 세져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참여자는 결국 운동을 포기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 학교에서 리더가 됨

참여자는 형의 조언에 힘입어 인문계학교에 진학하여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한다. 학과의 대표를 맡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과의 친구들과 대학의 교수들까지 폭을 넓혀 가고 있다.

5. 참여자 5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5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5(남, 22세, 대학생, 시설생활 10년차, 5남 2녀 중 3남, 혼자 입소)는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어머니의 잦은 재혼으로 5남2녀의 형제가 있으며 그 중 다섯째이다. 참여자와 같은 아버지를 가진 형제는 둘째형과 작은 누나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재혼 시 어린 참여자만을 시설에 입소시켰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참여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서 갑자기 시설로 찾아 온 어머니의 첫 번째 남편에게서 낳은 큰누나에 의해 알게 된다. 참여자의 친형은 사망했으며, 친누나가 있지만 참여자를 잘 챙겨주지는 않는다. 참여자는 원가족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설을 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 참여자의 시설생활은 원만했으나 오히려 원가족 재회 시에 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를 입었다. 시설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은 너무 많은 규칙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며, 시설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참여자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어른을 찾지 못했다. 참여자의 학교생활은 평범했으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참여자는 친구는 많은 편은 아니며, 친구들에게 시설에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현재 참여자는 대학생으로 국가장학금으로 학비를 조달하고 있다. 현재 참여자는 자신의 꿈을 위해 좀 더 좋은 타 대학으로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나. 참여자 5의 객관적 자료

(1) 참여자 5의 연도별 주요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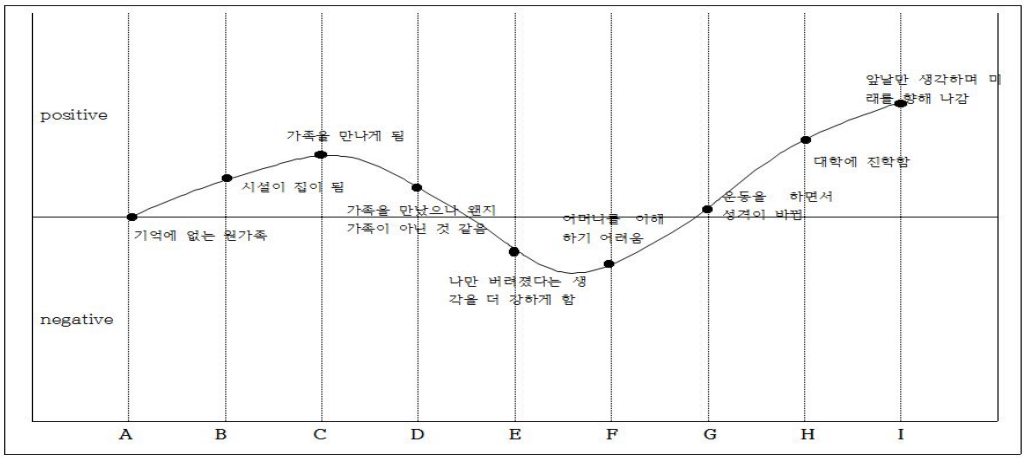
- 1995년(1세) : J도 B군 출생(2남 1녀 중 장남)
- 1997년(3세) :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시설에 입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2005년(11세) : 큰누나가 시설에 찾아옴
- 2006년(12세) :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남
- 2011년(17세) : 실업계 고등학교입학
- 2014년(20세) : 4년제 대학에 입학

(2) 참여자 5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5> 참여자 5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A 기억에 없는 원가족

참여자는 어린나이에 시설에 입소했고 따라서 원가족 생활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는지 등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참여자에게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 감정은 느낄 수 없었다.

B 시설이 집이 됨

너무 어린나이에 입소한 참여자는 시설의 직원들과 생활자들을 가족으로 느끼고 시설을 집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시설생활은 특별히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소심하고 내향적인 참여자에게 시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학교에서도 시설의 동료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가족을 만나게 됨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어머니의 재혼으로 생긴 큰누나가 시설을 방문하여 만나게 되면서 누나를 통해 가족에 대한 정을 느끼게 되었으나 소극적인 자신의 성격 탓에 누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는 못했다. 누나를 통해 엄마를 만나게 되었으나 엄마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를 입는다.

G 운동을 하면서 성격이 바뀜

참여자는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장래의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된다. 소극적이어서 싫었던 성격도 운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느끼며 더 적극적인 성격이 되기를 원한다.

H 대학에 진학 함

참여자는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면서 대학진학도 관련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시설에서 친 형제처럼 의지하던 형의 조언을 듣고 대학을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신이 스스로 독립 할 수 있을 때까지 시설생활을 유지하기로 한다.

6. 참여자 6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6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6(남, 40세, 자영업, 시설생활 17년, 삼형제 중 막내, 형 2명과 함께 입소)은 시장근처에 살았고, 어머니의 가출 후 아버지가 3형제를 데리고 있었는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당시 입소상담을 했던 시설의 사무국장을 통해서 확인). 아버지가 경제활동으로 타 지역으로 가시게 되자 형제들과 함께 작은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작은 아버지 댁에도 자녀들이 있어 양육이 어려웠고, 결국 이웃 주민인 공무원을 통해 입소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입소당시 원가족 생활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소사유를 부모사망으로 알고 있다. 참여자의 시설생활은 단체생활이다 보니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구타당하는 일이 많아서 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웠다. 그러나 함께 놀 친구들이 많아서 재밌을 때도 있었다. 참여자는 입소 후 두 살 터울인 둘째형과 중학생 때까지 같은 학년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둘째 형의 문제행동이 심해 참여자의 학교생활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형과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참여자의 학교생활은 선생님들과 사이도 좋지 않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성적도 좋지 않았으며, 문제행동을 일으켜 정학을 당하기도 하였다. 만기퇴소를 한 참여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유흥업소의 웨이터 등을 전전하며 안정적인지 못한 생활을 하였으나 아내를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하였다. 참여자는 아내와의 만남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일로 생각하며 아내로 인해 얻게 된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내와의 결혼생활로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참여자는 시설에서 함께 자란 선후배들과 모임을 통해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퇴소한 동생들의 직업을 알선해 주는 등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여자는 현재 기혼으로 1남 1녀의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을 통해 인생의 긍정적 변화를 느꼈고,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려고 한다. 참여자는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좋은 아빠이며, 가족이 세상에 가장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는 원가족과도 사회에 나와서 더 가깝게 되었으며, 결혼해서 살다보니까 피를 나눈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형제들과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있다.

나. 참여자 6의 객관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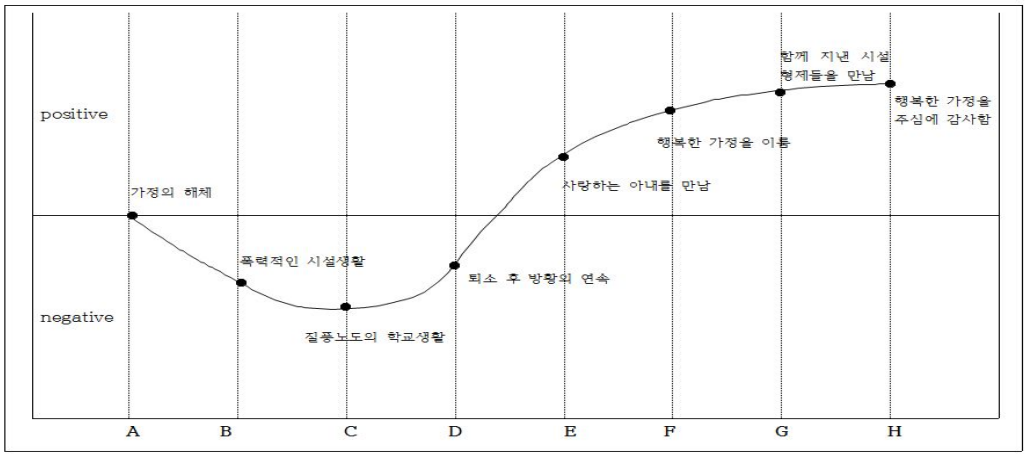
(1) 참여자 6의 연도별 주요사건

- 1976년(1세) : J도 B군 출생(3남 중 막내)
- 1983년(8세) :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무직으로 시설입소
- 1992년(17세) : 실업계 고등학교입학
- 1995년(20세) : 만기퇴소 함
- 2008년(33세) :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룸.
- 2009년(34세) : 첫 아들 출생.
- 2015년(40세) : 둘째 딸 출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참여자 6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6> 참여자 6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A 가정의 해체

참여자가 기억하는 시설의 입소배경은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타 지역 생활로 인해 시설에 입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시설입소 당시 입소상담자인 사무국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작은집에 머물다가 양육이 어려워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B 폭력적인 시설생활

참여자에게 시설생활은 늘 공포의 연속으로 이유 없는 폭력이 난무하는 살기 힘든 곳이었다. 특히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는 선배들에 의한 물리적 압력은 극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가 생각하는 시설생활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였던 참여자도 고학년이 되면서 자신이 받았던 것 보다 더 심하게 동생들을 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설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대물림되는 곳이었다.

C 질풍노도의 학교생활

참여자는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폭력을 학습하여 대물림하는 형태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취하였고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많은 사고들을 일으켰다. 시설의 책임자가 학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퇴학에 대한 유예를 받은 것도 여러 차례이며 이로 인해 참여자는 그 때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E 사랑하는 아내를 만남

참여자는 사회에서 연속된 방황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다. 아내와 함께 처가의 사업을 도우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출산하여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고 있다.

F 행복한 가정을 이룸

참여자는 아내로 인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처가의 도움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참여자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는 등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처가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 할 뿐 아니라 육아에도 신경을 쓰는 등 좋은 남편 아빠가 되고자 노력한다.

G 함께 지낸 시설형제들을 만남

참여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함께 자랐던 시설선·후배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으며 과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선배들과도 자신이 힘들게 했던 후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한때의 추억으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7. 참여자 7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7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7(남, 40세, 자영업, 시설생활 9년, 1남 2녀 중 장남, 여동생 2명과 함께 입소)은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여동생 2명과 함께 입소하였다. 참여자는 성장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꿋꿋하게 양육하는 친구의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힘든 세상에서 3명의 자녀를 잘 키우기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의 시설생활은 순탄하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않았는데 단체생활이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군대처럼 구타도 있었다. 당시 참여자는 시설에 대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참여자는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없으며 타인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고 다만 자기 자신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는 시간이 빨리 흘러서 시설에서 퇴소하기만을 기대하며 살았다. 참여자가 시설에서 살았던 당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출하거나 문제행동을 일으켜서 중도 퇴소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시설을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자신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시설에 머물러서 만기 퇴소했던 것을 잘 한 일로 생각한다. 참여자의 학교생활은 공부는 잘 못했지만 학교 가는 게 시설에 있는 것보다 좋았다. 시설은 참여자에게 따뜻한 집이 되지 못했고 함께 생활한 선후배들도 형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참여자가 퇴소 한 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자 참여자 스스로 시설의 동생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시설 출신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었으며 현재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다. 참여자는 모임을 통해 시설생활 중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과도 화해를 하고 시설 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지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책임이라는 것에서 자유롭고 싶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에도 벅찬데 결혼하면 아내와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번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해보는 것이며, 사업실패로 인해 현재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참여자는 사회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봉사동아리의 회장도 겸하고 있다.

나. 참여자 7의 객관적 자료

(1) 참여자 7의 연도별 주요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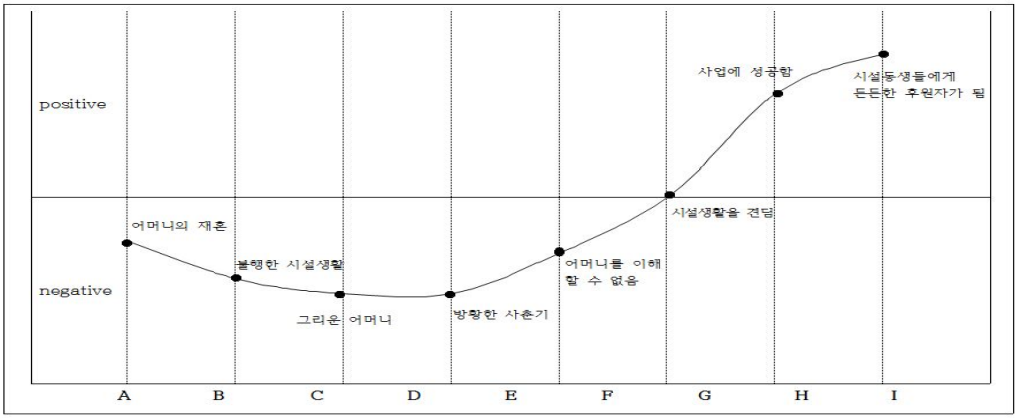
- 1977년(1세) : J도 H군 출생(1남 2녀 중 장남)
- 1983년(8세) :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시설입소
- 1991년(17세) : 실업계 고등학교입학
- 1994년(20세) : 만기퇴소를 함
- 2004년(30세) : 사업을 하여 성공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2009년(35세) : 시설 선후배들의 모임에 참여함
-

(2) 참여자 7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7> 참여자 7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A 어머니의 재혼

참여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동생들과 함께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친구들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사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과 동생들을 버리고 재혼을 선택한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재혼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B 불행한 시설생활

동생들과 함께 시설에 입소했으나 성별이 다른 동생들과는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한 가족이지만 서로 챙겨주거나 돌봐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시설 내에서는 남남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 시설생활이란 이유 없는 선배들의 폭력으로 인해 무섭고 힘듦의 연속이었다.

D 방황한 사춘기

참여자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방황을 거듭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자신이 어머니가 있음에도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힘들뿐 아니라 친구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도 꿋꿋하게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통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 사춘기 시절 자신의 인생이 어머니로 인해 엉망이 되었다고 느끼며 공부를 하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생활을 하였다.

H 사업에 성공함

퇴소 후 참여자는 어머니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것이 성공을 이뤄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어머니에게 크게 감사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업은 타인의 눈에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떳떳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8. 참여자 8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8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8(여, 28세, 전문직 직장인, 시설생활 17년, 혼자 입소하였으며 원가족과는 연락 두절)은 정신질환을 앓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노숙을 하여 주민들의 신고로 입소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입소 후 독립호적을 만들었다(당시 입소상담을 한 시설총무면담을 통해서 확인함). 입소당시 나이는 6세 정도로 추정되고, 발견당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9벌의 옷이 입혀진 상태였다. 참여자는 원가족에 대해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자신이 돌봐야하는 상황일까 봐서 차라리 그리워만 하지 찾지는 않을 생각이다. 원가족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참여자는 시설에 대해 집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이 많고 부모가 되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자신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좋았다. 자신의 꿈을 위해 시설이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가정에 있었더라면 어려웠을 거라고 시설입소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자는 시설생활을 통해 어른을 대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대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다. 참여자의 학교생활은 초등학교 때는 시설아동이라는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힘들었으나 오히려 고학년이 되니까 부모의 잔소리와 공부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참여자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으며 노력을 하지는 않아서 성적은 좋지 않았다. 참여자의 친구 관계는 좋았으며 친구들에게도 시설에 산다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 했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 부모 상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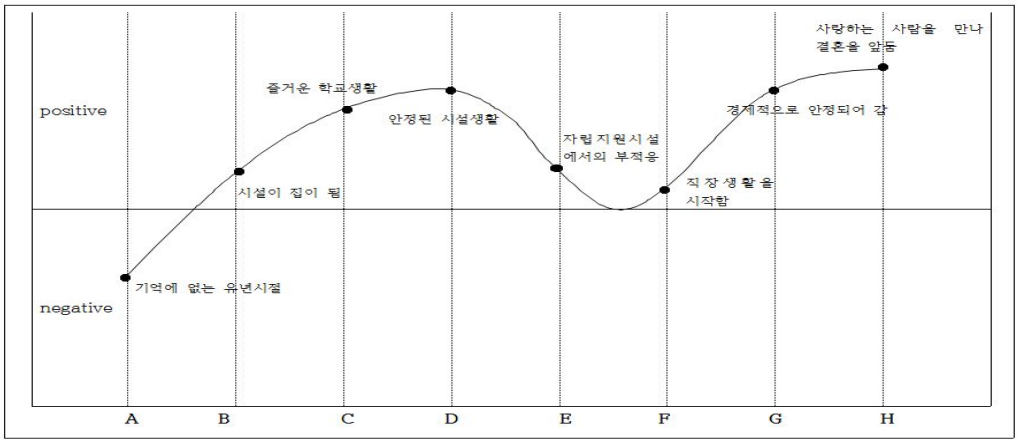
시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다. 참여자는 최근 함께 생활했던 친구동생의 자살사건과 그로인한 친구의 우울증 투병을 보면서 자신이 몸과 마음의 장애가 없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으며 자신을 건강하게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또한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실에 자신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는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반듯한 직장을 갖고 있으며 언젠 가는 자기 이름으로 관련 사업을 해 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나. 참여자 8의 객관적 자료

(1) 참여자 8의 연도별 주요사건

- 1987년(1세) : J도 B군 출생(무남독녀)
- 1992년(6세) : 아버지는 모르며 어머니의 정신질환으로 시설입소
- 1994년(8세) : 피아노를 배움
- 2006년(20세) : 전문대학에 입학
- 2008년(22세) : 직장 생활 시작
- 2015년(29세) : 결혼을 준비 함
-

(2) 참여자 8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8> 참여자 8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기억에 없는 유년시절

참여자는 6세쯤 입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입소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처음 시설에 입소한 날의 기억을 자신이 많이 울었다고 생각하였다.

B 시설이 집이 됨

참여자는 어린나이에 입소하여 시설이 집인 줄 아고 생활하였으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고 오히려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 비해 자신은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시설의 지원을 받아 부족함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시설의 선후배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으며 시설에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E 자립지원시설에서의 부적응

참여자는 퇴소 후 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하였는데 전혀 새로운 환경과 엄격한 규칙, 낯선 시설직원들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누명으로 퇴소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자립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단단해 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H 결혼을 앞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남자친구와 시부모님께도 자신이 시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모든 사실을 알고서 더욱 대견해 하시며 부모와 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였다. 참여자는 현재의 남자 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9. 참여자 9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9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9(남, 26세, 전문직 직장인, 시설생활 17년, 이종사촌들과 함께 시설생활 함, 형제들 중 유일하게 시설입소)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통해 시설에 입소를 시켰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참여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다. 참여자는 원가족에 대한 기억을 거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을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는 자신이 어떤 사유로 시설에 입소했는지 알지 못했으나 대학생 때 어머니로부터 유난히 참여자에게만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를 입소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참여자는 대학교 입학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게 된 후 어머니 외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다. 참여자는 자신이 잘 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쓴 어머니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다. 참여자는 그동안 시설을 집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나 시설직원들과의 소통의 문제로 시설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될 수 없음을 느꼈다. 사춘기에는 시설에 대해 교도소와 같은 규칙만 많고 자유가 없는 곳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루하루 인내하고 버티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시설을 통해 받게 된 원조가 자립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깨닫고 부모도 해주지 않는 것을 시설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참여자는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학교생활도 잘 하였으며, 공부는 잘하지 못했으나 교우관계가 좋아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대학 진학 시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로결정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현재 참여자는 적성에 맞는 대학에 다시 진학하여 졸업을 하였고 전공을 살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나. 참여자 9의 객관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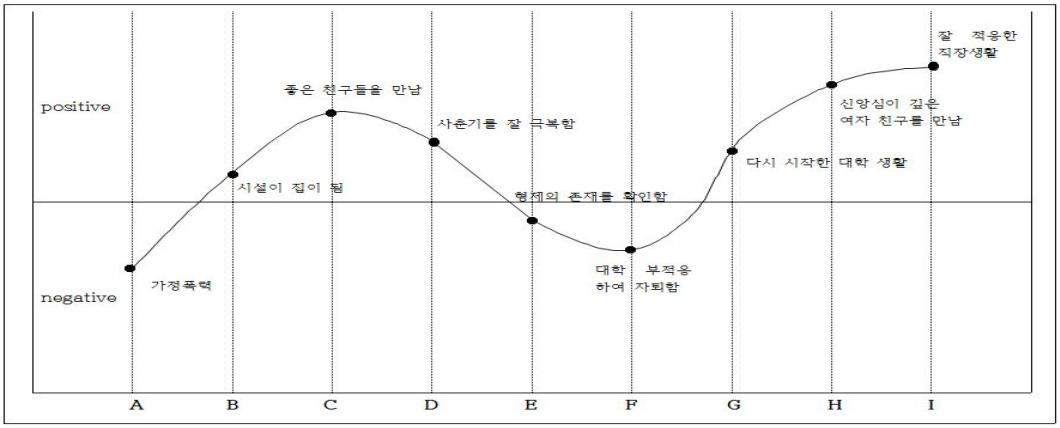
(1) 참여자 9의 연도별 주요사건

- 1990년(1세) : J도 H군 출생(1남 2녀 중 장남)
- 1992년(3세) : 어머니의 정신질환과 아버지의 폭력으로 시설입소
- 2006년(17세) :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 2009년(20세) : 대학교 입학 후 부적응하여 자퇴함
- 2010년(21세) :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함
- 2011년(22세) : 신앙심이 깊은 여자 친구를 만남
- 2014년(25세) : 전공을 살린 직장에 들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참여자 9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9> 참여자 9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A 가정폭력

참여자는 어린나이에 시설에 입소하여 입소동기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머니가 외할머니와 의논하여 자신을 시설로 입소시켰고 이후 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유난히 싫어하신 아버지의 폭력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입소하게 된 사유를 듣게 되었다.

B 시설이 집이 됨

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어 시설생활에 익숙해서 적응에 문제는 없었고 시설을 자신이 보호받고 생활해야 하는 집으로 인식하였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고 가끔 어머니도 만날 수 있어서 참여자에게 시설생활은 큰 어려움은 없었다. 또한 이종사촌들이 함께 시설에서 생활했던 것도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C 좋은 친구들을 만남

참여자는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며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고 학교선생님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사춘기 시절에는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잠깐 했으나 시설생활을 주변인들에게 감추거나 하지 않았으며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 형제의 존재를 확인함

참여자는 자신에게도 형제가 있음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충격에 휩싸였으며 왜 여태까지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궁금해지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이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로 치부하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관심을 접었다.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F 대학에 부적응하여 자퇴함

참여자는 대학진학 시 자신의 적성보다는 졸업 후 취업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된 참여자는 학과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잦은 결석을 하게 되었고 과락을 하는 등 학점에 문제가 생겨서 자퇴를 하게 된다.

H 신앙심이 깊은 여자 친구를 만남

참여자는 다시 진학한 대학에서 신앙심이 깊은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된다. 여자 친구의 지지와 격려로 인해 대학생활에도 잘 적응하였으며 이후 전공을 살려 직장생활도 잘 하고 있다.

10. 참여자 10의 프로토콜

가. 참여자 10의 생애 이야기

참여자 10(남, 49세, 직장인, 시설생활 20년, 아내의 가출로 초혼에 실패하였으나 재혼함)은 거리에 유기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손가락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시설의 원장으로부터 입소 당시 2세쯤 되었다고 전해 들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유기된 참여자는 당시 시설장의 성을 따라서 독립호적을 만들었으며, 중학교 입학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시설의 총무가 참여자만 홀로 성을 바꿔주었다. 당시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은 모두 시설장의 성을 따라 같은 성을 부여 받게 됨으로 같은 성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시설아동이라는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는 자신만의 성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참여자는 온순한 성격으로 힘든 시설생활에서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시설장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크게 낙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는 시설생활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졌고, 소심했던 자신의 성격이 활발하게 바뀌었다고 했으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받은 타고난 좋은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자는 초등학교를 2년이나 늦게 입학했는데 그 이유는 시설장의 손자녀들을 돌봐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참여자는 학교에 또래 친구가 없었다. 참여자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으며 현재 힘든 것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여자선생님께서 참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여자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준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참여자는 교회를 10년 정도 다녔는데 청년부 회장까지 했으나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한 아내가 참여자가 가진 종교를 극도로 싫어할 뿐 아니라 힘든 직장생활로 인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는 여전히 신앙심이 깊어 보였으며 매일 어느 곳에서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지금은 직장 문제와 아내의 반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갈 거라고 말하였다. 현재의 아내와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다. 아내도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딸이 둘 있는데 딸들이 연결해 주었으며 모두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나이가 50이 가까워 오면서 점점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에 대한 불안이 있고,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부분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참여자는 자신이 시설 출신임을 가족들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원가족에 대해서는 찾고는 싶으나 혹시 힘들게 산다면 자신이 도움을 주지 못할 처지여서 오히려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찾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문득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을 만나면 불현 듯 친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참여자는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은 이런 자신에게도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랑스런 딸을 주신 것이며, 앞으로 소망은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한다.

d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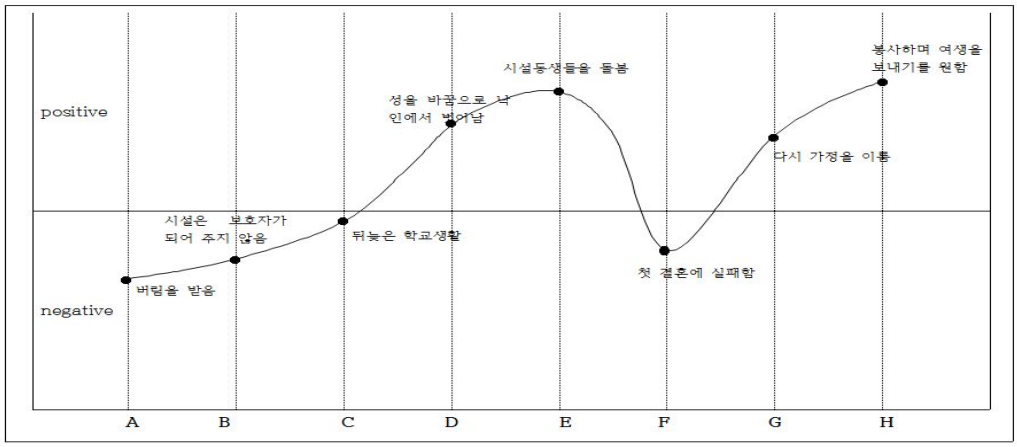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참여자 10의 객관적 자료

(1) 참여자 10의 연도별 주요사건

- 1967년(1세) : G시 출생(?)
- 1968년(2세) : 유기된 상태로 시설입소
- 1976년(10세) : 초등학교 입학
- 1983년(17세) : 실업계고등학교 입학
- 1992년(26세) : 자랐던 시설에서 직장 생활을 함
- 1996년(30세) : 딸을 출산함
- 1999년(33세) : 첫 결혼에 실패함
- 2009년(43세) : 두 번째 결혼을 함

(2) 참여자 10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그림 4-10> 참여자 10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

A 버려짐

참여자는 자신이 유기되었다는 사실을 시설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현재 자신의 정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시설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보든 입소자들에게 원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여자는 자신이 신체적인 결함도 있고 아마도 자신을 키우지 못할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C 뒤늦은 학교생활

온순하고 순종적이던 참여자에게 시설장은 자신의 손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시켰으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이 지연되었다. 또래보다 2년 늦게 입학한 학교생활은 즐거웠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생활하게 되었다. 학교생활 중 4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한다.

D 성을 바꿈

참여자는 당시 시설의 생활자들이 모두 시설장의 성을 따라 같은 성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이름에서부터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라는 낙인을 받게 됨에 대해 매우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설의 총무로 인해 자신이 시설장의 성이 아닌 새로운 성을 갖게 되면서 다른 시설의 생활자들과 다른 성을 갖게 된 사실만으로도 참여자는 행복했다.

E 시설동생들을 돌봄

시설장의 부탁으로 시설후배들을 돌보게 된 참여자는 이를 위해 뒤늦게 사회복지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기에 모든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원이자 선배이고 싶었다. 그때 직장동료로 만났던 연상의 여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F 첫 결혼에 실패함

참여자는 본인이 생활했던 시설에서 직장생활 중 연상의 동료와 좋아하게 되어 결혼에 이르렀으나 부인의 외도와 참여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결혼생활은 수탄하지 못하였다. 결국 부인의 가출로 인해 이혼하게 된다. 참여자는 첫 번째 결혼에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게 되는데 이후 딸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G 다시 가정을 이룸

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딸을 양육하며 생활하다 비슷한 처지의 딸의 친구 어머니와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자신의 딸 이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도 재혼 후 두 명의 딸이 더 생겨 참여자는 외롭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제2절 범주의 구성과 기술

1. 범주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외상 후 성장 기준에 충족한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외상 후 성장 기준을 설정하였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을 핵심진술을 중심으로 의미단위를 명명하면서 개인 사례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사례를 분석한 후에 각 사례별로 의미단위를 일일이 비교하면서 공통사항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개별 의미 단위가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의미를 하위범주로 명명하였는데 개별 의미단위가 하위 범주로 수렴되는 것이 맞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개별 의미단위로 다시 돌아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과 전체 의미의 지속적 비교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54개 개념, 22개 하위범주, 8개 범주를 구성하였다.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범주의 구성

범주	하위범주	개념(의미단위)
변방에 서있음	보호자가 없음	엄마가 가출함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림
	막다른 골목	이유 없는 체벌을 당함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
주홍글씨가 새겨짐	자기낙인	나만 시설에 살게 됨 성격이 소심해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함
	사회적 낙인	시설 출신이라는 꼬리표 고아라고 불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거에 붙들림	혼란스러운 감정	미웠다 그리웠다 함 외면하고 싶으나 자꾸 생각남
	대물림	나도 부모처럼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까 걱정됨 내가 당한 대로 하고 있음
	방황을 통한 복수	가출을 실행함 문제 학생이 됨
	관계의 실패	결혼을 포기함 시설출신임을 숨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봄
	몸이 먼저 말함	불안을 느낌 분노가 생김 성격이 변함
고통과 마주하기	과거와의 절연	지난일로 괴로워하지 않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용서를 선택함	부모님도 힘드셨을 것임 시설을 집으로 생각함
세상에 고리걸기	동병상련을 경험함	시설에서 만난 동생들을 돌봄 시설 식구들이 제일 편함
	필요를 채움	사랑받음을 느낌 의식주가 해결 됨 하고 싶은 것을 함
	힘이 된 지지체계	고통을 함께 나눔 버팀목이 되어 줌 의논할 사람이 생김
	뿌리 찾기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만남 시설선·후배들의 가족모임에 함께 함
인생을 새롭게 조망함	세월이 약	나이가 들어감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음
	달라진 나	감정에 솔직해 짐 시설출신임을 당당히 드러냄 스스로를 단련함 내 자신이 소중함을 깨달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객관화시켜서 바라봄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함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
	긍정적 정서 생성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김 감사가 나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	이타적인 삶	가장이 되어 책임을 다함 시설동생들을 후원함 사회봉사를 함
	희망을 붙잡음	대학에 진학함 행복한 가정을 이룸 전문직에 종사함
영성이 깊어짐	전능자에게 나아감	신의 섭리에 따름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함.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함

2. 범주의 기술

심층면담을 통해 외상 후 성장 기준을 충족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인터뷰 내용을 통해 분석 된 결과를 가지고 외상 후 성장을 설정하였다. 범주의 기술은 8개의 범주가 개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은폐되어 있는 것을 언어를 통해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해석학적 범주의 기술은 텍스트가 말하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의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참여자들의 경험적 범위 안에서 참여자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심층적 의미까지 파악하여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 드러내 주는데 초점을 두었다.

가. 변방에 서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하였고,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인해 상처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경험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기대했던 안정감을 얻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로부터 '엄마가 가출함',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림'으로 개념을 도출하여 이는 '보호자가 없음'으로 하위 범주화되었고, '이유 없는 체벌을 당함',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은 '막다른 골목'으로 하위 범주화되었다. 이와 같이 '보호자가 없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참여자들에게 드러나면서 이들은 극도의 불안, 공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처럼 참여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영육간의 상처받은 감정과 불안을 부각하고자 '변방에 서 있음'으로 해석하였다.

(1) 보호자가 없음

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모의 가출을 경험한 참여자는 부를 미워하는 것 보다 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아프게 생각하여 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등 모의 가출로 인한 상처를 드러냈다. 이는 학대를 직접 가한 부보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더 깊었으며,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엄마는 제 기억으로는 아빠 가정폭력에 못 이겨서 나가셨다가... 나가셨는데... 나갔다가 며칠 뒤에 들어오시곤 그랬는데... 아빠가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이 계속 되니까 제가 여덟 살? 이 정도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설에 들어왔고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시설에 딱 한번 찾아오고 그 뒤로 못 봤어요.-중략- 엄마가 지금 찾아온다고 해도 그런데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참여자 1)

"그냥 맨날 아빠한테 맞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고 살고 또 아빠가 자고 있을 때는 다른 가족들이랑 언니랑 이웃집에 가서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집에 있는 거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맞고 나가고 맞고 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참여자 2)

"항상 집안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터졌으니까 ... 가면 갈수록 힘들어졌죠. 일단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때리시니까 때리고 괴롭히시니까 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 없고 하니까 당하고만 있었고 ..."(참여자 3)

(2) 고통이 심해짐

외상 사건들은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였으며 이들은 아직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이상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의 학대는 참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으며, 이것을 호소할 주변의 자원들도 없었고 참여자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폭력을 고스란히 견디는 것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폭력을 피할 곳이 없고 시간이 가도 줄어들지 않아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

"그냥 맨날 아빠한테 맞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고 살고 또 아빠가 자고 있을 때는 다른 가족들이랑 언니랑 이웃집에 가서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집에 있는 거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맞고 나가고 맞고 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참여자 2)

"항상 집안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터졌으니까 ... 가면 갈수록 힘들어졌죠. 일단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때리시니까 때리고 괴롭히시니까 힘도 없고 하니까 당하고만 있었고 ..."(참여자 3)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고통은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입소한 낯선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시작되었으며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오롯이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었다. 이들은 시설입소 전까지 집단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들이 학대로 생각할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엄격한 규칙과 많은 규정들만으로도 상처가 되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선배들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마치 군대와 같은 모습에 시설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시설입소 후 더욱 힘들어진 시설생활로 인해 자신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집단시설생활의 상처경험은 참여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전의 원가족 생활에서는 한 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였다.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무서웠어요. 군대 가면 군기가 확 잡힌다 하듯이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제가 하루 맞았는데 군기가 들었어요."(참여자 6)
"많이 힘들었죠.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죠. 요즘은 단체생활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하물며 군대에서 구타 같은 것도 있는데 단체생활에서. 어떻게 됐든가 많이 힘들죠.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은 아니죠."(참여자 7)

참여자는 영아 때 부모로부터 유기를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시설장을 어머니로 생각할 만큼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시설장은 참여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신을 오해하여 체벌을 당하게 된다. 그로인해 참여자는 자신이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참여자는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은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시설은 좁고. 저희 또래가 살았을 땐 120명이 살았어요. 놀다가 옛날에 부엌이 유리잖아요. 그걸 내가 깨지 않았는데 내가 누명을 쓴 거죠. 어머니가 나만 체벌하신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 어머니(시설장)를 제일 존경했고 제일 좋아했는데 엄청 맞았어요. 어머니(시설장)한테. 무슨 근거 없이. 누구 한사람 말만 믿고 때린 거예요. 그게 가장 상처가 됐고 어머니(시설장)를 믿었기에 내 어머니(시설장)라고 생각하고.. 엄청 맞았고. 또 한 가지는 사춘기 때 부모님을 찾고 싶다 했을 때 엄청 야단맞았어요. 그게 두 번째에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참여자 10)

나. 주홍글씨가 새겨짐

참여자들은 시설입소 전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었고, 이런 상처경험을 안고 입소한 시설생활에서도 참여자들의 삶은 녹녹하지 않았는데 전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집단생활에 따른 엄격한 규칙과 선배들의 이유 없는 폭행 등으로 다시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시설생활은 참여자들에게 시설아동이라는 혹은 시설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여 일반아동과 다른 존재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편견을 느끼게 했고, 참여자들 스스로도 시설아동이라는 자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낙인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로부터 '나만 시설에 살게 됨', '성격이 소심해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함'은 '자기낙인'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시설출신이라는 꼬리표', '고아라고 불림'의 개념을 도출하여 이를 '사회적 낙인'으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낙인',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지울 수 없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낙인이 부여 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음과 시설출신이라는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처럼 참여자들의 외상경험으로 인한 낙인에 대한 부분을 부각하고자 '주홍글씨가 새겨짐'으로 해석하였다.

(1) 자기낙인

그러나 이들 중 버려짐에 대해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는 형제들 중 유일하게 자신만 시설에 보내져 버린 경우 자신만 버려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상처가 되었다. 또한 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모의 가출을 경험한 참여자는 부를 미워하는 것 보다 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아프게 생각하여 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등 모의 외면으로 인한 상처를 드러냈다. 또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자꾸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라 힘들어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변방에 서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각기 달랐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상처를 덜 받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대를 직접 가한 부보다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모에 대한 상처를 더 드러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시설생활로 인해 스스로 자기낙인을 부여했다.

"공부도 그랬지만 친구들의 놀림은 좀 그랬어요.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 어릴 적부터 남들은 엄마가 뭐해줬다 이것도 해줬다 하는데 우리는 원에서만 해주니까 좀 그랬어요. -중략- 또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고아원 산다고 놀려대면 좀 그래서 그런 게 싫었죠. 그래서 소심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8)

"그때 제가 혼자가 아니고 형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저만 시설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나만 버렸는지…… -중략- 그냥 가족들이 그때는 아무도 안 찾아오고 하니까 혼자인 거 같고 다른 애들은 나가면 갈 데라도 있는데 저는 그때는 없는 거 같아서 -중략- 엄마는 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냥 한 번도 안 찾아오니까, 없는 줄 알고 한 두 번 만났는데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 나한테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누나랑 같이 가면 작은 누나만 챙기고 어색했어요."(참여자 5)

참여자들은 원가족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때도 별다른 저항 없이 고스란히 견디었으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병들고 늙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 직원과의 갈등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참여자는 이를 두고 자신의 소극적 성향 때문에 늘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이 할 말을 하지 못한다.

"저는(한참 머뭇거림)... 그 전에 엄마랑 아빠랑 살 때요? 음~ 엄마랑 살 때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랑 떨어져 살고(엄마가 가출함) 아빠랑 살 때는 집이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이 무서워가지고 자주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략- 전…….그냥…….성격도 소심해지고 또 무섭죠. 아빠한테 아빠랑 같이 있는 거 자체가 무섭고 아빠한테 이제 친근감도 없어지고 멀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략- 저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소심한 면이 있다 보니까 ...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인사는 하는데 ..."(참여자 2)

참여자들은 자신이 친구들과는 다른 경험을 한 것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서로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자들은 스스로 먼저 친구를 멀리하거나 자신을 감추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자신의 고민과 문제들을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해 친구관계가 폭 넓지 못한 경향이 나타났다.

"학교 친구들은 친한 애들은 그래도 많이 편하게 하긴 하는데 이런 집안 이야기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대학교 친구들은 아직 몰라요. 기회가 되면 말했을 텐데 그런 거 이야기 할.. 그 정도 친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사는지 궁금해 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참여자 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사회적 낙인

참여자들은 시설입소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부모도 없는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지한 것 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의해서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더 크게 인식하였다. 이처럼 시설생활은 참여자들에게 시설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했고 이러한 시선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기낙인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집에서 벗어 나온 것도 좋긴 좋았는데 처음 저 혼자 들어왔을 때는 혼자 들어와서 무섭고 또 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때는 그런 낙인이 있잖아요. 제가 들어오면 저부터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전부다 고아들이고... 들어오니까 있기 싫고 막 처음엔..."(참여자 3)

"그렇죠. 조금 성장해서 동네 지나가다 보면 학교 또래들이 제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학교 친구들이 피하잖아요. 선후배 관계가 옛날에는 엄했으니까. 그 정도로 학교 친구들이 없어요. 늦게 다녔고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고아원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아이들의 편견이 심했어요. 저희 때는 당연히 저희하고는 안 어울리죠."(참여자 10)

다. 과거에 붙들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경험은 참여자들에게 굴레를 씌우게 되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이되어 결혼에 대한 불안과 자녀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 해체를 경험한 이들은 부부역할 및 부모역할에 대한 모델을 습득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외상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며 주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가정의 해체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경험은 방황을 통한 복수라는 역기능적인 감정과 행동을 불러일으켰다. 방황을 통한 복수는 부모와 사회를 향한 몸부림과도 같은 것으로 관계의 실패가 가진 사전적의미를 살펴보더라도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받고 싶은 심리적 자원의 빗나간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웠다 그리웠다 함', '외면하고 싶으나 자꾸 생각남', 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나도 부모처럼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까 걱정 됨', '내가 당한 데로 나도 하고 있음'은 '대물림'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가출을 실행함', '문제 학생이 됨',은 '방황을 통한 복수'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결혼을 포기함', '시설출신임을 숨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봄'은 '관계의 실패'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불안을 느낌', '분노가 생김', '성격이 변함'은 '몸이 먼저 말함'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감정', '대물림', '방황을 통한 복수', '관계의 실패', '몸이 먼저 말함'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외상경험 때문에 겪게 되는 심리적 반응과 이로 인한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구자는 이처럼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경험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부각하고자 '과거에 붙들림'으로 해석하였다.

(1) 혼란스러운 감정

원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경험과 시설생활에 따른 상처의 굴레는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기억들은 절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으며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기억이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참여자들은 감정이 요동침을 경험하였으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미웠던 부모가 다시 그리워지기도 하였다.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은 용서 하면서도 부모는 용서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싶으나 여전히 퇴소 후 현실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부모가 미우면서도 그리워한다. 스스로 시설입소를 선택했던 참여자들의 경우도 여전히 부모가 빨리 가정을 회복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으나 부모가 그러지 않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답답해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다른 사람은 용서가 되나 부모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외면하고 싶으나 자꾸 생각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싫었어요. 좀 우리가 가정이 어려워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술 드시고 우리 때문에 드신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열심히 사셔서 돈을 모아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중략- 그렇지만 아빠가 예전처럼 우리를 때리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 컸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고 싶기도 하지만 아직 아빠는 그럴 형편이 못된 것 같아서 좀 그래요."(참여자 1)

"선배들한테 맞는 거랑 그게 제일 무서웠죠. 힘들었죠. 나를 보호할만한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데 나보다 힘이 센 누군가가 나를 힘으로 제압할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못해요.-중략-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는 재미있을 때도 있었어요. 선배들에게 맞는 것 자체는 무서웠지만 다 같이 노는 것은 재미있었어요. 동생들과 친구들과 놀이하고 뛰어 놀고 그건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6)

참여자들에게 과거의 외상경험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좋은 기억들만 기억하려고 하였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리고 가출한 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참여자는 어머니가 해 주신 음식에 대한 아련한 추억으로 인해 그때를 가장 좋은 기억으로 떠올리기도 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그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신을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등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데로 긍정적으로 기억하려고 한다.

"엄마 계셨을 때 수제비 같이 만들었던 것, 아니면 저 운동회 할 때 엄마랑 같이 운동했었을 때? 그게……제일……좋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2)

"엄마를 엄청 미워는 했죠. 어렸을 때는 그 뭐야 잠깐잠깐 어머님 오면 엄청 좋더라고 잠깐이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중략- 1년에 한번정도 오셨는데... 그때는 뭐 일단은 약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자유시간이 있고 보호 하에 나가니까 잠깐 뭐 간단하게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자장면이라도 먹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헤어지고 들어올 때 가기는 싫죠. 그냥 따라가고 싶고 울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애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따라가고 싶죠. 그때는 제가 아니까."(참여자 7)

또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교성적도 좋지 못하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학교생활을 즐겁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시설생활을 폭력이 난무한 곳으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시설생활 중 선배들로부터 받은 물리적 폭력 이외에는 친구들도 많고 너무나 즐거웠던 생활로 기억하는 등 기억이 부분마다 다르게 입력되어 조각난 기억 들 중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저에게는 시설이 집이죠. 어렸을 때 집에서 산 기억도 없고 워낙 어렸을 때 들어와서 시설에서 산 것 밖에는 기억나지 않아요. -중략- 엄마를 만났는데 저를 반갑게 해 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참여자 5)

(2) 대물림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자녀들도 경험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였으며 이러한 유전을 끊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신도 어쩔 수 없게 결혼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 돌본다. 이들은 모두 어렵게 가정의 해체로 인해 다시 일군 가정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하였고 결혼을 한 참여자의 경우 아내가 하고 싶은 데로 모두 해주고 있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저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우리 서로 힘들게 만났고 한번 씩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두 번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실은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만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안가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은 늘 교회에 가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참여자 10).

참여자등은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으며 나도 부모처럼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의 실패는 자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며 이는 자신과 동생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재혼을 선택한 어머니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모든 여성에게 투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좀 못나서 사업도 잘 안되고 실패하고 저 자신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남의 인생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생활을 잘 할 자신도 없고… "(참여자 7)

참여자들이 당황했던 부분은 시설생활에서 자신이 이유 없이 체벌을 당하였던 것처럼 자신도 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번쩍 정신이 들었다. 자신이 학대 받았던 것을 학습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으면서 잘못된 것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제 제가 지금 집에서 제일 첫째잖아요. 음 … 한 번씩 애들한테 옛날 형들 모습 보이는 거 나 스스로 너무나 싫었던 그 모습의 형들을 그대로 닮아서 또는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동생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나를 볼 때 그게 가장 잘못하고 싫고 그래요."(참여자 3)

"생활할 때 특별히 뭐 잘했다는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저도 뭐 시설에 살았을 때 아마 그게 저도 모르게 좀 대물림이라고 말해야 될까? 저도 물론 아래 후배들도 때린 적도 있고 규율을 잡은 적도 있어요. 전통이라기보다는 순리대로 내려와 버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참여자 6)

(3) 방황을 통한 복수

연구 참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다가온 가정의 해체는 일순간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태풍이 지나간 후 잔해처럼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어 버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그저 일이 진행되는 데로 묵묵히 고통을 견디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참여자들은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일로 인해 견디다 못해 가출을 감행하는 등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

“그냥 맨날 아빠한테 맞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고 살고 또 아빠가 자고 있을 때는 다른 가족들이랑 언니랑 이웃집에 가서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집에 있는 거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맞고 나가고 맞고 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참여자 2)

“항상 집안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터졌으니까 ... 가면 갈수록 힘들어졌죠. 일단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때리시니까 때리고 괴롭히시니까 힘도 없고 하니까 당하고만 있었고 ...”(참여자 3)

“지금...엄마 상황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돼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말을 안 해요.”(참여자 5)

“학교 다닐 때 공부에 너무 관심이 없었죠. 맨날 놀기만 했어요. 사고치고… 그래서 퇴학당할 뻔도 했어요.”(참여자 6)

스스로 시설입소를 결단한 참여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다잡고 규칙도 많고 엄격한 집단시설생활에 스스로 적응해 가기로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지만,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참여자들의 경우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일탈을 경험하며 또 다른 형태의 혹독한 사회의 신고식을 학교와 사회생활을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상처경험으로 인해 부모나 시설의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자주 빠지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등 일부러 삐뚤어지는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가 원하는 데로 들어주지 않거나 바르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어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저는 시설에서 그냥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정기교육도 있고 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니까 물론 도중에 생활을 포기하고 나간사람도 많이 있죠. 도망가가지고 더 안 돼 가지고 오고. 불과 15살이나 16살 그면 그 애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까. 가면 할 일이 없어요."(참여자 7)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무서웠어요. 군대 가면 군기가 확 잡힌다 하듯이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제가 하루 맞았는데 군기가 들었어요."(참여자 6)

"엄마는 제 기억으로는 아빠 가정폭력에 못 이겨서 나가셨다가 나가셨는데 나갔다가 며칠 뒤에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 아빠가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이 계속 되니까 제가 여덟 살? 이 정도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설에 들어왔고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시설에 딱 한번 찾아오고 그 뒤로 못 봤어요. 엄마가 찾아온다고 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참여자 1)

(4) 관계의 실패

참여자들은 과거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관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 시 주도적이지 못하며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거나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자심감이 없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친구들은 몰라요. 솔직히 퇴소도 얼마 안 남았고, 거기에 살날도 얼마 안 남았고 ..."(참여자 1)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은 숨기려고 하는 등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시설출신임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학교 친구들은 친한 애들은 그래도 많이 편하게 하긴 하는데 이런 집안 이야기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대학교 친구들은 아직 몰라요. 기회가 되면 말했을 텐데 그런 거 이야기 할.. 그 정도 친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사는지 궁금해 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참여자 5)

또한 참여자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으며 시설출신임을 감추고 싶어 한다. 참여자들은 힘든 시설생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과거의 기억과의 끊어냄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시작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가 좀 못나서 사업도 잘 안되고 실패하고 저 자신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남의 인생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생활을 잘 할 자신도 없고…"(참여자 7)

참여자들은 그리웠던 가족을 만났지만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지도 환대하지도 않는 어머니를 향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며 더 이상 소식도 궁금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혼자이며 자신의 삶은 이제 스스로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엄마는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어요. 왜 누나는 데려가고 저만 시설에 버렸는지 말해 주지도 않아요. 전에 엄마 집에 갔을 때도 누나만 챙기고 저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저랑은 말도 잘 안 해요. -중략- 형제들과는 그래도 연락도 하고 지내지만 동생들한테는 엄마 있어서 가기 싫다고 얘기하고 엄마 있는 집엔 잘 안가요."(참여자 5)

(5) 몸이 먼저 말함

외상경험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무서움과 분노 등을 느끼는가 하면 오히려 성격적인 측면으로는 더 소심해 지는 등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성격이 변했다. 이들이 경험한 외상들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몸과 성격적인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들을 나타내었다. 불안을 느끼거나 분노가 생기며 성격이 변한 것을 알게 된다.

"저는(한참 머뭇거림)... 그 전에 엄마랑 아빠랑 살 때요? 음~ 엄마랑 살 때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랑 떨어져 살고(엄마가 가출함) 아빠랑 살 때는 집이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이 무서워가지고 자주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2)

"전…….그냥…….성격도 소심해지고 또 무섭죠. 아빠한테 아빠랑 같이 있는 거 자체가 무섭고 아빠한테 이제 친근감도 없어지고 멀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략- 저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소심한 면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니까...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인사는 하는데 ..."(참여자 2)

참여자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정신질환을 알고 있던 어머니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시설생활에도 잘 적응하며 어머니와도 정기적으로 만나 등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성인이 되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던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다.

"그런데 저는 제게 형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누나가 잇다는 걸 알게 되었죠. 좀 배신감이 들었어요. 누나들이 있는데 나는 어려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나를 기억했을 텐데 나를 그렇게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났어요."(참여자 9)

라. 고통과 마주하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경험 뿐 아니라 집단시설생활에 따른 외상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싶으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었던 시기에는 자신의 생각의 폭이 좁아져 있어서 이해를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를 위한 고통을 물리치려는 노력은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단계이지만 이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단계에서는 상처를 붙잡고 있을 수 있다. 경험에 대한 반응도 고통을 물리치려는 노력에 해당 될 수 있다. '과거와의 절연', '새롭게 이해함'은 고통과의 싸움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해를 위한 고통을 물리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나 발전적인 이해도 있지만 지난 상처경험을 외면해 버리는 것 또한 고통과의 싸움으로 보인다. '더 이상 지난일로 괴로워하지 않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은 '과거와의 절연'으로 하위 범주화 하였고, '부모님도 힘드셨을 것임', '시설이 집이 되어 줌'은 '새롭게 이해함'으로 하위 범주화 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와의 절연', '용서를 선택함'을 통해 참여자들은 원가족과 시설에서 경험한 외상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며 이해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과거와 잘 이별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묻어두는 것이 아닌 잘 해결해 가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해 '고통과 마주하기'으로 해석하였다.

(1) 과거와의 절연

참여자들은 더 이상 지난일로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과거에 상처를 입혔던 존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는 등 지난날에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일들은 돌이킬 수 없으니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현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너무 어렸을 때라서 생활했던 기억이 나질 않았는데 대학교 입학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어머니 말고 가족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형, 누나가 있었냐고 물으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모두같이 살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꾸만 날 때려서 너무 불쌍해서 나를 데리고 00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오셨데요. 누나가 같이 살 때 절 엄청 많이 예뻐했다고 하는데 내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원으로 찾아오지 않았단 것에 진짜 배시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 뿐이고 내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여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중략- 어렸을 적엔 왜 내가 시설에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도 제 걱정만 하시는 걸 보니 마음도 아프고 편안히 잘 모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참여자 9)

참여자들은 과거에 더 이상 억매이고 싶지 않으며 현재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비록 과거의 경험이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이 흐려지거나 그들을 모두 이해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들에게 악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막내였으니까. 그런다 해서 선배들 간에 문제가 있었으면 중재를 했거든요. 미움 받을 행동도 안했고 특별히 잘난 무엇도 안했고. 선배들과의 관계는 원만해요. 지금도 자부해요. 맞은 적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풍습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선배들한테."(참여자 10)

(2) 새롭게 이해함

참여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과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과거를 충분히 이해할만한 나이가 되었고 자신의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이해를 통해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부모를 돌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통해 부모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임을 깨닫고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을 버린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친구들을 보니 아버지 안 계셔도 어머니랑 지내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랬을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30대 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 저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는 마음이 들더라고요."(참여자 7)

"제가 직장 때문에 멀리 있고 보니까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내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통화를 할 때 마다 제 걱정을 하시고 제 앞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부담 안주려고 엄마 늙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 걱정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참여자 9)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유를 깨달으며 시설을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자는 원가족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곳이 자신이 집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곳이 원가족이 아닌 시설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렸을 때 집에서 있었던 기억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서 들어와서 시설을 집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힘든 건 없었어요. 사춘기 때는 방황도 했지만 그래도 가출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9)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집' 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는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을 흐름을 받아들인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소위 갈 데도 없으니까. 그때 그 무렵에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중략- 마음은 있는데. 지금에 와서 50이 다 되었는데 찾기도 뭐하고. 그런다 해서 잘 살든 못살든 서로에게 저기니까.. 오죽했으면 날 버렸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찾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도 보면 나이 들어서 과연 부모님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아직도 있어요. 찾고는 싶은데 이제 근거도 없다보니까 그냥 내 가족에게만 충실하자 지금은."(참여자 10)

마. 세상에 고리걸기

참여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시설생활자들과 서로 어려움을 나누거나 공감을 나누며 위로하였으며, 시설에서 만난 동생들을 돌보거나 시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인해 세상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으며, 세상을 향해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 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다시 나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동병상련을 경험함'은 '시설에서 만난 동생들을 돌봄', '시설 식구들이 제일 편함'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필요를 채움'은 '사랑받음을 느낌', '의식주가 해결 됨',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힘이 된 지지체계'는 '고통을 함께 나눔', '버팀목이 되어 줌', '의논할 사람이 생김'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뿌리 찾기'는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만남', '시설생활경험자들의 가족모임에 참여함'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다. 이와 같이 '동병상련을 경험함', '필요를 채움', '힘이 된 지지체계', '뿌리 찾기' 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성장의 원동력이 된 요소들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자기 삶을 바라보는 절박한 심정과 삶의 주체에 대한 인식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세상에 고리걸기'로 해석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동병상련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경험이라는 동일한 공통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한 어려움들로 인해 시설에서 만난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으며, 시설 식구들을 제일 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참여자들만의 경험세계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힘든 상황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었다.

"부모님한테 배워야할걸 못 배웠는데 들어와서 이제 막 저희 집에 살 때는 내 동생들만 내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동생들만 챙겨야 돼. 좀 나눠줄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들어와서 교회도 다니면서 그런 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 동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

"친구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왜 네가 거기 살면 어때서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하면서 서로 다독여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살면서 우울하지도 않고 우울한 적도 없고 힘든 적도 없고 그래요 주변에 연락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중략- 대학 때 교수님께서 꿈을 더 크게 가져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라 혼자 생각하지 말고 너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인제 인맥이 조금씩 넓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쭉 연결되면서 아 내 옆에는 정말 든든한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두 그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참여자 8)

"다행이 난 정말 좋은 친구들은 만나 지금까지 올수 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꿈을 갖기도 하며 함께 키워나갔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지탱해준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무엇이 되겠다고 이야기도하며 꿈을 갖게 되며 이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날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 같아요."(참여자 9)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필요를 채움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 주는 요인이 되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인해 학령기에 입소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지원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원가족 생활 속에서 물질적으로 항상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시설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풍족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참여자들을 안도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아나기기 시작한다.

“어 ... 시설에 와서 사모님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그게 제일 살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어느 무엇보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것, 그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는 것”(참여자 1)

“대학 때 교수님께서 꿈을 더 크게 가져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라 혼자 생각하지 말고 너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인제 인맥이 조금씩 넓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쭉 연결되면서 아 내 옆에는 정말 든든한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두 그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 8)

“원래 살던 집은 안 좋은 곳도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고, 찬물로 씻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집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편하게 잘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고 그런 점도 좋고... ... 배울 수 있는 것? 배우고 싶은 것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음, 지금처럼 학원도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고 학업에도 충실히 잘 해서 나중에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참여자 2)

참여자들은 시설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고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더 풍족한 시기에 입소한 20대의 참여자들은 만기퇴소를 선택하지 않고 연장신청을 함으로써 미래를 좀 더 충실히 준비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시설생활 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들로 인해 힘들었던 시설생활이지만 견딜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남들보다는 더 떳떳하게 나는 성공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공순이 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 대학을 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중략- 저는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땡땡이를 쳐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죠. 이게 조금씩 하다보니까 더 폭이 넓어지니까 사회생활에서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피아노를 남들 앞에서 칠 수 있게구나! 이런 마음 이제 악보를 보면 피아노 칠 수 있을 정도로 됐으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참여자 8)

"어렸을 때는 좋았던 적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시설에 있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며 자립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 방면으로 자립지원을 받을게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좋았던 것 같다."(참여자 9)

(3) 힘이 된 지지체계

참여자들 중 형제와 함께 입소한 경우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고통을 함께 나누어준 형제와 자신이 잘 되어 형제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형제가 함께 입소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일 생겨도 서로를 의지하며 고난을 함께 이겨낸다. 또한 새로운 나의 가족이 생긴 이후 참여자들은 가족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 더욱 더 세상살이에 고군분투한다.

"제가 챙겨줄 수도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볼 수도 있고, 동생들이 제가 한 눈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좋았어요. 나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같이 오니까 이곳도 내 또 다른 집이겠다. 라고 하는 생각했어요. 낯선 공간이긴 하지만 동생들이 같이 있는 공간 그래서 힘이 좀 됐고"(참여자 1).

"제가 잘 잘 모범적이어야 그 아래에 있는 동생들도 잘 보고 배울 것이고 또 제가 성공해서 자리를 잡아야만 동생들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 때문에 잘 버틴 거 같아요."(참여자 2)

참여자들은 시설에 와서 관심을 받는다는 것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으며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다. "어느 무엇보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것, 그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는 것"(참여자 1)처럼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믿어주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또한 좋은 친구와 선생님, 교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미운오리새끼가 아닌 사랑 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힘든 상황들을 이해 받으며 지원해주는 지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의 구성원들, 시설의 직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대학의 교수님,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자원봉사를 오신 지역주민 등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암울했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밝고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주변의 사회적 자원들로 인해 더욱 안정된 삶을 알아가게 된다.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를 아세요. 원에 살았던 나를 너무 예뻐하셨던 분이 있어요. 출석 안 해도 출석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상담을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공부는 못했어요. 언니오빠들이랑 살다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내 스스로 대학교 가는 것도 선생님들 덕분에 내 돈으로 벌어서 가게 됐고, 계속 대화했어요.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참 당당하고 참하고 그런데 사는 줄 몰랐데요. 예쁘고 밝고 항상 씩씩하고 항상 보면 웃으면서 안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너무 낮게 가직 말라고 꿈을 더 크게 가져보고 더 사람을 만나봐라 혼자 생각하지 말고 너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 어떻게 되든 만나보라고 그래서 교수님계기로 만나보니까 차 한 잔 하면서도 이렇게 자리 만들면서 했죠. 그랬더니 인제 인맥이 조금씩 넓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쭉 연결되고 하면은 아 내 옆에는 정말 든든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혼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구나! 교수님 계기로 이렇게 된 거예요."(참여자 8)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딸을 혼자 키워오면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내하고는 아이들 때문에 만났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아내도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딸이 둘 있어요. 딸들이 연결해 준 거죠. 큰 딸은 28이고 함께 살고 있어요."(참여자 10)

(4) 뿌리 찾기

참여자들은 비록 어려운 환경가운데서 자랐지만 결국 자신들이 고향처럼 여기며 돌아갈 곳은 원가족과 시설임을 깨닫게 된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학대를 피해 입소한 시설이었지만 결국 다시 아버지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있으며 시설생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시설을 통해 받은 서비스로 인해 자신들이 이만큼 성장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당시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설의 생활자들과 가족모임을 통해 현재 시설에서 살고 있는 후배들을 후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는 가끔 만나요. 명절 같은 때는 항상 집에 갔죠. 아빠 혼자 계시니까. 요즘에 느끼는 건데 뭔가 아빠가 초라해 보이거나 늙으셨잖아요. 뒷모습이 조금 그랬어요. 마음이 좀 그래요. -중략- 만나면 매번 동생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화는 많이 안하고 그냥 밥 먹거나 아빠가 요즘에는 동생 얘기 많이 해요. 동생이 취업한다니까 아빠는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취업한다니까 그런 거 좀 반대하시는데 그런 얘기들 나누죠."(참여자 2)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이들도 데리고 가요. 아빠가 함께 살았던 삼촌들, 이모들이다 라고 소개도 시켜주고... 옛날 일들 얘기하면 이렇게 만나는 모임만큼 마음편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도 얘기하고..."(참여자 6)

"선배들 모임이 있어요. 저희들끼리 하는 한 달에 한번 모이는데 형편 되는 사람들만 모이고 있어요. 잘 살든 못살든 오고 싶은 사람들은 오죠. 가끔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때는 다 어리고 철없을 때라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꽁 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사람은 역시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때렸던 동생들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참여자 7)

바. 인생을 새롭게 조망함

참여자들은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시설친구들에 대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려는 태도도 존재한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의 생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객관화 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약'은 '나이가 들어감',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달라진 나'는 '감정에 솔직해 짐', '시설출신임을 당당히 드러냄', '스스로를 단련함', '내 자신이 소중함을 깨달음'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객관화시켜서 바라봄'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함',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긍정적 정서 생성'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함', '감사가 나옴'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다. 이와 같이 '세월이 약', '달라진 나', '객관화시켜서 바라봄', '긍정적 정서 생성'은 참여자들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해져 감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인생을 새롭게 조망함'으로 해석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세월이 약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통합력이 생기게 된다. 이미 일어나 버린 과거는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일들을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 기억과 함께 상처도 아물어 감을 느낀다. 또한 이들은 시설생활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세상경험을 통해 시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시설이 어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이만큼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되었다. 자신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등 긍정적인 시고를 갖게 된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친구들을 보니 아버지 안 계셔도 어머니랑 지내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랬을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30대 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 저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는 마음이 들더라고요."(참여자 7)

"마음은 있는데. 지금에 와서 50이 다 되었는데 찾기도 뭐하고. 그런다 해서 잘 살든 못살든 서로에게 저기니까. 오죽했으면 날 버렸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찾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도 보면 나이 들어서 과연 부모님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아직도 있어요. 찾고는 싶은데 이제 근거도 없다보니까 그냥 내 가족에게만 충실하자 지금은."(참여자 10)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상처의 경험들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지에 대해 생각하였으며 그때의 자신의 선택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같은 환경아래 있었어도 다른 선택을 통해 힘들어진 친구들도 보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냥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정기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도중에 생활을 포기하고 나간사람도 많이 있죠. 도망가가지고 더 안 돼 가지고 오고. 불과 15살이나 16살 그면 그 애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까. 가면 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이 없어요."(참여자 7)

"저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들에게 악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막내였으니까. 그런다 해서 선배들 간에 문제가 있었으면 중재를 했거든요. 미움 받을 행동도 안했고 특별히 잘난 무엇도 안했고. 선배들과의 관계는 원만해요. 지금도 자부해요. 나가서 보면 선배들끼리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재역할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이 사람도 친해 저 사람도 친해 저는. 악감정 있는 사람들. 그런다 해서 선배들한테 맞는 거나! 하는 것을 별로 없어요. 맞은 적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풍습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선배들한테 -중략-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살았어도 반항하지 않고 뭐할까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아마 받아들였다는 것이 지금 나의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삐딱하게 나가고 그랬더라면. 선배들도 보면 삐딱하게 나간 선배들도 많아요. 그걸 보고 해서 그런지 .. 술 먹고 어영부영 하는 선배들 많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내 자신에게 자꾸 심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10)

(2) 달라진 나

참여자들은 더 이상 지난일로 괴로워하지 않으며 과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자신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게 되고 인내심을 갖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일들을 성장으로의 통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발견해 내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누구의 인생도 아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한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자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강인함의 발로이다.

"음 ...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성질 있으니까 못 참을 때도 있었는데 힘이 안 되니까 그럼 더 맞고 그랬었는데 그냥 분출하거나 꾹 참고 싸우고 대들고 근데 분출했을 때는 괜히 몇 대 더 맞고 내가 폭력을 불렀구나! 기분도 안 좋고 오히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더 분하더라고요."(참여자 3)

"욕심을 버려야 할 거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맞게 살면서 하나하나 주위를 둘러보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떠돌이 생활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애들이 의지력이 많이 약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꾸 채찍질을 해 가면서 남한테 의지해 나가는 것 보다는 스스로 강하게 마음먹고 생활하면 나중에는 가장 큰 힘이 될 거 같아요. 자기가 강한 의지를 목표를 세워가면서 한다면. 그러다 보면 자질구레한 일을 많이 하겠죠. 그게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광고 일을 처음 할 때 손에 핸디캡이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남들이 안하는 것을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직원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일부러 했어요. 그러면서 다독 거려 가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지금 보면 광고일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람들도 인정해주니까 감사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꺼려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하나 디딤돌 삼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성공의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참여자 10)

참여자들은 비록 자신을 버렸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양육을 포기하고 재혼을 선택한 부모라 할지라도 더 이상 부모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건 시간이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기 보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상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다보니 부모를 이해하게 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적극적인 용서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친구들을 보니 아버지 안 계셔도 어머니랑 지내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랬을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30대 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 저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는 마음이 들더라고요."(참여자 7)

"마음은 있는데. 지금에 와서 50이 다 되었는데 찾기도 뭐하고. 그런다 해서 잘 살든 못살든 서로에게 저기니까.. 오죽했으면 날 버렸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찾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도 보면 나이 들어서 과연 부모님 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고 형제자매가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아직도 있어요. 찾고는 싶은데 이제 근거도 없다보니까 그냥 내 가족에게만 충실하자 지금은."(참여자 10)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시설출신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지난날의 힘들었던 자기와도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장애도 있으며,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출신임을 당당히 드러냄으로써 위축되었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견고히 해나간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인생의 막다른 생경한 골목에서의 선택에 대한 결단은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하였다.

"시설에서 산 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픈하지 못할 것도 없죠. 오히려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제가 시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냐고 -중략-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를 아세요. 원에 살았던 저를 너무 예뻐하셨던 분이 있어요.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참 당당하고 참하고 그런데 사는 줄 몰랐데요. 예쁘고 밝고 항상 씩씩하고 항상 보면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참여자 8)

"초등학교 3학년쯤에 그때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 집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야기 했죠. 아빠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계시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냐고 그 다음부터는 물어 보지 않았어요. 아이가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비록 경제적인 것은 어렵지만 행복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바람은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참여자 10)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를 아세요. 원에 살았던 저를 너무 예뻐하셨던 분이 있어요.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참 당당하고 참하고 그런데 사는 줄 몰랐데요. 이쁘고 밝고 항상 씩씩하고 항상 보면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참여자 8)

"초등학교 3학년쯤에 그때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 집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야기 했죠. 아빠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계시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냐고 그 다음부터는 물어 보지 않았어요. 아이가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비록 경제적인 것은 어렵지만 행복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바람은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참여자 10)

참여자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생활자들의 부적응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나간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살았어도 반항하지 않고 뭐할까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아마 받아들였다는 것이 지금 나의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삐딱하게 나가고 그랬더라면. 선배들도 보면 삐딱하게 나간 선배들도 많아요. 그걸 보고 해서 그런지 .. 술 먹고 어영부영 하는 선배들 많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내 자신에게 자꾸 심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10)

(3) 객관화 시켜서 바라봄

참여자들은 더 이상 지난일로 괴로워하지 않으며 과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자신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게 되고 인내심을 갖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일들을 성장으로의 통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발견해 내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게 된다.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에 와서 50이 다 되었는데 찾기도 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고. 그런다 해서 잘 살든 못살든 서로에게 저기니까.. 오죽했으면 날 버렸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찾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도 보면 나이 들어서 과연 부모님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아직도 있어요. 찾고는 싶은데 이제 근거도 없다보니까 그냥 내 가족에게만 충실하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10)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망쳐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로 인해 현재 자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은 과거에 붙들려 원망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계기라기보다는 어렸을 적에 제가 아빠한테 많이 맞았데요. 그래서 엄마가 이대로 있다가는 애 죽겠다고 생각했데요. 그리고 왜 할머니가 시설에 보내자고 해서 저만 보내게 되었데요. 어렸을 적엔 왜 내가 시설에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도 제 걱정만 하시는 걸 보니 마음도 아프고 편안히 잘 모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참여자 9)

"비록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시설에서 오랜 시간동안 어머니처럼 생각하던 원장님한테 상처도 받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중략- 그게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광고 일을 처음 할 때 손에 핸디캡이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남들이 안하는 것을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직원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일부러 했어요. 그러면서 다독 거려 가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지금 보면 광고일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람들도 인정해주니까 감사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꺼려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하나 디딤돌 삼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성공의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참여자 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긍정적 정서의 생성

참여자들은 시설생활을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자신이 이러한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통해 이후에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감 생성을 통해 자신도 당당히 사회인으로써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한다. “절대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며 꾹 참고 노력”하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희망을 놓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또한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과거의 상처경험까지도 자신을 성장시킨 요인으로 인정하며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그냥 내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도 저 위치에 갔는데 나라고 못가나해서. 다른 사람도 다하는데 왜나라고 못해. 단지 빠른 순간에 부를 누린 사람과 자수성가한사람과 다를 수도 있죠. 시간이 있는데 거기보고가면 누구나 갈 거 같아요.”(참여자 7)

“절대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며 꾹 참고 노력하다 보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어떻게든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참여자 9)

“저는 진짜 지금은 (시설을)그냥 내 집이다(생각해요). 식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니까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식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편하고 좋은데 동생들은 그게 잘 안되나 봐요. 그게 잘 지내는 건데 자꾸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빨리 퇴소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안타깝게 보이기도하고 빨리 나가봤자 고생밖에 안하는데...”(참여자 3)

참여자들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적극적인 용서단계까지는 어려웠지만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시설생활 중 경험한 선배들로부터 이유 없는 폭력은 당했지만 그때는 모두 힘들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며 어린 나이여서 무얼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들을 통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기라기보다는 어렸을 적에 제가 아빠한테 많이 맞았데요. 그래서 엄마가 이대로 있다가는 애 죽겠다고 생각했데요. 그리고 왜 할머니가 시설에 보내자고 해서 저만 보내게 되었데요. 어렸을 적엔 왜 내가 시설에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도 제 걱정만 하시는 걸 보니 마음도 아프고 편안히 잘 모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참여자 9)

"저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들에게 악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막내였으니까. 그런다 해서 선배들 간에 문제가 있었으면 중재를 했거든요. 미움 받을 행동도 안했고 특별히 잘난 무엇도 안했고. 선배들과의 관계는 원만해요. 지금도 자부해요. 나가서 보면 선배들끼리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재역할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이 사람도 친해 저 사람도 친해 저는. 악감정 있는 사람들. 그런다 해서 선배들한테 맞는 거나! 하는 것을 별로 없어요. 맞은 적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풍습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선배들한테."(참여자 10)

참여자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해 내고 있었는데 어떤 참여자의 경우는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참여자는 유기 된 경력으로 인해 부모를 알지 못한 상황이지만 자신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기질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서 정신과적인 질병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있었다.

"제가 춤에 춤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에서 감사한 거 같아요. 아빠한테 있었으면 제가 뭘 잘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빠한테 맞고 그렇게만 살았을 거 같은데 그래도 원에 들어와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배우고 싶은지 알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감사한 거 같아요."(참여자 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금도 감사 하죠 감사하긴 살아있다는 점이 고맙지 갑자기 눈 한쪽만 안보여도 그게 좋겠어요. 항상 고맙지. 먹는 거만해도 얼마나 좋아요."(참여자 7)

"일단 부모님 계시지 않아서 볼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이 나를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 내가 아프지 않고, 장애 없이 손발 눈코 있고, 저는 사람들 만나면 말해요. 나는 정말 잘 태어났다고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눈코 있고 내가 손발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돈 걱정안하고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참여자 8)

"딸을 안겨주신 게 인생에서 가장 고맙죠.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사람이 나갔거든요. 집사람을 인성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그런데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딸을 혼자 키워오면서 그래도 나에게 자식을 하나 주신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0)

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고 그들의 기억과 감정은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고통을 성장의 매개로 활용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성장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경험을 표출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 배려 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상대와 동화하는 것이며 사랑과 인정, 배려를 경험하게 될 때 그들도 더 이상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공존한다. '가장이 되어 책임을 다함', '시설동생들을 후원함', '사회봉사를 함'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타적인 삶'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고, '대학에 진학함', '행복한 가정을 이룸', '전문직에 종사함'은 '희망을 부여잡음'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다. 이와 같이 '이타적인 삶', '희망을 붙잡음'은 참여자들이 외상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했음을 알게 해 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부각시키고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으로 해석하였다.

(1) 이타적인 삶

참여자들은 가장이 됨으로써 책임감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김으로써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게 해 준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자제하며 생활한다. 또한 자신이 성장했던 시설선후배들과의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모임을 통해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어려움들을 후배들과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참여자들은 가장이 되어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오로지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집사람은 엉망이던 제 삶을 다시 일으켜준 사람이에요. 시설에 있을 때는 방황도 많이 하고 공부도 안하고, 폭력사건에도 휘말리고 그래서 퇴학도 당할 뻔 했어요. 그러니 사회 나가서 할 일이 뻔하잖아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죠. 버는 데로 다 쓰고 그러다 아내를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이 사람과 평생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렸죠. 지금도 집사람이 힘들어 하는 건 못 봐요.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애들을 책임지죠. 그때라도 쉬라고 저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하지 않아요. 그게 제 행복을 지키는 길인 것 같아요." (참여자 6)

참여자들은 자신들도 비록 시설생활 중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현재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시설선후배들끼리 한 달에 한번 가족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가족들과도 교류하며 지내고 있었다. 과거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선배들도 이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고 자신이 괴롭혔던 후배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다 한때 철없을 때이므로 서로 추억으로 여기고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기억들은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임은 친목에서만 끝나지 않고 시설동생들을 위해 성탄절에 작은 선물을 하거나 동생들과 캠프를 가거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모임에 가보면 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 모두 철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모두 힘들 때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는 거죠. 미안한건 미안하다 그러면 되고... 그런데 그걸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못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끔 원에 가보면 요즘은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동생들과 가족여행도 함께 가기도 하고,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 그런데 좋죠."(참여자 6).

"지금 저는 저랑 같이 생활했던 선후배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한때는 저를 괴롭히던 선배들을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생각도 했는데 그게 별로 부질없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만나니까 반갑고 철없을 때 일이니까 미안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임에 안 나오죠. 또 가족들끼리 함께 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7).

참여자들 중에는 청년봉사단체의 리더도 있었으며 자신보다 힘든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더 나이가 들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봉사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하였다.

"저는 지금 지역의 청년봉사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는 것은 크게 잘 살지는 않지만 봉사를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사도 하다보니까 중독 같아요. 저는 뭐 결혼도 하지 않아서 혼자 몸이니까 별로 부담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최소한 세상에 태어났으면 남들을 위해서도 살아봐야죠."(참여자 7)

(2) 희망을 붙잡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희망찬 삶을 위해 무언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꿈과 비젼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키우기 시작했으며 그토록 오고 싶지 않았던 집단생활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기퇴소를 하지 않고 대학진학을 통해 퇴소연장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애들은 구속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시설이 싫어서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것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고 싶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꿈을 찾아서 꿈을 좇아서 대학도 나오고 그럼으로써 자기 꿈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중략- 저도 퇴소하고 싶었죠. 그런데 요즘 대학 안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다해야하니까... 하지만 퇴소하게 되면 그냥 공장에서 일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원에서도 대학가라고 하고 저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참여자 1)

참여자들은 비록 지난 시간들 가운데 고통스런 경험을 하였으나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감사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며, 가정은 그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

"저는 퇴소하고도 변변한 직장 없이 웨이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게 아마 서른 살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기술이 있어야죠. 학교 다닐 때도 말썽만 피우고 제가 좀 그랬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와이프를 만나고는 좀 달랐죠.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르게 살기로 마음먹었죠. 지금은 아들딸 낳고 잘살고 있는데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죠. 제 인생을 바꿔 놓았으니까요.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저한테는 가정이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지 않게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참여자 6).

참여자들은 자신이 지난날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직업을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들 중 복지와 관련 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자신들이 보고 자란 어른들이 모두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자연스럽게 복지를 전공하게 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저는 공부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걸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서 시설에 살았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할 때 어른들이 하는 일이 남을 돕는 사회복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도 그걸 하라고 했고요."(참여자 8).

"저도 광고 일을 처음 할 때 손에 핸디캡이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남들이 안하는 것을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직원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일부러 했어요. 그러면서 다독 거려 가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지금 보면 광고 일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람들도 인정해주니까 감사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꺼려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하나 디딤돌 삼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성공의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참여자 10)

마. 영성이 깊어짐

참여자들이 경험한 벼랑 끝에 내몰린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찾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처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으며 또 새롭게 구성 된 가족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신앙심이 깊었으며 무시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는 등 자신을 지탱해 주고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은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자신을 돌봐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신의 섭리에 따름', '가족을 위해 기도함',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함'은 '전능자로 나아감'으로 하위 범주화 되었다.

(1) 전능자에게 나아감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들은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전능하신 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지 생각하여 자신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다시 겪더라도 피할 수 있는 존재로써 자신을 보호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신을 의지하게 된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겠죠."(참여자 1)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대로 따라가는 전능자의 섭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든든한 보호자를 삼는다.

"그냥 제 인생을 바꿔 놨다 할 정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든 점 말하고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면서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매주 찬양대 설 때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참여자 1)

참여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과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잘 버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현재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러한 경험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더욱 깊어져 갔다.

"그냥 어, 좋은 배우자 만나서 힘들지 않고 이제 아픔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잘 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옛날이야기 할 수 있고 좀 화목한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2)

"정말 힘든 일들은 진짜 많았죠. 그렇게 살면서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누가 가자고 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갔거든요 저는 기도보다는 노래(찬양)를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가대를 오래 서봤잖아요. 그게 한 번도 빠짐없이 서보니까 노래실력도 점점 느는 거 같고 기도하기에는 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교회 갔을 때 찬양하는 게 무조건 최고죠. 부르는 저도 기쁘고 찬송가만 불러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참여자 8)

참여자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거나 찬양대를 서거나 청년회 회장 등을 통해 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영성은 더욱 깊어진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과거처럼 능동적이지는 못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인생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깊어져 갔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에게 의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꼭 이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항상 화장실 가면 기도해요. 아침저녁으로 딸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무난히 인생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교회를 안다니지만 그래도 저는 믿어요. 제가 풍족하지 않지만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라고 생각해요. -중략- 제가 젊었을 때는 청년회장도 했어요. 지산동 교회에 10년 동안 다니면서 청년회장까지 했었죠. 지금은 먹고사느라고 매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이잖아요."(참여자 10)

제3절 핵심범주의 구성 :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

핵심범주란 연구에서 나타나는 모든 범주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의미범주들을 통합하는 중심 주제로써 범주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설명해주고, 범주 간 의미를 연결시켜주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 분석을 명료하게 기술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연구대상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연구의 중심 주제이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핵심범주는 연구 현상의 모든 범주를 관통하면서 개별 범주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통합 할 수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범주 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중심으로 범주 간 의미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이 변화해 가는 각각의 단계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범주를 구성한 후 참여자 경험 전반을 기술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행동, 생각, 심리적 변화 등을 좀 더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정분석에 필요한 변화의 단계를 발견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8] 따라서 앞 절에서 다른 해석학적 범주의 기술이 개별범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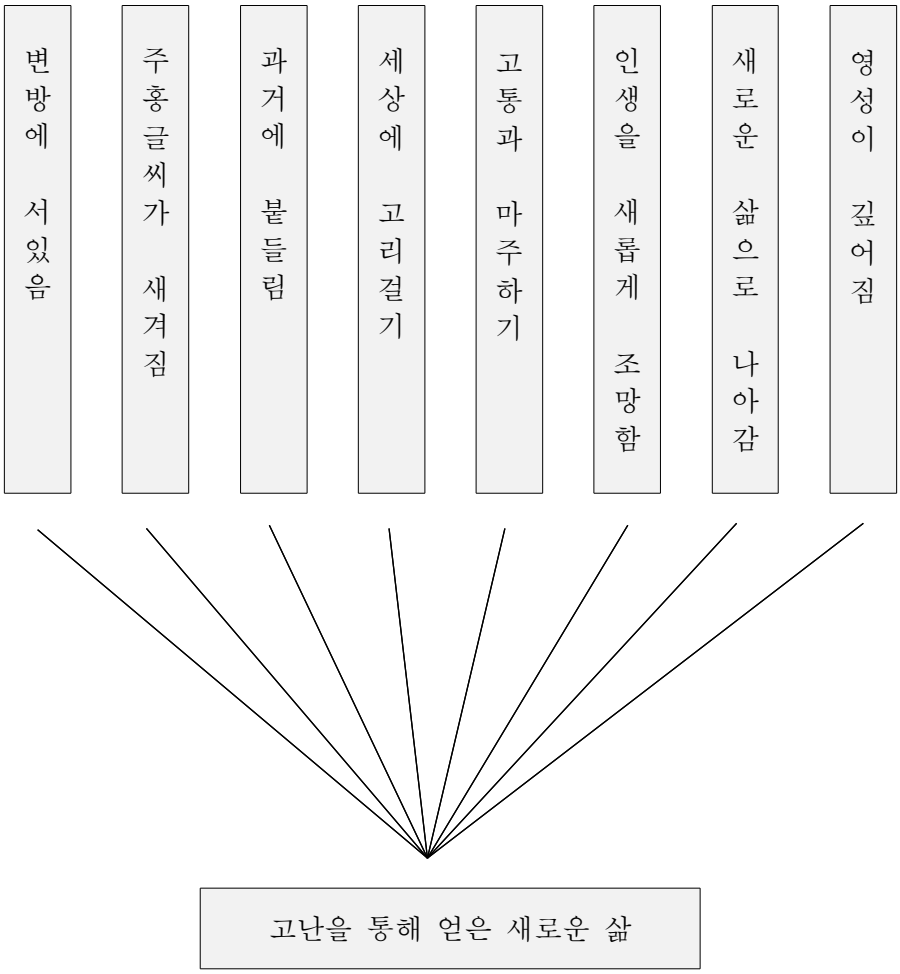
8) Glaser(1992)는 핵심범주란 기본적 사회적 과정과 연결된다고 보고, 근거이론의 초점이 이러한 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핵심범주는 가능한 많은 범주들과 그들의 속성에 관련되면서 다른 범주들을 통합 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범주는 과정의 초점을 두면서 명확한 단계와 국면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징후를 포착하여 그 속에 은폐된 내적 의미를 드러내 주는데 초점을 둔다면, 핵심범주의 구성은 개별범주 간 의미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범주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단계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의 구성은 범주의 구성과 기술을 통해 이들의 경험전반을 이해하면서 이 8개 범주 전체를 아우르고 함축적으로 포화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핵심범주를 구성한 뒤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거쳤다.



<그림 5>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에 대한 핵심범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연구 참여자 7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고통당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처를 회복하였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는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버려짐에 대한 상처경험을 하였으나 이후 어머니를 미워하는 감정이 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기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되어 고통을 통해서 더 끈질긴 생명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가정의 해체이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설이라는 환경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참여자들은 시설생활을 벗어나고 싶지만 견뎌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 어려운 현실을 제공한 시설을 원망하기보다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시설을 통해 자신이 더 단단해 질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참여자 10은 원가족 생활과 시설생활 사이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정서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원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수록 시설생활에 대한 불안과 갈등이 교차하는 모순된 심리적 뒤엉킴으로 나타난다. 이 뒤엉킴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복잡하게 표출하면서 원가족의 외상경험과 시설생활에서의 외상경험으로 인한 각인 된 상흔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참여자들의 원가족 외상경험과 시설생활 중 겪게 된 상처경험의 총체적 과정을 가장 잘 상징화 시켜줄 수 있는 범주로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으로 상정하였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 원가족 외상경험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 안에서 각인 된 갈등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참여자들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거나 버림을 받았고, 이후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활 중 구타 등을 통해 상처경험을 하였다(참여자 1, 2, 3, 7, 10). 참여자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을 상처경험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고,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입소하여 누구보다 서로의 아픔을 잘 알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설선배들로부터 받게 되면서 몸의 상처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안게 된다. 이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로 불안감이 현실로 부상하는 낯설고 당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혹스러운 사태로 외상경험을 인지하였다. 결국 이러한 외상경험은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학습되어 온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적 고정관념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게 된다(참여자 2, 5, 7). 이렇듯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인 시설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회로부터 이식된 선입견을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부여한 시설출신이라는 흔적과 구성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당사간의 합의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퇴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에 대한 감정은 이런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움이란 감정으로 싹트게 되고 과거의 상처를 애써 들추어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치료하는 자기면역체계를 가동시켜 부모를 이해하게 되거나 용납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참여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였으며 사람을 신뢰 할 수 없게 되어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으며 자신의 속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등의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켰다(참여자 2, 5) 이처럼 참여자들은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먼저 다가가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신이 스스로 쳐 놓았던 시설출신이라는 그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참여자 3, 6). 또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연의 정을 체감하게 된다(참여자 6). 참여자는 스스로 짐작하지 못했던 가족의 중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결국 참여자들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사회가 부여한 체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려하기 때문에 원가족과 시설생활의 균형추는 자연적으로 원가족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시설생활의 분명한 이유들을 찾기 시작한다(참여자 7, 9).

그러나 원가족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참여자의 경우는 실제로 학대가 일어났을지라도 참여자가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 주어진 시설생활의 삶을 자신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떠맡게 된다. 그런데 이 떠맡음 속에는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동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퇴소에 대한 불안,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이해와 용서, 자립에 대한 미흡한 준비가 가져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두려움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굳은 결심으로 자신의 환경을 떠맡기도 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삶이 자신을 휘감아 가는 태풍과도 같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 나갔으며 과거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삶을 선택하였으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 짐작하고 있었으며 과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할지 모르는 미로와 같은 삶 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 더 이상 발목잡히는 인생이 아닌 개척자로써의 새로운 희망을 부여잡는 삶을 선택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낙인뿐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자기낙인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핵심범주는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이다. 낙인이라는 것은 제도·관습·규범·법규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보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낙인찍다 보면 이 아이는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바보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도 '고아'라는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원가족과의 회복을 차단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부여한 시설출신이라는 자기낙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아내, 시설직원들, 학교선생님, 대학교수님, 좋은 친구들과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되고 이들과의 일상적인 어울림 속에서 어느새 수정을 거듭하고 자연스럽게 없어져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이미지를 투영하여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은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없어져 가고,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재구성하거나, 더 나아가 우리사회구성원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해석학적 의미 범주들인 '변방에 서 있음', '주홍글씨가 새겨짐', '과거에 발이 묶임', '세상에 고리걸기', '고통을 무리치려는 노력', '인생을 새롭게 조망함',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 '영성이 깊어짐', '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을 경험함' 등 이 모든 과정에는 외상경험을 뛰어넘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감을 알 수 있으며 이 범주들 안에는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이라는 핵심범주가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과정분석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사건들 중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라야 하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경험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이들은 집단적인 시설생활을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과정분석은 참여자들이 전제되는 문제 상황, 조건, 맥락에 따라 범주, 범주의 속성이 변화되는 점진적 흐름을 통해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과정분석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이 맥락에 따라 변화되는 단계를 살펴보았다.

범주의 기술, 핵심범주 구성 후,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로 다시 돌아가 이들의 외상경험의 과정을 심사숙고 하였다. 예컨대 '변방에 서 있음', '주홍글씨가 새겨짐', '과거에 붙들림'이란 범주로 통합되는 개념과 핵심범주를 세세하게 숙독하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이것이 '고난단계로 배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학적 물음을 통해 부분적 의미와 전체적 의미의 연결 관계를 한발 물러서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참여자들이 순차적으로 아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은 대부분 고난, 자각, 탐색, 생존, 성장의 5단계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핵심 범주인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과정을 고찰한 결과, '외상경험으로 인해 갖게 된 심리적·정서적 상처는 더 이상 자신을 불행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 갑자기 찾아 온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는 고난단계 - 이를 깨닫기에는 너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자각단계 - 새로운 삶으로 다가온 시설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탐색단계 - 살아가기 위해 견뎌 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생존단계 -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게 된 성숙을 통한 성장단계로 나타났다.

첫 번째, 고난 단계는 참여자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모로부터의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방임 및 유기 등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정에서 겪은 학대경험은 자신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경험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런 고통스런 경험보다 더 아픈 경험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설입소 후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집단시설생활에 따른 엄격한 규칙과 시설선배들로부터 받은 폭력을 경험하는 단계로 인생의 가장 여리고 보호받아야 할 때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경험하는 고난의 시기이다.

두 번째, 자각단계는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도 없고, 피해갈수도 없으며 이미 자신의 현실에서 벌어진 일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더 이상 부모는 자신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며, 앞으로도 부모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자신은 이제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인 친부모에게 학대당함과 그로인한 시설입소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가족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 깊어지는 단계이다.

세 번째, 탐색단계는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통해 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이 처한 새로운 환경인 시설에 대한 새로운 탐색과 그들에게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진 이 낯선 환경에서 더 이상 어긋나고 싶지 않은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면서 시설생활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참여자들에게 문화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시선과 시설출신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편견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태도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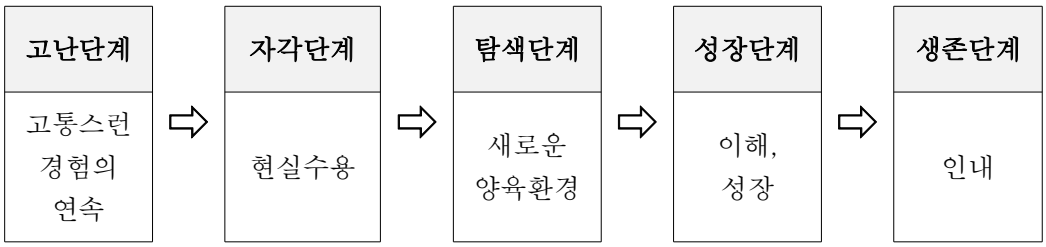
네 번째, 생존단계는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에서 살아남고자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지든지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의 경험과는 또 다른 형태의 외상을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고스란히 견뎌내며 생존의 마지막 보루처럼 시설생활에 적응하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애쓰는 현실순응에 대한 결단을 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성장 단계는 참여자들은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힘든 폭력적인 경험을 자신을 보호해야 할 부모에게서와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로부터 받게 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고통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어느 순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했음을 깨닫고 자신이 과거에 메어있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은 고난 단계, 자각 단계, 탐색 단계, 생존 단계, 성장 단계로 나타났다.



<그림 6> 과정분석단계

1. 고난단계 : 고통스런 경험의 연속

참여자들은 자신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빛이 없는 춥고 어두운 터널과 빠져 나갈 수도 도망갈 곳도 없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이 느꼈으며, 예측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만난 태풍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아직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한 외상사건들은 더 이상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러나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일로 치부하거나 당시의 상황을(부모와 분리, 시설입소)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이것은 마치 예상치 않았던 태풍과 같이 갑작스럽게 몰려와 참여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였으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였기에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어떤 참여자의 경우 이런 상황을 자신이 혼자 어두운 터널 안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보고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이 미로 속에 갇혀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길이 보이지도 않았으며,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라 헤매고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경험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였으며 이런 상황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 이것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막연한 삶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고통을 경험할수록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오히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유기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시설이라는 낯선 환경에 내던져졌다. 그들의 고통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도 지속됨에 따라 이들에게 주어진 고아와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라는 낙인은 새로운 주체로의 시설생활세계에 진입하게 하였다. 그런데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라는 새로운 주체로서의 경험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인식하게 하는 상처로 다가오면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로 은폐되어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뇌리에 형성된 고정관염의 검열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인데 비해 부모에게 버림받고 시설에서 생활한 자신의 상황은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받을만한 사회적 결함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격적 배려는 고려되지 못한 채 모든 상황을 스스로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라는 일탈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환경 속에서 학습된 구타를 스스로 재현해 내는 등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심리적 부담, 암묵적 묵인, 명시적 동의가 자기화하는 내적 검열과정을 거쳐 시설출신임을 숨기고 싶은 허물로 인식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였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으로 인해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규범과 압력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란 새로운 주체로서의 진입을 거부하는 저항감으로 새로운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시설출신이라는 이름의 부담스러움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기분은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을 형성해간다.

또한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적인 외상경험과 집단시설생활경험을 통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스스로 억압하였다. 이러한 억압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데 시설생활부적응, 학교생활부적응, 퇴소 후 자립생활문제 등으로 이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받은 상처경험과 그에 대한 두려움, 숨기고 싶은 가족,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 등의 심리적 기제가 발동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다시 자신의 삶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2. 자각단계 : 현실수용

이 단계는 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이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현실들은 어린나이에 수용하기란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처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그들은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잠시 시설입소를 주저했던 것은 주변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었으나 참여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자신의 삶으로 들어와 버린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비록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였더라도 시설을 새로운 집으로 인식하거나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제하지는 않는다. 참여자들은 낯선 시설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출현하기도 하지만 이때의 그리움은 함께 살고 싶다거나 가족에 대한 배려로는 고려되지 못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란 가족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더 이상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여전히 시설에 살고 싶지 않다거나 그것으로부터 눈감아 버리고 싶은 방어기제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방황을 하거나 포기해 버리거나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것을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수용의 시기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수용의 시기는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외상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시설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현실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끝이 나게 된다. 이 상황은 참여자들에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와 부딪치면서 원가족 분리와 시설입소라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림은 그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하는 피동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심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참여자의 경우 스스로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등 능동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때의 선택 가능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잣대를 기준으로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참여자들의 선택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주위의 시선에 비춰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거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선입견과 스스로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자기낙인으로 여기는 태도가 있다. 이는 그 무리에 끼어있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구별 짓는 행위이며 시설출신이라는 주홍글씨가 남게 되는 것으로 인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사회로부터 이입된 시선에 대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우선적으로 대입해 보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미래설계, 원가족에 대한 이해,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우려 등 현실적인 이유에 방점을 두게 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현실수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더구나 참여자들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비록 자신의 처지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 이런 역경을 극복했다고 하는 자기의지의 태도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원가족 생활에서 받은 상처경험 뿐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시설생활환경으로 인한 불안과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더 심한 고통'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듯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이 부지불식간(unconsciously)에 성장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탐색단계 : 새로운 양육환경

참여자들에게 시설은 상처 입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따뜻한 집이라기보다는 두렵고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했거나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의 탐색을 통해 자신들이 여기서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찾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가 이곳에서 지극히 불안전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며 시설의 직원들과 역동적인 관계들을 맺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를 애써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밀어내고 싶었다. 이들은 현실수용의 원리 속에서 지금까지의 표면적 가면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는데 가족에 대한 원망과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가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말할 수 없는 편안한 행복감을 느끼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동료 생활자에 대한 이환과 감정적 희비, 더 이상 이곳에서 물러날 곳이 없음을 인식한 이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 이러한 결정은 참여자들을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게 한다.

그러나 집단시설생활에 따른 물리적 폭력과 엄격한 규칙 등으로 인한 병폐는 정서적 혼란감에 시달리게 하지만 참여자들의 심리적 고군분투는 퇴소라는 벼랑끝에 내몰리면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여자들의 결단은 자신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이유들로 각자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유를 갈망하며 퇴소를 결정하기도 하며, 아직은 세상과 마주할 준비부족에 대한 불안으로 연장신청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생존단계 : 인내

참여자들은 자립이후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염려는 지금까지 불행했던 삶이 연장 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불안은 현재를 치열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들을 묵묵히 겪어내며 인내하는 단계이다.

어떤 참여자의 경우 자신이 시설의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일들에 대해서도 그 괴롭힘으로 자신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고쳐지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자신에게 모두 유익했으며 이 일들로 인해 자신이 성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 모든 일들을 수용하고 견뎌낸다. 결국 이런 일에 대해 참여자 스스로는 자신이 부모의 좋은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참여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모였지만 힘든 시설생활로 인해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현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시설의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힘을 학교친구나 학교선생님, 교수님 등으로 외부에서 찾기도 하고, 시설의 직원이나 선·후배인 동료에서 찾기도 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보호해 주거나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시설은 언제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아닌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처한 현실은 돌아갈 집이 없고 여전히 그들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모는 여전히 소식을 모르거나 병약하여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설에서 견디어 내는 것만이 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부모와 시설로부터 안정적인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이 선택한 생존의 방법은 단순히 그 현실을 견디어 내는 것뿐이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며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한 다는 것은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낸다.

5. 성장단계 : 이해, 성장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기퇴소를 선택하지 않고 연장을 해서 자립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을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이만큼 성장 할 수 있었으며 더 이상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절대적으로 삶을 의지했던 부모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며 스스로의 삶을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처럼 원가족과의 생활 속에서 얻게 된 외상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시설입소가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줌으로써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부모를 이해하는 측면으로 나아갔다. 자발적으로 시설입소를 선택한 참여자는 원가족에게서의 외상경험을 단절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긋지긋했던 학대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시설에 입소하여 상처를 회복하며 행복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퇴소연장이라는 선택을 통해 아직은 두려운 세상에 내던져지는 삶 보다는 좀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

또 어떤 참여자는 원가족에서의 상처를 외면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듯하다가 시설 입소 후 여전히 힘든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만기퇴소 후에 여전히 사회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시기를 보내던 참여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인생의 자기대상을 만나게 된다. 참여자는 자기대상이 되어 준 아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루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후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시설의 선배들과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혔던 시설후배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화해하며 가족들까지도 함께 교재를 하고 있다. 이들을 모임을 통해 당당하게 시설 출신임을 드러내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현재에 고마워하며, 시설선·후배들의 가족들과도 옛날을 추억하며 한가족이 된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억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며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서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측은히 여기게 되며 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일구어 나가야 할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상상하며 현재의 가정을 더 잘 꾸려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자신들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며 이보다 더한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5절 유형 분석

근거이론에서 유형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영역의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경험한 우리사회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범주의 기술과 핵심범주의 구성 및 과정분석을 진행 한 후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그것에 민감하게 질문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구술 자료에서 드러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공통 된 패턴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외상 후 성장의 공통된 유형을 발견하는데 외상경험 연령, 입소연령 외상의 종류, 원가족 접촉빈도 등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면담 자료의 반복적 읽기를 통해 이것이 그들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속성임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것을 기준삼아 참여자들의 외상 후 성장 유형을 개척형, 통합형, 현실형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표 7>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외상 후 성장 유형 분류

구분	분류기준(유)	분류기준(무)	분류기준(혼합)
대응 방식(능동적)	개척형		
대응 방식(유전적)		통합형	
대응 방식(수동적)			현실형

1. 개척형

개척형은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진 유형이다. 이들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개척형은 외상을 이겨내는 자신을 보고 자신이 가진 새로운 강점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이들은 외상 경험을 한 이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향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자신의 취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하였다. 이 유형은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참여자가 외상경험 연령, 입소연령, 외상의 종류, 원가족 접촉빈도 등의 분류기준이 영향을 미쳤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족 외상경험 및 시설생활경험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들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이 경험한 외상경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원가족, 시설선후배, 시설종사자, 학교관계자 등과 같은 주변체계의 영향을 받지만 스스로 이겨낸다. 여기에는 참여자 1, 2, 3, 4이 해당된다.

참여자 1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로 어머니의 가출 후 어린 나이에 3명의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설입소에 대한 상담 시 아버지의 입소거부 의사에 반해 참여자 1은 적극적으로 시설입소를 원하는 등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시설 입소 후에도 시설직원들과의 원만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만 18세가 퇴소를 해야 하지만 대학진학과 함께 시설거주 연장 신청을 하는 등 자립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행하였다.

참여자 2는 참여자 1의 여동생으로 원가족에서의 외상경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언니가 힘들 때 나한테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모범적이어야 그 아래에 있는 동생들도 잘 보고 배울 것이고 또 제가 성공해서 자리를 잡아야만 동생들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잘 버틴 거 같아요.”와 같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 언니의 동생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자 3은 알코올 중독과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폭력의 피해자이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역할이 미흡하였으며, 참여자는 자신이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생각하고 있다.“저는 지금 자격증 취득하려고 과목이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나가는 것. 안전하게 졸업하는 것. 안전하게 졸업해서 취업 잘하는 것.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4는 참여자 3의 남동생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성실히 하면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으며, 형의 책임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도 성실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혜택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남들 눈치안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할거 다 하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말을 못하죠.”, “중학교 때 맨날 놀다가 실업계 갔으면 계속 그렇게 놀았을 거 같아요. 인문계는 야자도하고 학교에 계속 있으니까”

이처럼 개척형의 참여자들에게 외상 후 성장과정은 분류기준에 영향을 받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척형의 참여자들은 모두 원가족에게서 받은 외상경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입소 연령도 다른 유형에 비해 늦고 모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거나 어머니의 정신 병력으로 인해 퇴소 후에도 자신을 보호해 주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개척형들은 모두 형제자매들과 함께 입소해서 생활했다는 특징이 있고, 비교적 부모와 잦은 교류를 통해 원가족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나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통합형

통합형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외상경험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외상경험 이후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다. 이들은 대부분 시설직원이거나 자원봉사자, 학교관계자, 친구들로 이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등의 변화가 존재하며,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동질감과 정서적인 유대감도 경험한다. 이 유형은 너무 어린 시절로 인해 외상을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외상경험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이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나가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참여자 8, 10이 해당된다.

참여자 8은 초겨울에 노숙하는 어머니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당시 나이는 6세였다. 참여자는 자신이 경험한 원가족 생활경험과 시설생활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업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렸을 때는 꿈이 야무지잖아요.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압박감이 심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나한테 독이 안 되고 더 오히려 좋았어요.” 또한 원가족에 대해서도 지금은 소식을 알 수 없고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물려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참여자 10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거리에 유기된 체로 발견되어 원가족 생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참여자가 겪은 외상 경험은 시설생활에 따른 경험이다. 참여자는 자신이 시설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했던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한다. 이것은 특별히 참여자가 생존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노력한 결과가 아닌 참여자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제가 잠버릇이 심했나 봐요. 선배가 갑자기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놀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잠버릇을 잡아준 거예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요. 크게 생각하면 옛날 풍습이고, 그렇게 생활에 왔고 ... 악감정은 없어요.” 또한 참여자는 장애를 안고 거리에 버려졌지만 자신이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된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기질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오히려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현재 자신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를 만났을 때 혹시 자신이 돌봐줘야 할 어려운 처지라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며 만나기를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통합형의 참여자들에게 외상 후 성장과정은 분류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참여자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든 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합형의 참여자들은 모두 원가족에게서 받은 외상경험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입소 연령도 참여자마다 차이가 있다.

3. 현실형

현실형은 일어난 사건 자체를 인정하고 상황에 순응하는 유형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여 환경 가운데 가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유형이다.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참여자가 외상경험 연령, 입소연령, 외상의 종류, 원가족 접촉빈도 등의 분류기준이 사례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갈등은 격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참여자 5, 6, 7, 9이 해당된다.

참여자 5는 많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시설에서 생활하였다. 어린나이에 입소하여 원가족 생활에 대한 기억이 없으나 초등학교부터 찾아 온 가족들로 인해 현재는 모든 가족들이 참여자의 존재를 알고 방학이면 원가족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어머니가 오랜만에 만난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자 오히려 그때 ‘버려졌다’며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표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는 시설생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시설에 살기 때문에 없어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 시설 아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밝고 행복해 보이려고... 실제 내 마음과는 달리, 내 마음은 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에서 살아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 보이려고 했어요.” 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에게 처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참여자 6은 원가족의 생활경험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힘든 집단생활에서 겪은 이유 없는 구타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며, 시설이 마냥 힘든 곳이 아닌 나름 즐거운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재밌을 때도 있었고, 맞는다는 자체는 무서웠고요. 노는 것은 재밌었고~특별히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고, 그냥 그 상황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극복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 맞을 때는 같이 맞는 거고.” 참여자는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여러 차례 정학의 위기를 넘긴다. 시설 생활 중 선배들로 받은 폭력에 대한 학습으로 자신도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대물림을 하는 등 시설생활 및 학교생활 모두를 힘겹게 그 통과의례를 거쳤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등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참여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한 번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게 된다.

참여자 7은 원가족의 생활경험을 기억하고 있으며, 입소 후 2~3일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순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시설생활을 하면서 집단생활 중 개인의 잘못으로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생활한다. “어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몰랐어요. 시간이 자꾸 2~3일 흐르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순간적으로 이런 곳이구나. 맞춰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큰사람도 있고, 그래도 구속하는 것보다 낫다고 봤어요. 그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일정한 규칙적인 생활이 있고 단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랬죠. 나만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여자 9는 어린나이에 입소하여 원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다. 나중에 형제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함께 생활한 경험이 없어서 각자의 삶으로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한다. “대학교 입학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게 된 후 어머니 말고 가족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았더니 형, 누나가 있었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두같이 살았다고... 누나가 같이 살 때 날 엄청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많이 예뻐했다는데 내 존재를 알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단 것에 배신감과 실망이 많았지만 그 감정은 잠시뿐 내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현실형의 참여자들에게 외상 후 성장과정은 분류기준에 영향을 받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현실형의 참여자들은 모두 원가족 생활 중에는 외상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시설입소 후 재회를 통한 상처경험이거나 집단 시설생활에 따른 외상경험을 보고했다. 참여자들의 입소 연령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경험을 통해 바라본 외상 후 성장의 본질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어떤 과정으로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여 외상 후 성장관련 이론 및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현장에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중심 질문을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은 어떠한가? 로 상정하여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을 '외상경험과 같은 극단적인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정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40대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로서 아동양육시설에서 10년 이상 생활한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과 퇴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상 후 성장 점수가 평균이상인자 중 스스로 외상 후 성장을 했다고 보고한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외상 후 성장경험과정을 탐색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추천과 모집 된 참여자의 추천을 통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진행하였고, 면담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목적,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 녹음에 대한 허락 등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횟수는 1회~3회, 1회기에 최소 1시간~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을 위해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 개인의 생생한 체험을 들었으며,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부정적인 생활경험과 그 영향이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Rennie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인생진행 과정분석, 범주분석, 과정분석,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인생진행의 과정분석 결과

인생진행의 과정분석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원가족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였으나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는 등 굴곡진 인생진행곡선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원가족 생활과 시설생활 사이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정서적 갈등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다양하게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시설생활경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부여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라는 자기낙인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면역체계를 가동시키거나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자신이 생활환경을 이해하게 되거나 용납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 더 이상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닌 개척자로서의 새로운 희망을 부여잡는 삶을 선택해 나갔다. 또한 주변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자기대상을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들과의 일상적인 어울림을 통해서 기존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느새 수정을 거듭하고 자연스럽게 줄어갔으며,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한 삶의 의미는 시설에 오게 된 경로와 시설생활 경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록 외상을 경험하였지만 이를 극복하며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부정적 생활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 생활과 시설생활이라는 두 삶의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터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외상 후 성장을 하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원가족과의 단절경험이 성인기까지 적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Leathers, 2000)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단절경험이 전적으로 사회 부적응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경험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힘이 된다(Calhoun & Tedeschi, 1999)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과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원망과 그로 인한 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등을 경험하였지만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됨에 따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당시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었다. 이들은 외상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으로 충격을 경험하였지만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갔으며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발목이 붙잡히지 않고 시설출신으로써 부여받은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

2. 범주 및 핵심범주 분석 결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경험적 영역의 실체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총 10명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녹음 된 인터뷰의 자료를 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Rennie(2006)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원자료 속에서 개념화할 수 있는 의미단위를 찾고 여러 의미단위들 중 서로 유사한 것들을 범주로 묶어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범주의 구성은 54개 개념, 22개 하위범주, 8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먼저 범주의 구성단계에서 '변방에 서 있음', '주홍글씨가 새겨짐', '과거에 붙들림', '세상에 고리걸기', '고통을 물리치려는 노력', '인생을 새롭게 조망함',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 '영성이 깊어짐'으로 구성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는 외상경험을 뛰어넘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감을 알 수 있으며 이 범주들 안에는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이라는 핵심범주가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 후 성장 경험의 개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원가족과 집단시설생활을 통해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외상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심리적 상처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데 자신이 아직 너무 어리고 힘이 없으며, 주변에 자신을 도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자신을 학대한 부모를 피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였지만 집단시설 생활은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엄격한 규칙과 폭력적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설문화로 인해 다른 형태의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지 않았으며 원가족인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로 인해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에게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은 아동양육시설생활 중 자립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시설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조건을 꼼꼼하게 탐색하거나 준비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해 시설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항변하고자 하는 방어적 욕구도 존재하였는데 자신이 받은 물리적 폭력을 타인에게 행사하거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가출을 하는 등 일탈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함께 생활하는 생활자들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시설의 동생들을 돌보는가 하면, 퇴소 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동생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더 큰 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자신에게 자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함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은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되고,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룸으로써 자신이 꿈꾸었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외상 후 성장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힘든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한 자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공존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외상 후 성장경험의 과정은 이보다 더한 아픔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일이 닥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 주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외상경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긍정적인 내적자원과 시설이 제공한 사회적 자원들을 통해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스스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을 촉발했던 요소들은 개인내적 자원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긍정적 유산인 좋은 유전적 기질과 사회적 자원인 다양한 자기대상, 시설을 통해 공급받은 다양한 자원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자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충격적인 외상경험에도 불구하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였다.

2. 과정분석 결과

과정분석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이 맥락에 따라 변화되는 단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은 고난 단계, 자각 단계, 탐색 단계, 생존 단계, 성장 단계로 나타났다.

고난 단계는 참여자들이 남의 일로 생각했던 부모로부터 입은 외상경험과 시설입소 후 겪게 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도망갈 곳 없는 출구 없는 미로나 어두운 터널로 인식하였으며, 이것은 마치 예상하지 않은 태풍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참여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였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자각단계는 부모에게 학대당함과 그로인한 시설입소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참여자들이 가족에 대한 다차원적 느낌을 경험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도 없고, 피해갈수도 없으며 이미 자신의 현실에서 벌어진 일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더 이상 부모는 자신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며, 앞으로도 부모는 자신을 챙기거나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자신은 이제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아가 되었다고 깨닫는 단계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정서적 고통이 외상경험 이후 바로 촉발되었던 과거의 경험인지, 현재도 지속되는 고통인지에 대한 탐색이 더 필요하다.

탐색단계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시선과 어긋나고 싶지 않은 현실적 욕구를 반영해서 시설생활 등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통해 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의 처한 새로운 환경인 시설에 대한 새로운 탐색과 그들에게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진 이 낯선 환경에서 더 이상 어긋나고 싶지 않은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면서 시설생활 등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참여자들에게 문화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시선과 시설출신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삶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태도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생존단계는 시설생활 적응 및 현실순응에 대한 결단을 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에서 살아남고자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지든지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의 경험이 재 반복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고스란히 이겨내며 생존의 마지막 보루처럼 시설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며 현실순응에 대한 결단을 하는 단계이다. 이들은 고통을 경험할수록 삶에 대한 의지도 불타올랐으며, 이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견뎌낸다.

성장 단계는 가족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인생가운데 경험하기 힘든 폭력적인 경험을 자신을 보호해야 할 부모와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로부터 받게 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고통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어느 순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했음을 깨닫고 자신이 과거에 메어있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또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고통은 감소하고 외상 후 성장만 그대로 유지되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성과가 실제보다 크게 지각된다면 안녕감과 외상 후 성장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Tennen & Affleck, 2002).

3. 유형분석 결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의 핵심범주는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으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나타나는 범주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개척형, 통합형, 현실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고, 유형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의 공통된 패턴을 알 수 있었다.

개척형은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자신이 경험한 외상경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원가족, 시설선후배, 시설종사자, 학교관계자 등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같은 주변체계의 영향을 받지만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개척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형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외상경험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참여자가 외상경험 연령, 입소연령, 외상의 종류, 원가족 접촉빈도 등의 분류기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타고난 기질로 인해 외상경험을 수용하는 유형이다. 참여자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든 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합형의 참여자들은 모두 원가족에게서 받은 외상경험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현실형은 일어난 사건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여 환경 가운데 가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유형이다. 현실형의 참여자들에게 외상 후 성장과정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일종의 고난경험으로 인식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한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개척형, 통합형, 현실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 자신이 경험한 일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사회적 시선을 통해 세상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생각과 느낌을 통찰하고,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과정은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실체이론 개발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 제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규정하는 '고아' 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받는다. 시설출신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온전히 견뎌야 하는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을 경험한 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생활했던 시설의 후배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자가 되기도 하는 것을 연구자는 실천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행동문제에 집중하면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을 다시 한 번 낙인찍는 문제점을 양산하였고, 아쉽게도 이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원가족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이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았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외상경험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를 배웠으며, 그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원을 찾아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막연한 통념적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점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초기에는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지만 이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을 통해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 들였으며, 특히 아동양육시설 생활을 통해서는 시설이 제공하는 자원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기회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학대와 집단시설생활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분노의 감정을 갖기도 하고 위축되거나 소심해지기도 했으나 이후 오랜 시간 지속된 시설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맺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거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등 성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처럼 원가족과의 단절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내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새로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상사건을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외상경험이 더 이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사회가 가지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짐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다.

2.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위한 실체이론 개발의 중요성

지금까지 스스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다고 생각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 수행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들과 퇴소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해석학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원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의 본질을 연구자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원가정과 시설이라는 분절된 동시에 연결된 삶의 공간 속에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드러내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필요한 실체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한 외상 후 성장에 따른 과정분석과 유형별 특성들을 통해 이들이 가진 문제 상황과 조건들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점진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먼저 과정분석을 통해 파악한 고난단계, 자각단계, 탐색단계, 생존단계, 성장단계를 통해서 각 단계에 맞는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난단계에서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상처 난 마음을 잃어 주고 공감해 주며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공감의 방식은 무엇인가? 공감(empathy)이란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놓아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심리적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유경남 외, 2006)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당사자들의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일일 것이다. 대체로 우리사회의 일반적 시각에서 '성장'이라는 개념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이라는 것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연구 참여자 표집의 단계에서부터 '외상 후 성장'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이는 외상 후 성장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자신이 시설출신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 되었다. 이는 실제로 연구자가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전문적인 자기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면담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자신이 시설 출신임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연구 참여를 거부하였다. 또한 유형별 분류에서도 확인 된 개척형, 통합형, 현실형에 맞는 실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개척형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자원의 부족과 시설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전문성 문제,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 간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이들은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맞는 개별화 된 맞춤형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사회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외상 후 성장과정을 경험하는데 다양한 지지체계가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새 힘을 얻었는데 선행연구를 통해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할 지지집단이 많지 않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인즈 코헛(Heinz Kohut)이 말한 자기대상으로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다양한 자기대상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참여자 6), 시설의 직원(참여 3), 대학의 교수(참여자 8), 교회의 지도자(참여자 1), 친구들(참여자 9), 시설선배(참여자 5),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참여자 2)들로 이들은 참여자들의 삶에 있어서 심리적 산소의 역할을 해주었으며, 비록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부모를 유일한 자기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체계들을 연계해 줌으로써 부모의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또한 현재의 삶에서 자립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지만 이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시설의 자원과 지역사회의 자원, 국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립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는 하나 이로 인해 사회의 부적응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며,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자립을 준비해 나갔다. 이들은 퇴소 후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곧 바로 퇴소를 선택하지 않았고 비록 시설에서 엄격한 규칙을 적용받으며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연장신청을 통해 자립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나갔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었던 주택에 대한 문제는 지원신청을 통해 LH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2년 동안 지원 받고 다시 재계약이 가능하여 당장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아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양육시설 생활자들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을 포기하거나 중단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개인 사생활 보장이 어려운 집단시설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연장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 후 적성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충분히 진로를 탐색할 시간과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자신의 퇴소 후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Tedeschi와 Calhoun(1996)가 이야기 한 외상 후 성장의 3가지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자기인식의 변화는 참여자들은 비록 자신이 힘든 경험을 했지만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긍정적인 기질로 인해 자신이 어려운 환경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외상사건에 대처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내적 힘을 발견하게 되면서 스스로 역경을 해쳐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상 경험 이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향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며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견디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자신의 취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경험 당시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어린나이에 입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강하게 자신의 인생을 당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비록 시설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지만 자신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되면서 주변을 덜 의식하게 되거나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대인관계의 변화로는 외상 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지지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인식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거나,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동질감과 정서적인 유대감도 경험한다. 집단시설생활은 원가족 생활 못지않게 힘들었지만 시설에서 받게 된 다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지원의 고마움을 알고 있었으며, 시설의 선후배들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거나 소식을 전하고 있었으며, 자신들도 기꺼이 시설후배들의 후원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철학의 변화로는 참여자들은 원가족과 시설생활 중 경험한 외상경험으로 인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돈)이 아닌 가족임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게 되거나 현재 주어진 것들로 인해 삶에 대한 깊은 감사(a deeper appreciation for life)를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은 삶의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보다 강한 신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상 성장을 이루는 세가지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들은 외상경험을 통해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게도 외상경험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아동양육시설 환경을 긍정적인 자원으로 받아 들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시설의 물리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게 시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쇄 되었다. 그러나 시설출신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편견이나 집단생활에 따른 개인 사생활보장의 어려움, 엄격한 규칙과 선배들의 폭력 등으로 인해 심리적 환경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체이론을 토대로 국가와 지역사회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 연구의 함의

본 연구결과 외상 후 성장 과정은 자신이 처한 환경 및 상황에 인식과 주변의 다양한 지지체계와 자원들을 활용함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타났다. 본 절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가.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 외상 후 성장은 특별한 계기가 있기보다는 시나브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설의 다양한 자원연계와 자신을 온전히 믿어 주는 자기대상으로 인해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하여 질적으로 분석한 데 의미가 있다. 외부자적 비교는 만족을 주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스스로 성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경우 외상 후 성장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추출 방법은 심층면담을 통해서 참여자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찰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주변과의 대인관계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미 시설을 퇴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희귀성으로 인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내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이로써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경험과정에 대한 심층이해와 외상 후 성장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근거이론을 적용한 우리나라 연구물들의 대다수는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외상 후 성장 연구가 양적접근이거나 혹은 질적 접근의 단일한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 점수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연구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추후 심층면담으로 연결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적 접근을 통해 근거이론 방법론의 외연을 확대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먼저 개인내적 자원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긍정적 유산인 좋은 유전적 기질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외상경험과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든 것을 극복하고 성장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적 자원으로는 다양한 자기대상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의 격려와 지원 공감을 받음으로 인해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아동양육시설을 통해 공급받은 다양한 자원들로 인해 자신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게 됨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퇴소연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함으로 자신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의 개념정리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외상 후 성장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대상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직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외상 후 성장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 이론적 틀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세 가지 유형분류는 유형별로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어떤 조건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외상 후 성장과정은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성장을 잘하고 '있다', '아니다'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도 하지만 중도에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과정은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조건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을 더 강하게 세워나가며,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신감을 얻어나간다는 측면에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 연구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책적 함의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경험한 외상사건으로 인해 그들을 이미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규정하며 낙인을 부여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것처럼 오히려 어려운 환경가운데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학계와 현장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와 공공의 담론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으로 퇴소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제도화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연장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12개 자립생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실제로 자립생활관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모의 원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에게 자립은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부담스럽고 불안을 초래하는 일이다. 따라서 퇴소연장을 통해 자립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록 시설생활이 자유를 제한받는 어려움은 있으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연장신청을 하여 최대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시설생활 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도 외상 후 성장과정을 경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원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학대, 유기, 경제적 문제, 부모의 질병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충분히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시설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복귀되고 그 부모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다.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자녀를 학대했던 부모가 변화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부모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가 원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 실천적 함의

앞으로 실천현장에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입계획을 세울 때 그들의 외상 후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해 불우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타파하고,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자 하였다. 사회에서 홀대 받거나 하찮게 치부되기 쉬웠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힘을 보인 그들의 선택은 관련 실무자 뿐 아니라 학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가 시급함을 환기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시설병'과 같이 시혜적이고 취약하며 가난한 시설출신으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형성된 편견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기회의 부족이나 가난의 대물림이 은밀하고 공고하게 사회적으로 고착화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시혜자라는 소극적 모습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를 병리적 혹은 문제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임을 성찰하도록 하였다.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이 지배하고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시설생활경험자의 외상경험을 통한 성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차별과 선입견으로 이어지기 쉽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내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설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에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을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직 외상 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원가족과 시설생활을 통해 상처를 경험하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지는 못함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안고 살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상처경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의지할 자기대상과 모델링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기대상들을 통해 힘든 시기들을 견디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기대상이 필요하며,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확인 된 것처럼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자신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도 성장에 이른 선배들을 통해 모델링 할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을 만나게 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유형별 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개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외상 후 성장과정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형에 따라 이들이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써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Rennie가 제안한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을 탐색하였다.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방법은 연구자의 해석적 창의성과 풍부함을 담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것은 해석의 타당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중시한 사회과학의 엄격성 측면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사건이 외상경험인지 단순한 객관적 사건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에 부족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편의상 J도와 K시에 거주한 시설생활경자들을 대상으로 2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범위의 확대와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정은 고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은 원가족과 집단시설생활을 통해 다양한 상처를 경험한 생활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새로운 의미구성이 필요하다. 이때 의미구성이란 기존연구에서 통상적으로 논의 되어 왔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은 사회로부터 받는 낙인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내부적으로부터 스스로 검열을 받아 자기 낙인을 부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신이 경험한 부모로부터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학대경험과 버려짐 그리고 규범과 규칙이 난무하는 집단 시설생활에 따르는 상처경험들 때문에 사회적 낙인과 같은 사회적 통제 장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재생산된 내부적 낙인이 이후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조모임이나 교제를 통해 스스로 내부적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연구자는 이러한 접근 과정 속에서 사회나 시설경험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해결책 모색은 좀 더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의 외상유형과 외상수준에 따른 구체적 접근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회에 방어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식화 된 집단의견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으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유형과 외상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문제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예방적 프로그램이나 용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의 심리내적인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외상 경험 후 자신이 변방에 서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에게 처해진 고난의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불태우며, 자기계발과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삶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생활자들이 이러한 의지를 더욱 고양하고 임파워링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실천개입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심리내적 힘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제공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대처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외상 후 성장과정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깨우쳐 나간다는 것으로 볼 때 지속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서를 고려한 맥락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를 중요시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서로 인해 참여자들은 시설을 또 다른 집이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은 이들이 퇴소 후에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됨으로서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대상들과의 만남은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 믿음을 쌓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이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고 역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영천(2008). 『질적 연구방법론Ⅰ』. 서울: 도서출판 문음사.

김애령(2009). 『현상학과 해석학의 방법론적 적용의 문제: 체험연구의 현상학적 토대와 해석학적 확장. 탈경계 인문학』

김혜영(2007). 『학대경험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창립 50주년기념 학술대회.

라형택. 『로고스 NEW 성경사전』. 서울: 도서출판로고스.

류경남·최수정(2006). 『가족 상담 심리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신혜령・주보라(2013).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오정수・정익중(2013). 아동복지론(제2판) 서울: 학지사.

유성경(2000). 『청소년가출: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1-152.

이현수(2009). 『역경속의 성장』. 서울: 학지사.

이동욱·유주형·김규훈. 2011.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이혜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선욱(2004). 『시설보호 아동의 시설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홍봉선·남미애(2007).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2. 학위논문

강은진(2007). 시설보호청소년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석사학위논문.

강창실(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란(2009).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영(2002). 시설아동의 삶의 체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김미자(2009). 내담자의 자기대상 욕구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선(2005).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석주영 (2004). 집단게임놀이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혜령(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희정(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혜(2002). 시설보호형태에 따른 보호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영(2014).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 : 중국 체류 시 결혼경험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조순실(2011). 그룹홈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향한 삶의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선욱(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승미(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영주(2009).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의 치료적 전환점: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진의(2013). 성인 애착 불안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비와 반추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국내학술지

강문희(2005). 사회극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 존중감, 자기표현능력 및 자기표현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학회』, 26(4), 1-20.

강철희(2002).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동과 퇴소 후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화사회복지연구』, 1, 170-212.

강현아·신혜령·박은미(2009). 시설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9.

구차순·이승민(2011). 시설보호 아동의 원가족 분리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31-60.

권지성(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과 권리』, 11(1), 1-29.

권지성・김정득・상혜진(2006).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2교대 제도에 따른 시설 내변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115-141.

권지성·정선욱(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229-253.

김기영·김춘경(2003). 사회적 기술증진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회』, 16, 7-36.

김지경·장현아(2014).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인지행동치료』 14(2), 239-265

김수정·김영미·이화명(2013). 아동양육시설 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 및 스티그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27-52.

김인숙(2011). 근거이론의 분기: Glaser와 Strauss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연구』, 42(2), 351-379.

김현자·한성심·서명원(2008). 양육시설아동의 정신건강과 아동복지적 접근. 『아시아아동복지연구』, 6(1), 29-47.

남영옥·이상준(2008). 일반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8.

문성호(2001). 학생청소년의 권리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제연구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1-18.

박혜원·안현의(2006). 초월, 영성 강담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성 및 외상관련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1), 201-214.

배주미·김영화·김범구·정익중(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22(3), 69-96.

석주영·안옥희·박인전 (2004).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 및 유머감각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237-250.

성미영·이순형·이강이 (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 39(1), 53-64.

송승훈·이홍석·박준호·김교헌(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 193-214.

송승훈·김교헌·권선중·이홍석(2006).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252-253.

신혜령·김성경·안혜영(2003). 시설 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3.

신혜령·김보욱(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 청소년학회지』, 8(1), 29-49.

안현의·주혜선(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 심리학회』, 13(3), 869-887.

양승연·오정란·권지성(201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적응유연성 형성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9, 93-126.

양점도·변미희(2001). 아동복지시설의 양육환경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3(2), 13-23.

유안진(2001).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 『한국아동학회』, 22(2), 133-147.

유안진·민하영·권기남(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윤명숙·김서현(2012). 대학생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40(2), 5-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강이·성미영·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0(2), 57-66.

이동성·김영천(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이순형·이혜승(2002). 초·중·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차이. 『한국아동학회』, 23(4), 119-136.

이순형·이강이·성미영 (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 40(2), 55-66.

이양자·정남운(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23.

이한우·안경순(2012). 친사회성 프로그램이 양육시설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감소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 장애연구』, 28(2), 75-95.

이화명·김영미(2015). 아동양육시설 청소년기 입소자의 시설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 419-447.

이혜은·최재성(2008).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2). 209-233.

이혜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 66-69.

이효선(2007). 생애사 연구를 통한 중도장애인의 삶의 재구성: 슛제의 이야기식 인터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299-330.

장연집(2004). 치료공학과 질적 심리학의 연구논리. 『심리치료』, 4(2), 45-72.

정경미(2009). 시설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 및 자립준비도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1), 33-50.

정선욱(2010). 시설퇴소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 『청소년학연구』 17(2), 233-252.

정원철·이화명 (2013).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4), 175-197.

정원철·이화명 (2014).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시설 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1(3), 243-2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익중·이지언(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조기곤·서윤(2009). 아동양육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91-122.

조정순·백혜순·최주순·오열근·임명호·김현우(2009). 시설아동과 정상아동의 감정 행동 특성비교. 『스트레스연구』, 17(4), 341-348.

조규필(2011). 취약청소년 자립준비요인 탐색 및 시사점. 『청소년복지연구』, 13(2):97-120.

주소희(2015). 이혼가정 자녀의 부모이혼 경험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한 국가족사회복지학회, 49, 97-131.

최나야·유안진·한유진(2002). 시설 청소년의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2), 161-175.

최은경·오수성(2006). 보육시설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행동문제, 내제화 및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5(1), 129-145.

한근희·김정민(2007). 시설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입소원인 지각과 통재소재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2), 69-75.

홍수현·김경희(2005).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대인불안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2), 277-296.

홍현미라(2010). 저소득 가구의 현금자산형성의 주관적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4), 395-428.

4. 정부간행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인력개발원(2014). 2013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2015). 2015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_____(2015). 2015년도 공동생활가정 현황.

_____(2016). 통계자료

_____(2016). 『아동복지법 시행령』.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혜령·노충래·정익중(2012).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아동자립지원사업단.

신혜령·한지은(2006).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박은미·강현아(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09). 『제1기 자립역량강화과정 :시설아동의 자립준비와 사정』.

5. 기타

KBS 스페셜 현장보고, '만 18세 어른이라 불리는 아이들' 2007.6.17.

다음사전(최종 검색일: 2016.4.20)

【국외문헌】

1. 단행본

Bowlby, John(1965). *Child cake and the Growth of love*. Middlesex England: penguine Books.

Fuchs, W.(1984). Biographische Forschung. Eine Einführung in Praxis und Methoden Opladen.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ory,* Lee Jae Hoon Station, Korea Institute of Psychotherapy.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Lee Jae Hoon Station, 2002. Seoul: Korea Institute for Psychotherapy.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Strauss, A. L. and Corbin, J.(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trauss, A. L. & Corbin (1998). "Based on the theory of stages". Shin Kyeong-nim Station, 2001 Seoul: hyeonmunsa.

Tedeschi, R. G. Park, C. L. & Calhoun, L. G(1998).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Tedeschi, R. G & Calhoun, L. G.(2006).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lchiodi C. A. (2000). *The Art Therapy Sourcebook.* Choi. Jinyoung airspace, art therapy. Seoul: hakjisa.

Walsh, F. (2002). *Family Resilience.* Yang okgyeong, gim miok, the maximum brilliancy (airspace). Seoul: Nanam (1988 Original year of publication)

2. 학위논문

Courtney, J. L(2007).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of A Life Skills Training program for Adolescents in The Texas Foster Care System. Ph. 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Glaser, B. G(1992). Emergence vs forcing: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Sociology Press.

Grbich, C(2009).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An introduction.* CA.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Leathers, S. J(2000). Behavior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 giver sand Community Institu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LeCroy, C. W.(1987). Teaching Children Social Skills : A Game Fromat. Social Work. 32.

Lincoln, Y. S. and Guba, E. G(1985). Natural is tic inquiry, Calif: Beverly Hills S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adgett, D. K(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P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Strauss & Corbin, J(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age.

Strauss,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s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 Sage Publication.

Tedeschi, R. G. & Calhoun, L. G(1995). Trauma &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3. 학술지

Atkinson, M(2008). Aging out of foster care: Towardsa universal safety net for former foster care youth.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43, 183-212

Barber J. G. & Delfabbro P. H(2002). The plight of disruptive children in out-of-home care. Children's Services: Social Policy, Research & Practice. 5(3), 201-212.

Benoliel, J. Q(1996). Grounded theory and nursing knowledge. *Qualitative Health Tesearch, 6*(3), 406-428.

Brewin, C. R. Andrew, B., & Valentine, J. D(2000). Meta -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748-766.

Charles A. Williams(2011). Mentoring and Social Skills Training: Ensuring Better Out comes for Youth in Foster Care. *Journal of child welfare.* 90(1), 59-74.

Christopher, M(2004). A broader view of trauma: A biopsychosocial - evolutionary view of the role of the traumatic stress response i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emergence of pathology and/or growth.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1), 75-98.

Collins, M. E(2001). Transition to adulthood for vuler able youths :A review of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policy. *Social Service Review,* 75(2), 271-291.

Courtney, M. E. Dworsky, A. Piliavin, I. & Zinn, A. E(2005). Involvement of TANF Applicant Families with Child Welfare Services. Social Service Review, 79(1), 119-157.

Courtney, M. E. and Barth, R(1996). Pathway so folder adolescents out of foster care: Implications for independent living services. Social Work. 41(1), 75-83.

Joseph, S. & Linely, G. J(2005). Understanding changers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structural classification. Journal of Loss and Trauma, 10, 83-96.

Joseph, S. & Linely, P. A(2006). Growth following adversit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1041-1053.

Lee, R. M. Seol, K. O. Sung, M. Y. & Miller, M. J(2010). The behavioral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and international adoptive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6(2), 468-478.

Matsueda, R. 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577-1611.

Melia, K. M(1996). Rediscovering Glase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368-378. ; Thomas & James, 2006

Park, C. L. & Helgeson, V. S(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791-79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Rennie, D. L(1996). Fifteen years of doing qualitative research on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4,* 317-328.

Rennie, D. L(200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s methodical hermeneutics: Reconciling realism and relativism. *Theory & Psychology*, 10, 481-502.

Rennie, D. L(2006). Embodied categorizing in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ory & Psychology*, 16, 483-503

Rennie, D. L(2007). Methodical hermeneutics and humanistic psychology.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5, 1-14.

Schütze, F.(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 biographieischen stegreifer zählens. In, Kohli, Martin/ Günther Robert(Hg.).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Stuttgart,* 78-117.

Stein, M(2006). Young people aging out of care: The poverty of theory. *Child and Youth Services Review.* 28, 422-443.

Tedeschi, R. G. & Calhoun, L. G(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Salter & Stallard, 2004; Song seunghun, 2007.

Tedeschi, R. G. & Calhoun, L. G(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Tedeschi, R. G. & Calhoun, L. G(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93-102.

Tennen, H. Affleck, G(2002). Benefit finding and benefit-reminding, In the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584-58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송승훈외, 2009).

West, W(2001). Beyond grounded theory: The use of a heuristic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pproach to qualitative research.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2), 126-131.

Zoellner, T. & Maercker, A(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진 청장년이거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퇴소한 청장년들은 연구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1~3회 동안 1~2시간 면담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면담한 내용은 녹음하되 학문적 목적이외에는 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무기명으로 할 것이며 혹시 면담과정 중 힘든 부분이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음된 자료는 논문에만 활용되고 이후 폐기 될 것 입니다.

본 연구는 시설생활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솔직한 얘기들은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며 이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며 논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참여자 _____서명

연구자 신 혜 숙 서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2> 외상 후 성장 척도

외상 후 성장 (PTG-I) 질문지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경험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경험(충격적이며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사건)"들을 떠올려보세요. 당신이 경험한 "인생의 위기 사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이 아래 문항에 들어있습니다. 귀하께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0 = 나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1=나는 매우 작은 정도 경험하였다.
2 = 나는 조금 경험하였다. 3=나는 꽤 경험하였다.
4 = 나는 많이 경험하였다. 5=나는 많이 경험하였다.

원척도 문항 번호	문 항	경험하지 못함	매우 작게 경험	조금 경험	보통 경험	조금 많이 경험	매우 많이 경험
1	그일 이후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0	1	2	3	4	5
3	그일 이후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5	그일 이후 나는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0	1	2	3	4	5
6	그일 이후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7	그일 이후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0	1	2	3	4	5
8	그일 이후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0	1	2	3	4	5
10	그일 이후 나는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11	그일 이후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2	그일 이후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3	그일 이후 나는 매일 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5	그일 이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0	1	2	3	4	5
16	그일 이후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0	1	2	3	4	5
17	그일 이후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0	1	2	3	4	5
18	그일 이후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0	1	2	3	4	5
19	그일 이후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	1	2	3	4	5
21	그일 이후 나는 친구나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0	1	2	3	4	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지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세
3.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재 ④ 대졸 ⑤ 기타
5. 귀하의 직업은? ( )
6. 귀하는 결혼을 하셨나요? ① 네 ② 아니요
7.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부모의 문제(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 ②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빈곤, 부모의 실업 등) ③ 기타( ) ④ 모른다(기억나지 않음).
8. 귀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① 있다 (8-1번으로) ② 없다(9번으로)
8-1. 형제자매가 있다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9. 처음 시설에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설에서 총 생활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년 ( )개월
10. 처음 시설에 입소할 당시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세
11.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십니까? ① 모두 살아계신다 ② 한분만 살아계신다 ③ 모두 돌아가셨다 ④ 모른다
12. 시설에 오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13. 시설에 온 이후 부모님과 연락은 끊어졌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③ 해당 없음(부모님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없거나 부모님 사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4> 반구조화 된 면담용 질문지

연 구 문 제	질 문 내 용
1. 원가정에서의 외상 경험은 어떠한가?	1. 원가정 생활은 어떠했나요??
	2. 원가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3. 원가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2.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외상경험은 어떠한가?	4.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5. 시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6. 아동양육시설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아동양육시설 생활 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은 어떠한가?	7.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을 통해 변화가 되었다면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8.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추가 질문	10. 현재 삶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11.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2.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 사 의 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사무엘상 7:12).”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며, 방황하고 주저할 때 선택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끝까지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상황마다 개입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에벤에셀(Ebenezer)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적 연구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마다 논문의 방향을 잡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숙 교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박희서 교수님, 제자의 성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김용섭 교수님, 마지막까지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세윤 교수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논문의 질을 높여주신 김경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삶의 값진 경험들이 실천 현장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논문이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고,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문이 더디게 진행될 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사과정 동기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의 심리치료에 최선을 다해 준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의 직원들과 치료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 일에 전력하지 못한 부족한 사모의 공백을 채워주신 다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로 함께해준 인생의 동반자이며 신앙의 멘토인 남편 김충선목사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엄마를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해해주고 가사 일까지 분담해 준 사랑하는 딸 신의와 아들 경훈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미수(米壽)를 바라보시는 연세에도 막내딸의 학위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시며 용기를 북돋우어 주신 친정 부모님께도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신 시댁의 형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형님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신 혜 숙

dCollection @ chosun